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 일반편 |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 일반편 |

연구책임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연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연구자	박희숙	대구대학교
	오은찬	이화여자대학교
	홍성욱	동그라미재단
	변지영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박새롬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김재환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조윤희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본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한국월드비전과 동그라미재단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한국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월드비전은 2010년과 2015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빈곤아동들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드비전은 꼼꼼한 연구와 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취약아동의 꿈에 더욱 초점을 맞춰 아동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월드비전은 시야를 보다 넓혀 한국사회 빈곤층과 비빈곤층 미래세대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 단위 조사인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꾸며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월드비전이 지난 6년 동안 ‘꿈꾸는아이들 꿈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배운 한 가지는 빈곤이 가져온 박탈과 좌절감에 익숙해져 무기력해진 아동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준 것은 바로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멀고 큰 꿈만이 아니라, 지금 내 생활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작은 소망들이 켜켜이 쌓인 나이트 같은 꿈입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아동들이 품고 있는 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한다면, 이들은 자신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빈곤아동에게 지원되었던 기존 서비스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가난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을 끊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동그라미재단, 연구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 대구대학교 박재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를 위한 인터뷰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아동·청소년, 가정, 지역사회 기관, 단체 관계자님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인 사 말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최성호

아동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여정은 기대감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회의 불평등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구조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선진국 도약의 기초 조건인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평등을 줄여 나가기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노력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커녕 꿈을 꾸는 여유조차 봉쇄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저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러 어려움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의지가 약화된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꿈과 좌절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문제인식이 연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동그라미재단과 월드비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자신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는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공익 프로그램과 정부정책, 제도를 설계할 때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월드비전, 연구진 그리고 연구에 응해 주신 아동청소년들과 관계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가 만들어 낼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면서 동그라미재단은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최성호

목 차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선행연구 고찰	7
1. 꿈의 개념	7
2. 한국 미래세대의 꿈	9
3. 꿈 관련 변인	10
4.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	12
III. 연구방법	14
1. 양적조사	14
1) 조사대상	14
2) 조사 절차 및 방법	18
3) 조사상의 윤리적 고려	18
4) 조사내용(설문지 구성 및 내용)	20
5) 분석방법	26

CONTENTS

2. 질적조사	27
1) 합의적 질적 연구	27
2) 연구진행절차	28
3) 합의적 질적 연구 진행과정	32
4) 자료 분석	33
IV. 양적조사 결과	35
1. 일반적인 실태: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꿈꾸고 있을까?	36
2. 꿈꾸면 무엇이 좋을까?	55
3.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마저 다를까?	79
4.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93
5. 꿈이 자란다, 희망이 자란다: 빈곤가정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108
V. 질적조사 결과	114
1. 나의 꿈, 나의 미래	114
1) 자기 자신의 꿈	114
2) 나의 미래	132

목 차

2. 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	144
1) 내 꿈의 출발 -----	145
2) 롤 모델 -----	158
3) 부모의 기대 -----	162
3. 꿈에 대한 계획 -----	169
VI. 결론 -----	181
1. 양적연구 결과요약 -----	181
2. 질적조사 결과요약 -----	186
3. 제언 -----	191
1) 미래세대 일반에 대한 제언 -----	192
2)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대한 제언 -----	199
참고문헌 -----	203
부록 -----	211

표 차례

〈표 1〉 2017년 한국 미래세대 교급별-권역별 전체 인구수(모집단) -----	14
〈표 2〉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표본수(계획) -----	15
〈표 3〉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표본 학교수(아동·청소년) --	16
〈표 4〉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실표본수 -----	17
〈표 5〉 조사 세부내용 -----	21
〈표 6〉 진로성숙도 척도 하위영역 -----	22
〈표 7〉 진로준비행동 척도 하위영역 -----	23
〈표 8〉 아동행동평가 척도 하위영역 -----	23
〈표 9〉 회복탄력성 척도 하위영역 -----	24
〈표 10〉 부모양육태도 척도 하위영역 -----	25
〈표 11〉 학교생활적응 척도 하위영역 -----	26
〈표 1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	29
〈표 13〉 연구 참여자의 특성 분석 -----	31
〈표 14〉 아동청소년 꿈에 대한 인터뷰 질문 내용 -----	32
〈표 15〉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7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꿈 유무 -----	38

〈꿈 17〉 꿈이 없는 이유 -----	39
〈표 18〉 꿈 자기결정 여부 -----	40
〈표 19〉 꿈 실현가능성 여부 -----	40
〈표 20〉 꿈 변화정도 -----	41
〈표 21〉 꿈 소통정도 -----	42
〈표 22〉 꿈 실현정도 -----	43
〈표 23〉 꿈 영향요인 순위표 -----	44
〈표 24〉 꿈 영향요인 -----	44
〈표 25〉 꿈 영향인물 순위표 -----	45
〈표 26〉 꿈 영향인물 -----	45
〈표 27〉 꿈 소통인물 순위표 -----	46
〈표 28〉 꿈 소통인물 -----	47
〈표 29〉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 -----	48
〈표 30〉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	49
〈표 31〉 사회 불평등 인식 -----	51
〈표 32〉 일의 선택기준 -----	53
〈표 33〉 닮고 싶은 사람(물모델) 유무 -----	53
〈표 34〉 진로성숙도 -----	54
〈표 35〉 진로준비행동 -----	55
〈표 36〉 꿈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	56
〈표 37〉 꿈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	58

〈표 38〉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분석	59
〈표 39〉 꿈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62
〈표 40〉 꿈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분석	65
〈표 41〉 꿈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 분석	68
〈표 42〉 꿈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70
〈표 43〉 꿈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74
〈표 44〉 꿈에 따른 사회 불평등인식 차이 분석	76
〈표 45〉 꿈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차이 분석	78
〈표 46〉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유무	80
〈표 47〉 결핍 수준에 따른 꿈 유무 및 주관적 경제수준	80
〈표 48〉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이 없는 이유	83
〈표 49〉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자기결정 여부	83
〈표 50〉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가능성	83
〈표 51〉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변화정도	84
〈표 5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에 대한 소통 정도	84
〈표 53〉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정도	85
〈표 54〉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요인	85
〈표 55〉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인물	86
〈표 56〉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소통인물	86
〈표 57〉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87
〈표 58〉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88

〈표 59〉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회 불평등 인식 -----	90
〈표 60〉 주관적 경제수준별 일 선택기준 -----	91
〈표 61〉 주관적 경제수준별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 여부 -----	91
〈표 62〉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성숙도 -----	92
〈표 63〉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준비행동 -----	92
〈표 64〉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	94
〈표 65〉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	94
〈표 66〉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분석 -----	95
〈표 67〉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	97
〈표 68〉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분석 -----	98
〈표 69〉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 분석 -----	99
〈표 70〉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	100
〈표 71〉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 분석 -----	102
〈표 72〉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 차이 분석 -----	103
〈표 73〉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차이 분석 ---	104
〈표 74〉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 -----	105
〈표 75〉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분석 -----	107
〈표 76〉 꿈 유무에 따른 진로활동별 도움정도 -----	109
〈표 77〉 진로활동 관련 참여기관 -----	110
〈표 78〉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	111
〈표 79〉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	112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 미래세대 꿈 여부 ----- 37

[그림 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만족도 --- 89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꿈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른들의 질문에 미래세대는 “내 꿈은 뭘까”라는 고민도 하고, “꼭 꿈을 가져야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배는 고파도 견딜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 당장은 힘들어도 꿈을 통해 곧 나아지라는 희망은 힘이 된다. 반대로 꿈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 꿈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톳대이다. 사람이 살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며 풍요롭게 한다. 꿈이 있으면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하는 미래세대의 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럼 어떤 꿈이 좋은 꿈일까? 원대한 꿈과 소박한 꿈, 이상적인 꿈과 현실적인 꿈, 구체적인 꿈과 막연한 꿈, 자주 바뀌는 꿈과 오래 지속되는 꿈 등.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어느 꿈이 더 낫다고 할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단지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이며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꿈이 어떠한든 꿈꿀 수 있다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다. 꿈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꿈은 미래를 희망하며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에 빈곤가정 미래세대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에게 교육과 문화 등 기회의 불평등이 꿈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대를 빛대어 일컫는 헬조선, N포세대¹⁾, 이생망²⁾, 노오력³⁾이라는 신

1) 꿈, 취업,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을 포기한 이 시대의 미래세대를 이르는 신조어

2) ‘이번 생은 망했다’는 신조어

조어에서 오늘날 미래세대의 깊은 절망을 읽어낼 수 있다. 기득권의 횡포 속에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등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부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는 더해져가고, 다른 출발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다. 불평 등한 기회는 결국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이끌었고, 이제 미래세대는 절망에 익숙해져가고, 희망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가 다시 꿈꾸게 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꿈은 희망(hope), 열망(aspiration) 등과 함께 의미론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이나 진로의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아동·청소년들의 직업에 관련된 의식과 개념에 대한 양적연구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김홍중, 2015). 아동·청소년기를 발달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아탐색을 통한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한다(Erikson, 1959). 이렇듯 아동·청소년기의 꿈에 대한 중요성은 자신의 일생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꿈에 대한 성숙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로선택과 진로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며 이는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전인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시나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시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의 미래직업을 알아보고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신의 진로나 꿈을 ‘입시위주의 교육과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타인과 제도에 의해 점령당하는 지금의 교육현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자기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꿈은 우선순위의 선택에서 밀려나게 된다(안선영, 2017). ‘나는 어떤 존재이며, 10년

3)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하라는 말로 사회가 혼란하니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말.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18. 01. 17.)

후 혹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 갖고 있는 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과 실천은 아동·청소년기의 특권이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임영식, 한상철, 2004). 아동·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고민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과 갈등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알고 실현할 수 있다는 성취동기를 갖게 함으로써 고민과 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김재홍, 1994).

우리가 미래세대의 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꾸며, 자신만의 행복을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곧 우리사회의 오늘날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어떻게 자신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가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하다(김경희, 박근혜, 김성원, 2016).

그 배경에는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과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천정웅, 1998)이 아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삶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정하기보다는 통제와 돌봄의 대상으로 주변화, 대상화하여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홍승애, 2010).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발달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학업과 삶에서 누군가의 성공사례를 인생과 교육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만연한 실정이다(이기범, 2009).

아마타야 센은 인간의 복지와 사회 발전 문제는 소득과 자원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자신에게 가치있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김경희 외, 2016). 우리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견지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삶, 곧 꿈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꿈의 정의와 차원을 조명하고,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꾸는 꿈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체적 존재가 되는 의미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경희, 박근혜, 2013). 미하이 칙센트미하이¹⁾는 그의 저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일 자체에 의미를 만들면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을 하면 즐거워져서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보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안선영, 2017). 지금 아동·청소년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는 동안 행복한 것’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꿈을 실현가능성의 측면보다 의미로서 가치가 크다고 정의한다면, 진로나 직업은 현실적인 삶의 방향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선택의 중요성은 아동·청소년의 미래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박현옥, 강혜영, 2011).

또한 아동·청소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은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제공받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경희, 정은희, 2012). 이로 인해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하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진로준비에 있어 낮은 태도를 보이며 학교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려없이 결정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김은희, 2001). 이런 제한적 기회제공을 벗어나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월드비전과 동그라미재단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 특히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원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아동·청소년과 빈곤가정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의 꿈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원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꿈과 미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직업과 진로에 관한 양적연구방법이 대부분으로,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에서 벗어나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예로 Flom과 Hansen(2006)이 치료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정규교육의 실패와 정서적인 문제, 법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편향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혼합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실태조사의 양적 연구는 미래세대가 정의하는 꿈을 조명하고, 미래세대의 꿈과 관련된 주요 변인의 실태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꿈에 미치는 영향과 꿈이 미래세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질적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꿈을 가지게 된 경로와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꿈에 관한 생각들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양적연구나 질적연구 모두 ‘나

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들’, ‘꿈에 대한 계획’ 등이다. 본 혼합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및 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가지는 희망, 실천, 욕구의 의지들에 직접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꿈의 개념

꿈의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여기서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램’ 혹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상이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꿈이란 개념에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시간적 속성’과, 개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이상향이라는 ‘가치적 속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꿈이라는 개념을 자본의 개념으로 해석한 김홍중(2015)은 꿈을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교섭/변형되며,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미래의 소망표상”으로 정의하였다. 즉 꿈은 행위자들의 심적 에너지를 발현하게 하고, 그들을 행동하게 하며, 그들의 역량을 특정한 방향으로 결집시켜 현실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듯 누구나 장래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포부는 개인행동의 동기나 목표를 상징하고 결과를 성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최수미, 2013). 따라서 꿈을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설계로 나타난다(김경희, 박근혜,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진로포부’라는 등가개념을 통해 선행연구를 탐색해보았다.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

(vocational aspiration)를 미래에 성취하고자 희망하는 직업의 지위수준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를 발전시켜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영역(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가능성(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적합성(개인-환경 간 일치)’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면서 자신 앞에 놓인 진로의 대안들을 선택 혹은 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김경주, 2010 재인용). Plucker(1998)는 직업포부(career aspiration)가 ‘야망(ambition)’과 ‘영감(inspiration)’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야망은 미래를 위한 목표의식을 의미하며, 영감은 내재적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활동의 몰두를 의미한다. O’Brien(1996)은 진로포부를 미래에 가지고자 하는 직업의 지위 뿐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진로영역 안에서의 기대하는 발전정도를 포함한다고 하였고, 강경찬(1996) 역시 진로포부는 ‘진로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2009)는 진로포부는 ‘진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나타나는 목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이현주(2014)는 진로포부를 ‘넓게는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이상이며 좁게는 장차 자신이 나가야 할 직업적 방향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희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포부의 양태는 곧 미래라는 시간적 속성 속에서 자신의 가치적 속성에 따라 진로 선택과 직업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진로포부란 미래에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과 그 지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하는 정도에 대한 개인과 환경의 의사결정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미래세대의 꿈

에릭슨은 진로준비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일컬어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아탐색을 통한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하였다(이영광, 김민수, 2014). 따라서 미래세대의 꿈(진로)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까닭은 미래세대가 다양한 꿈을 꾸며 자신만의 행복을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곧 우리사회의 오늘날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김경희 외, 2016).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명문대를 향한 목표와 꿈과 흥미보다 경제적인 안정과 부모님이 선호하는 직업 등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모습이다(이영광 김민수, 2014). 아동·청소년의 꿈 탐색에 관한 선행연구(박남식, 1984)에 따르면, 자신의 꿈에 대해 알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와 성취동기가 제고될 수록 정서적인 안정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곽준규(2002)의 연구에서도 꿈에 대한 성취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은 학생 각자가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자신의 생활을 자발적으로 이끌어서 건강한 시기를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했다.

꿈은 삶의 동력이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보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이다(이승영, 2011;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재인용). 따라서 미래세대의 현재는 다양한 행복과 삶의 양식을 영위하기 위한 탐색기로서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 소질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요청된다(임현정, 김난옥,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꿈과 미래 그리고 꿈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것들과 꿈에 대한 계획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3. 꿈 관련 변인

미래세대의 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사회 변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등으로 구성된다. 김희수, 김옥희(2007)에 따르면, 여성일수록, 성의식이 낮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았으며, 자존감과 자기신뢰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성취목표를 가질수록 진로포부도 높으며(유채은, 조규판, 2012; 이정애, 황재규, 2012, 박미연, 2011),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정주원, 2014). 또한 개인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뜻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직업적인 성취에 중요한 인지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포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사인, 김경미, 2011; 고미나, 박재황, 2012; 권현지, 2015). 또한 진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며,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포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정찬; 1997; 황혜숙, 2012).

다음으로,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지지,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양육태도, 가족 영향력,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포부를 높이며(양난미, 이은경, 2008; 박외자, 2010; 최재혁, 홍혜영, 2013;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부모나 가족의 지지(이경선, 남현우, 2011; 우영진, 홍혜영, 2011), 부모의 양육태도(이주연, 조연희, 2015) 등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석, 박종원(2013)은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독립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사회적인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이 때문에 진로포부에 대한 가족영향

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권소희, 안현주, 정혜원, 2000; 구인회, 2003; 유수복, 2013)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집 단일수록 진로성숙과 직업포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진로성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들(김현옥, 1989; 김경령, 2001; 노혁, 2006; 이승국, 1999; 유수복, 2013 재인용)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의식이 성숙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인으로는 사회적지지, 교사지지, 학교생활 등이 있다. 진로결정의 사회학습이론이나 사회인지적 관점의 진로이론에서도 개인 내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 요인과 성별, 인종 등의 배경요소들을 포함한 맥락적 요인들도 진로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다(Krumboltz, 1996; Lent et al, 1994; 김완석, 박종원, 2013 재인용).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포부를 높게 지각하고, 진로에 대한 자기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 진로이행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용두, 이기학, 2008; 우영지, 이기학, 2010; 김민선, 서영석, 2009). 이는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진로발달로 이어진다는 Cross와 Vick(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이정선, 양지웅, 2013 재인용). 한편, 학교에서 수행되는 진로지도 및 교육은 개인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청소년들의 진로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김옥인, 2007; 김희자, 2008). 또한 Coleman은 부모의 인적 자본이나 물질 자본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의미있는 관계 속에서 관심과 지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빈곤가정 청소년의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보았다(허경철, 2015). 또한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직업포부를 높이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김현주, 김준영, 2010; 심경섭, 설동훈, 2010), 양질의 사회적 자본은 자신의 진로포부를 성취하고, 구체적으

로 그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허경철, 2015).

4.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

미래세대의 꿈(진로)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언급되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미래세대는 학업은 물론 진로발달에서 낮은 성취를 보여준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이경상 외, 2008; 황여정, 2007; 노경란, 2011; 박창남·도종수, 2005). 빈곤가정 아동은 본인의 장래희망에 종사하는 역할모델 및 사회적 자원의 결여, 부모의 낮은 기대와 꿈으로 인해 진로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허남순 외, 2005; 정선옥, 2009).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빈곤가정 아동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낮은 학습의욕과 학업성취를 보이며(구인회 외, 2009; 노경란, 2011),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덕, 인귀여루, 201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구조와 경제적 지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갈등과 자녀양육태도에도 부적 영향을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청소년의 정서나 행동, 교육성취,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하영, 권기남, 2004; 이명진, 봉미미, 권순구, 2010; 오정수, 정익중, 2017).

허남순 외(2005)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에게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아볼 수 없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사회적인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꿈을 꾸고, 실제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과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비록 부모는 가난해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면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희망을 주었으나, 오늘날의 빈곤시대에서는 빈곤가정의 부모는 일찍부터 자녀에 대한 기대와 꿈을 버려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선옥,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지나친 성취압력과 비현실적인 꿈을 가지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을 성취하는 데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최경아, 2007; 유수복, 2013 재인용). 또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준비 미흡으로 인해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직업선택과 자신의 꿈과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김은희, 2001).

또한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장애물로 자기 자신을 지목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김경희 외, 2016). 이들은 부모에게 요구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무관심과 의지의 부재, 자신의 무지 등을 걸림돌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이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과 미래 그리고 꿈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것들과 꿈에 대한 계획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양적조사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전국(서울 및 5대 권역)에 거주하는 만11세~23세 아동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4월 기준 전체 모집단 인원수는 7,491,691명이다. 이들을 권역별,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 1>에서와 같다.

〈표 1〉 2017년 한국 미래세대 교급별-권역별 전체 인구수(모집단)

(단위: 명)

전체 인구수	초등	중등	고등			청년
			일반	특성화	기타	
서울	144,243	239,912	198,374	13,166	88,016	684,834
(경기/강원권) 경기,강원,인천	310,552	507,974	469,090	17,840	103,444	1,183,766
(충청권) 충북,충남,대전	98,504	161,573	127,367	8,299	55,860	361,212
(호남권) 전북,전남,광주	93,258	161,615	140,410	6,997	52,372	353,480
(경북권) 경북,대구	84,209	144,393	114,725	7,882	57,753	344,070
(경남권) 경남,부산,울산	130,630	221,394	188,213	13,026	66,687	536,551
합계	861,396	1,436,861	1,238,179	67,210	424,132	3,463,913

* 출처 : 통계청 자료(2017년 4월 기준)

상기 모집단에 대해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pm 5\%$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

으로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식은 아래와 같다.

$$Sample\ size = \frac{\frac{z^2 \times p(1-p)}{e^2}}{1 + (\frac{z^2 \times p(1-p)}{e^2 N})}$$

위의 산식에 근거하여 권역별, 경제수준 등의 다양한 요소별 비교 집단 크기까지 고려하여 표집 수를 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만11~12세 700명, 13~15세 975명, 16~18세 1,425명(일반고 525명, 특성화(전문계고) 450명, 기타(특수목적고 및 자율고) 450명), 19~23세 5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는 최종 설문 응답률 및 부모동의 거부 등을 고려하여 오버샘플을 감안한 것으로, 전체 표본수는 총 3,600명이었다. 이를 상기 모집단에서와 같이 권역별,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서와 같다.

<표 2>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표본수(계획)

(단위: 개)

전체(학생수)	연령대						합계
	11~12 (초5~6)	13~15 (중1~3)	16~18 (고1~3)			19~23	
			일반고	특성화	기타		
서울	100	150	75	75	75	96	571
(경기/강원권) 경기,강원,인천	200	225	150	75	75	169	894
(충청권) 충북,충남,대전	100	150	75	75	75	54	529
(호남권) 전북,전남,광주	100	150	75	75	75	51	526
(경북권) 경북,대구	100	150	75	75	75	51	526
(경남권) 경남,부산,울산	100	150	75	75	75	79	554
합계	700	975	525	450	450	500	3,600

(1) 아동·청소년

본 조사에서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선정하는 데 있어, 조사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비례층화표본추출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1차 선정한 후, 학교에 따라 학년당 1개 학급을 연구학급으로 무작위 선정하고 해당 학급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권역별, 교급별 조사 인원내에 있어 한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산정하여 표본학교 및 학급수,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더불어 성별 안배를 위해 남녀공학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학교선정은 빈곤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1개교, 낮은 지역에서 1개교를 임의선정한 후 나머지는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전국에서 총 92개 학교를 추출 선정한 후,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협조와 관련하여 사전 연락 후 공문을 발송

<표 3>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표본 학교수(아동·청소년)

(단위: 개)

전체(학교수) 한학교에 대상 학년 조사	연령대					합계
	11~12 (초5~6)	13~15 (중1~3)	16~18 (고1~3)			
			일반고	특성화	기타	
서울	4	4	2	2	2	14
(경기/강원권) 경기,강원,인천	8	6	4	2	2	22
(충청권) 충북,충남,대전	4	4	2	2	2	14
(호남권) 전북,전남,광주	4	4	2	2	2	14
(경북권) 경북,대구	4	4	2	2	2	14
(경남권) 경남,부산,울산	4	4	2	2	2	14
합계	28	26	14	12	12	92

하였다. 접촉된 학교에 대한 학급별 학생수와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초등학교는 1개 학교 당 1학년씩 표집하여 진행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 학교는 1·3학년, ‘나’ 학교는 2학년, ‘다’ 학교는 1·2학년을 표집하여 진행하였다. 학년 당 1개 학급은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해당 학급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조사 거부 시 해당학생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년층

만 19~23세까지의 청년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단계비례층화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되, 아동청소년층은 연구윤리심의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조사한 데 반해 청년층은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을 6개 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모집단 수에 비례하여 500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아래의 <표 4>에서와 같다.

이들 조사 대상은 리서치업체에 기등록된 패널 중에서 19~23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로서, 무작위로 조사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를 안내한 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이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4〉 2017년 한국 미래세대 실태조사 교급별-권역별 실태본수

(단위: 명)

전체(학생수)	연령대						합계	계획 (실사율)
	11~12 (초5~6)	13~15 (중1~3)	16~18 (고1~3)			19~23		
			일반고	특성화	기타			
서울	102	169	77	84	76	96	604	571 (105.8%)
(경기/강원권) 경기,강원,인천	192	264	120	72	63	169	880	894 (98.4%)
(충청권) 충북,충남,대전	152	135	78	78	79	54	576	529 (108.9%)
(호남권) 전북,전남,광주	92	128	159	78	74	51	582	526 (110.6%)
(경북권) 경북,대구	85	148	80	77	78	51	519	526 (98.7%)
(경남권) 경남,부산,울산	85	143	104	99	75	79	585	554 (105.6%)
합계	708	987	618	488	445	500	3,746	3,600 (104.1%)

이러한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해 각각 조사를 실행한 결과, 실제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수는 위의 <표 4>에서와 같았다. 목표로 하였던 전체 3,600명에 비해 실사인원은 3,746명으로 계획 대비 104.1%로 나타났다.

2)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청년층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각각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전술한 과정에 따라 학교와 학년, 학급을 선정한 후, 학교를 통하여 각 가정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포함한 협조 공문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배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조사 전 각 대상 학교에서 동의서를 회수한 후,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획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청년

청년층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의 패널 대상 중 서울/경기·강원/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지역 소재의 19~23세를 대상으로 조사참여 이메일을 무작위 발송하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포함하여 설문조사 참여 전에 미리 온라인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동의한 자발적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3) 조사상의 윤리적 고려

본 양적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특히 조사참여자와 관련한 우려되는 윤리적 이슈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서면 동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연구참여자가 1부, 연구원이 1부를 나눠 가졌다.

(1) 아동·청소년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는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되어 있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 특히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을 조사할 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 진행 후, 동의를 받은 아동청소년들에게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협력/담당 교사는 학교 일정을 고려한 수업시간 또는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획득하였다. 단,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어도 조사를 거부하는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 청년층

만 19세 이상 청년층의 경우, 보다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온라인조사방법을 선택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익명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다. 서면 조사에 비해 온라인 조사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별도로 코딩할 필요가 없고, 조사 응답이나 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주어, 조사의 비용은 낮되 정확성은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문항의 난이도나 이해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본인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내용(설문지 구성 및 내용)⁴⁾

본 연구는 월드비전과 동그라미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국 미래세대의 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아동의 꿈과 관련된 문헌검토 및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의 맥락화와 차별성을 위하여 ‘아동용’과 ‘청년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의 오랜 협의를 통해 고안된 설문지는 아동복지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해당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받았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드비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사용된 언어와 구성, 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연구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4)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한해 서술되었으며, 실제로 설문이 진행된 내용과 정보는 본 연구보고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힌다.

〈표 5〉 조사 세부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항목	출처
1. 꿈에 관한 문항	◦ 꿈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	꿈 유무, 꿈이 없는 이유, 꿈을 가지게 된 시기, 꿈이 무엇인지, 꿈 실현가능성, 꿈 변화정도, 꿈 영향요인, 꿈 영향인물, 꿈 소통정도, 꿈 소통인물, 꿈 실현여부	개발
	◦ 꿈영향요인 중요도/만족도		개발
	◦ 사회불평등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일 선택기준		개발
2. 발달 문항	◦ 진로성숙도	자기이해/일에대한태도/독립성/계획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활동/정보수집활동/직업체험활동/취업준비활동	박완성, 2002; 이옥경, 2012 재인용
	◦ 행복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아동행동평가	내재화 문제행동(우울/불안)/외현화 문제행동(공격성)	Achenbach, 1992; 오경자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재인용
	◦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2000 재인용
	◦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긍정성/대인관계능력	신우열·김민규·김주환, 2009; 허윤영, 2012 재인용
	◦ 사회적 지지	부모/교사/친구	개발
	◦ 부모양육태도	전문형/권위형/허용형/무시형	Baumrid&Maccoby, Martin이 제시한 내용과 fels 연구소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PBRS); 김재은, 1974; 김기정, 1984; 정상모, 2001 재인용
	◦ 결핍수준		UNICEF,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재인용
3. 일반적인 사항	◦ 연령		
	◦ 교급		
	◦ 성별		
	◦ 지역		
	◦ 가족유형		

(1) 진로성숙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하였고, 2008년 아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7문항을 2013년 22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아래의 <표 6>에 별표로 표기된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합산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 알파값은 .874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진로성숙도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자기이해	1,6,10*,15,16*,19*	6
일에 대한 태도	2*,4*,17*,21*,22*	5
독립성	3*,7*,9*,12*	4
계획성	5,8,11,13,14,18,20	7
계		22

(2) 진로준비행동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완성(2002)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Stumpf, Solarelli와 Hartman(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Kopleman, Rovenpor와 Millsap(1992)의 Job Search Behavior Index(JSBI),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총 22문항으로 네 개의 하위 요인은 진로탐색행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ronbach 알파값은 .88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진로준비행동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진로탐색활동	5,10,12,15,16,18,19,20,21,22	10
정보수집활동	1,2,4,9,11	5
직업체험활동	3,6,7,8,13	5
취업준비활동	14,17	2
계		22

(3) 행복지수

2008년과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행복감에 대한 단일 6문항 척도 사용하였다. 3, 4, 6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합산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ronbach 알파값은 .834로 높게 나타났다.

(4) 아동행동평가

Achenbach(1992)의 척도를 오경자 외(2010)가 변안한 척도이다. 이를 다시 2013 아동실태조사에서 2008 아동청소년실태조사 54문항을 31문항으로 축소하여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다음 〈표 8〉과 같이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 척도는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Cronbach 알파값은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8〉 아동행동평가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내재화 문제행동(우울/불안)	3,4,11,12,13,14,15,17,18,19,22,30,31	13
외현화 문제행동(공격성)	1,2,5,6,7,8,9,10,16,20,21,23,24,25,26,27,28,29	18
계		31

(5)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패널에서 Rog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변안하여 사용(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2000 재인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 없이 단일차원으로 2, 5, 6, 8, 9의 5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계산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ronbach 알파값은 .867로 높게 나타났다.

(6) 회복탄력성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2009년에 개발한 YKRQ-27을 허윤영(201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번호 옆에 별표가 표기된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합산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ronbach 알파값은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9> 회복탄력성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자기조절능력	원인분석력	1, 2, 3	3
	감정통제력	4, 5, 6	3
	충동억제력	7, 8, 9*	3
긍정성	감사하기	10*,11,12*	3
	생활만족도	13,14,15	3
	낙관성	16,17,18	3
대인관계능력	관계성	19*,20*,21*	3
	커뮤니케이션	22,23,24	3
	공감능력	25,26,27	3
계			27

(7) 사회적 지지

이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해서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Cronbach 알파값은 .678로 평이하게 나타났으나 신뢰도의 최소한의 수준은 넘었다.

(8) 부모양육태도

정상모(2001)가 사용한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Baumrind 및 Maccoby와 Martin이 제시한 내용과 Fels 연구소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s(PBRS)을 변안한 김재은(1974)의 검사척도 및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지 중 부모유형과 관련된 것을 선정하여 총 20 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유형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유형을 응답자의 부모 유형으로 분류 결정한다.

이 척도는 유형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척도의 합산 내용을 살펴지 않는다. 따라서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허용형 부모유형의 신뢰도는 .29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양육태도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전문형	1,5,9,13,17	5	.723
권위형	2,6,10,14,18	5	.690
허용형	3,7,11,15,19	5	.296
무시형	4,8,12,16,20	5	.862
계		20문항	

부모의 행동 및 반응양식에 따른 부모유형(parent type)을 측정하는 검사는 Baumrind 및 Maccoby와 Martin의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유형을 허용(acceptance)과 통제(control)의 정도에 따라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으로 분류한다. 부모의 행동 및 반응양식을 자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각 유형별 5문항 씩 총20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한다.

(9) 결핍수준

UNICEF(2012)의 OECD 결핍지수 문항을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결핍수준은 합산한 연속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각 문항에 대해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 않음’, ‘없음’을 의미)라고 응답한 비율을 계산하여 활용한다.

(10) 학교생활적응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래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번호 옆에 별표가 표기된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합산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ronbach 알파값은 .902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 학교생활적응 척도 하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학습활동	1,2,3,4,5*	5
학교규칙	6,7,8,9,10	5
교우관계	11,12,13,14*,15	5
교사관계	16,17,18,19,20	5
총 계		20문항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의 특성별(성별, 교급, 주관적 경제수준, 꿈 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e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질적조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꿈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주제로, 부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조사의 하나인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는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것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각각의 장점을 채택한 연구방법이다(Hill, 2016).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의 하나인 CQR 방법을 사용하였다. CQR은 자료 분석 방식이 귀납적이다. 기존의 이론적 틀 내에서 결론을 찾거나 기존의 이론을 한 번 더 확고히 하는 방식이 아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Hill, 2016). CQR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상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개인 내면의 태도, 내적 경험, 신념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이상적이며, 또한 연구자가 관찰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사건을 조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하였다(Hill, 2016).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을 탐색한다(홍지영, 유정이, 2013). 특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여러 연구자의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감수자는 연구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의 편견을 최소화 할 수 있다(Hill et al, 2005: 이주영, 이아라,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CQR을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CQR 방법은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지각하고, 나의 꿈과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이루어 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들, 꿈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들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의 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들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꿈을 위해 가족, 학교, 복지관, 우리사회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방법을 도출해 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진행절차

(1) 조사과정

본 연구 진행에 앞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꿈에 대한 질적연구를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하여 심의 검토 후 승인받았다(2017.6.5.). IRB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연구대상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는 CQR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 10명씩 구성하여, 개인면담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모집되었다.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내용, CQR 진행 과정과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최종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6월~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각 지역에서 직접면담(면대면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시간은 40분~60분정도 소요 되었으며, 면담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 면담 시간을 활용하여 면담을 보충하였다. 이 후 인터뷰 자료는 축어록으로 전사하였으며 보안유지와 익명성을 위해 각각의 사례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는 사례번호로 처리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할당표집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속성을 반영하여 연령, 교급, 빈곤의 특징에 따라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 대구·경북지역의 5~6학년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 각 10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작업은 연구자들의 논의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빈곤의 비율을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 각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총 30명이었고, 초등학교생(33.3%), 중학생(33.3%), 고등학교생(33.3%) 각 10명, 남학생(50%)과 여학생(50%) 각각 15명으로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수준, 부모유형 등의 정보는 <표 12>와 <표 13>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표 1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번	성별	거주 지역	연령 (만)	학교 유형	학년	성적	종교	부모유형	부모 직업 유무	주관적 경제 수준	객관적 경제 상황
1	남	중·소도시/구미	11세	초등학교	5	9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5	일반
2	남	광역시/대구	11세	초등학교	5	7	천주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8	일반
3	여	중·소도시/구미	11세	초등학교	5	1	무	친부·친모가정	부-X 모-O	3	기초수급
4	남	중·소도시/구미	11세	초등학교	5	9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5	여	중·소도시/영천	10세	초등학교	5	7	불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차상위
6	남	중·소도시/포항	12세	초등학교	6	8	불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7	남	중·소도시/포항	11세	초등학교	6	8	불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6	일반

연 번	성 별	거주 지역	연령 (만)	학교 유형	학 년	성 적	종 교	부모유형	부모 직업 유무	주관적 경제 수준	객관적 경제 상황
8	여	중·소도 시/구미	11세	초등 학교	6	10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5	기초수급
9	여	광역시/ 대구	12세	초등 학교	6	6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10	여	읍·면지 역/영덕	11세	초등 학교	6	8	불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7	일반
11	남	광역시/ 부산	13세	중학교	1	7	불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4	일반
12	여	광역시/ 부산	13세	중학교	1	5	무	편모가정/이혼	모-O	4	기초수급
13	여	광역시/ 부산	12세	중학교	1	7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4	일반
14	남	광역시/ 부산	14세	중학교	2	7	무	친부·친모가정 (부·질병 장기입원 중)	부-X 모-X	3	기초수급
15	남	광역시/ 부산	14세	중학교	2	9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7	일반
16	여	광역시/ 부산	14세	중학교	2	6	천주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6	일반
17	여	광역시/ 부산	14세	중학교	2	6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18	남	광역시/ 부산	15세	중학교	3	7	기독교	조손가정(부- 거제도 근무)	조부- X 조모- O	4	기초수급
19	남	광역시/ 부산	15세	중학교	3	5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5	일반
20	여	광역시/ 부산	15세	중학교	3	5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5	일반
21	여	중·소도 시/포항	16세	특목고	1	8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X	8	일반
22	남	중·소도 시/구미	17세	특성화 고	1	6	기독교	편부가정/이혼	부-O	3	차상위
23	남	중·소도 시/구미	17세	특성화 고	1	5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24	여	중·소도 시/포항	16세	특목고	2	3	무	편모가정/이혼	모-O	4	일반
25	남	광역시/ 대구	17세	인문계 고	2	5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일반
26	여	광역시/ 대구	17세	인문계 고	2	4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6	차상위

연 번	성 별	거 주 지 역	연 령 (만)	학 교 유 형	학 년	성 적	종 교	부 모 유 형	부 모 직 업 유 무	주 관 적 경 제 수 준	객 관 적 경 제 상 황
27	남	광역시/ 대구	17세	인문계 고	2	7	무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5	일반
28	여	읍·면지 역	18세	인문계 고	3	4	불교	편부가정	부-O	5	일반
29	여	읍·면지 역	18세	인문계 고	3	5	천주교	편모가정/사별	모-O	4	일반
30	남	중·소도 시/구미	18세	특성화 고	3	5	기독교	친부·친모가정	부-O 모-O	3	기초수급

1) 성적 : 매우 못함(1) → 매우 잘함(10)

2) 주관적 경제수준 : 매우 못 산다(1) → 매우 잘 산다(10)

〈표 13〉 연구 참여자의 특성 분석

구분	연구 참여자	인원(명)	비율(%)
성별	남	15	50%
	여	15	50%
	계	10	100%
거주지역	대도시(광역시)	15	50%
	중·소도시	12	40%
	읍·면지역	3	10%
	계	10	100%
연령	초등학생	10	33.33%
	중학생	10	33.33%
	고등학생	10	33.33%
	계	10	100%
부모유형	친부·친모가정	24	80%
	편부·모가정(이혼/사별)	5	16.7%
	조손가정	1	3.3%
	계	10	100%
부모직업유무	부-O/모-O	16	53.3%
	부-O/모-X	8	26.7%
	부-X/모-X	1	3.3%
	부-X/모-O	4	13.3%
	조부-X/조모-O	1	3.3%
	계	10	100%
객관적 경제상황	일반	21	70%
	기초수급	6	20%
	차상위	3	10%
	계	10	100%

3)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진행과정

(1) 사전 안내

연구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꿈과 관련하여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첫 번째, 나의 꿈 나의 미래, 두 번째,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들(내 꿈의 출발, 롤모델, 부모의 기대), 세 번째, 꿈에 대한 계획 등이다.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여 응답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여 인터뷰 당일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인터뷰 질문내용은 <표 14>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표 14> 아동청소년 꿈에 대한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영역		질문내용
나의 꿈, 나의 미래	자기 자신의 꿈	(1) 나의 미래에 대해 꾸고 있는 꿈이 있나요?
		(2)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3)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4)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나요?
		(5) 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나요?
		(6) 나의 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7)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8)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나의 미래	(1)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2) 내가 살아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나요?
		(4)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5) 나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6)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들	내 꿈의 출발	(1)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했나요?
		(2)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3)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4)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5) 장애를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해나갔나요?
		(6) 꿈꾸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7)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영역		질문내용
	롤모델	(1)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2)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3) 닮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의 기대	(1) 부모가 나에 대해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2)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3)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시나요?
		(4)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꿈에 대한 계획	(1)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요?
		(3)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될까요?
		(4) 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우리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인터뷰 진행

인터뷰 진행시 녹음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하며, 연구 동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필요한 경우 연구자의 추가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4) 자료 분석

(1) 영역 및 핵심 개념 코딩

연구자들은 10개의 원 자료를 읽고, 질문에 따라 연구자가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연구팀이 함께 모여 사례별 영역에 대해 팀원 간 의견의 일치와 불일치를 나누었으며,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된 영역에 따라 모든 사례를 정리한 후, 각 영역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간결하고 핵심적인 용어로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영역과 핵심 개념 감수

영역과 핵심개념에 대한 연구팀이 합의한 자료를 감수자에게 보내 영역별

원 자료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모든 사례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핵심 개념이 원 자료를 간결하게 반영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지적하였다. 이 후 감수자에 의해 발견된 차이점은 연구팀이 수용하여 다시 논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유지하였다.

(3) 교차분석과 감수

교차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영역별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주를 결정하였다. 모든 사례~26개 사례에서 나타난 것은 ‘일반적(general)’, 10~24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1~9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Hill 등 (2005)이 제시한 표집의 대표성 결정과정에서의 분류방식이다.

IV. 양적조사 결과

어린시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일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질문에는 아이들이 가진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수한 관심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서려있다. 때문에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꿈’은 ‘장래희망’을 일컫는 것이고, ‘장래희망’은 곧 ‘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자란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낮설게 느껴진다.

우리는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베스트셀러에는 빠지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가 등장한다. 그 꿈은 늘 크고, 화려하고, 높고, 멀다. 우리는 꿈이 없는 미래세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은 왜 꿈이 없고,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때문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국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다섯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질문 1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꿈꾸고 있을까?”

질문 2 “꿈을 꾸면 무엇이 좋을까?”

질문 3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마저 다를까?”

질문 4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질문 5 “빈곤가정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위의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미래세대가 가지고 있는 꿈과 꿈에 대한 태도 등 일반적인 실태와 꿈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꿈마저 가난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실태: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꿈꾸고 있을까?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꿈을 통해 꿈꾸는 미래가 실현되리라는 지속적인 희망을 품으며, ‘지금, 여기’의 시간을 보다 풍성하고 탄력적으로 영위하게 된다(김홍중, 2015). 오늘날 우리 미래세대가 가지고 있는 꿈은 오늘날 우리 미래세대의 모습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내일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금’ 우리 미래세대가 꿈을 꾸고 있는지, 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등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꿈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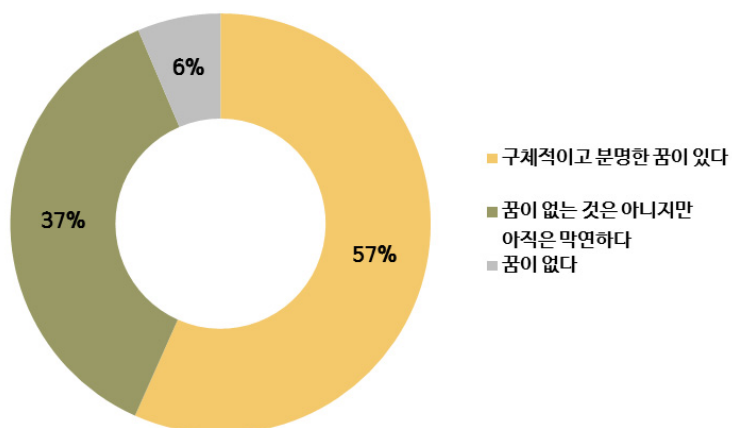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6.7%(1,749명), 여성이 52.8%(1,955명)로 조사되었고,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8.9%(708명), 중학교 26.3%(987명), 고등학교 41.4%(1,551명), 청년 13.3%(500명)를 조사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80.9%(3,031명), 한부모 13.3%(499명), 기타 3.6%(136명)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는 빈곤가정 10.1%(378명), 비빈곤가정 89.9%(3,368명)로 보고되었다.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16.1%(604명), 경기/강원 23.5%(880명), 충청 15.4%(576명), 호남 15.5%(582명), 경북 13.9%(519명), 경남 15.6%(585명)이었다.

〈표 15〉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49	46.7
	여성		1,955	52.8
교급별	초등학교		708	18.9
	중학교		987	26.3
	고등학교	일반고	618	16.5
		특성화고	488	13.0
		기타고	445	11.9
		소 계	1,551	41.4
	청년		500	13.3
가족유형	양부모		3,031	80.9
	한부모		499	13.3
	기타		136	3.6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378	10.1
	비빈곤		3,368	89.9
지역	서울		604	16.1
	경기/강원		880	23.5
	충청		576	15.4
	호남		582	15.5
	경북		519	13.9
	경남		585	15.6
총 계			3,746	100

2) 한국 미래세대의 꿈 유무



[그림 1] 한국 미래세대 꿈 여부

우리나라 미래세대는 꿈이 있냐는 질문에 57%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37%가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6%가 ‘꿈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52.4%)보다는 남성(61.3%)이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교급에서는 초등학교(75.8%), 고등학교(58.3%), 중학교(52.0%), 청년(34.6%) 순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자세한 사항은 <표 16> 참조).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꿈 유무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꿈이 없다	χ^2	
성별	남성	958(61.3)	505(32.3)	99(6.3)	29.163***	
	여성	941(52.4)	738(41.1)	117(6.5)		
교급별	초등학교		500(75.8)	151(22.9)	9(1.4)	244.743*** (216.273***)
	중학교		435(52.0)	330(39.5)	71(8.5)	
	고등학교	일반고	343(62.8)	179(32.8)	24(4.4)	
		특성화고	205(48.3)	180(42.5)	39(9.2)	
		기타고	256(62.7)	133(32.6)	19(4.7)	
		소 계	804(58.3)	492(35.7)	822(6.0)	
	청년		173(34.6)	273(54.6)	54(10.8)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17>과 같이 남성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61.%)’,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25.7%)’,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스스로 충분히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42.3%)’,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34.3%)’,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4%)’ 등의 순으로 동일한 순위를 보였으나 비중면에서 남성의 경우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본적이 없다는 이유가 앞섰고, 여성은 그냥 못 이룰 것 같다는 이유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1순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2순위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 3순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로 동일한 순위가 보고되었다. 청년 역시 2순위까지는 초중고 교급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3순위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꿈이 없는 이유 1순위를 기록한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순위인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자조적인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꿈 17〉 꿈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
성별	남성	335(50.7)	68(10.3)	78(11.8)	36(5.4)	170(25.7)
	여성	359(42.3)	96(11.3)	97(11.4)	47(5.5)	291(34.3)
교급별	초등학교	91(61.9)	15(10.2)	10(6.8)	8(5.4)	24(16.3)
	중학교	244(54.5)	43(9.6)	34(7.6)	19(4.2)	130(29.0)
	고등학교	289(46.8)	79(12.8)	67(10.8)	26(4.2)	201(32.5)
	청년	71(23.5)	27(8.9)	64(21.2)	31(10.3)	109(36.1)

3) 꿈 자기결정 여부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급별에서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96.9%, 중학교 90.6%, 고등학교 90.7%, 청년 84.6%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8〉 참조).

〈표 18〉 꿈 자기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X ²
성별	남성	1,586(90.7)	150(8.6)	1.460
	여성	1,786(91.4)	160(8.2)	
교급별	초등학교	686(96.9)	22(3.1)	76.338*** (68.276***)
	중학교	894(90.6)	84(8.5)	
	고등학교	일반고	64(10.4)	
		특성화고	36(7.4)	
		기타고	32(7.2)	
		소 계	132(8.5)	
	청년	423(84.6)	77(15.4)	

4) 꿈 실현가능성

꿈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표 19〉와 같이 남성은 90%가 긍정 응답을 하였고, 여성은 86.7%가 긍정응답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교급별 긍정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8%, 중학교 87.3%, 고등학교 90%, 청년 76.4%로 나타났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를 세부 목적에 따

〈표 19〉 꿈 실현가능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X ²
성별	남성	542(31.6)	1,002(58.4)	147(8.6)	26(1.5)	30.719***
	여성	465(24.0)	1,216(62.7)	227(11.7)	31(1.6)	
교급별	초등학교	206(29.3)	460(65.5)	33(4.7)	3(0.4)	153.989*** (126.757***)
	중학교	244(25.2)	598(61.8)	110(11.4)	15(1.6)	
	고등학교	일반고	347(56.9)	67(11.0)	7(1.1)	
		특성화고	307(63.8)	45(9.4)	7(12.1)	
		기타고	240(54.8)	23(5.3)	5(1.1)	
		소 계	894(58.5)	135(8.8)	19(1.2)	
	청년	92(18.4)	290(58.0)	97(19.4)	21(4.2)	

라 살펴본 결과 일반고는 87.9%, 특성화고는 89.2%, 기타고는 93.6%의 수치를 보여 뚜렷한 목적에 의해 진학한 상급학교에서 보다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기타고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꿈 변화정도

꿈이 자주 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표 20>과 같이 남성(59.3%)보다는 여성(61.7%)이 더 자주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55.2%), 중학교(60%), 고등학교(60.3%), 청년(69.2%)의 순으로 자주 변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과 교급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0〉 꿈 변화정도

(단위: 명(%))

구분		자주 변했다	가끔 변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χ^2	
성별	남성	245(14.2)	776(45.1)	523(30.4)	177(10.3)	16.736**	
	여성	322(16.6)	876(45.1)	611(31.5)	132(6.8)		
교급별	초등학교	92(13.1)	295(42.1)	237(33.9)	76(10.9)	47.549*** (37.598***)	
	중학교	159(16.4)	423(43.6)	315(32.4)	74(7.6)		
	고등학교	일반고	81(13.2)	274(44.7)	194(31.6)		64(10.4)
		특성화고	79(16.4)	216(44.9)	151(31.4)		35(7.3)
		기타고	80(18.2)	194(44.2)	120(27.3)		45(10.3)
		소 계	240(15.7)	684(44.6)	465(30.3)		144(9.4)
	청년	84(16.8)	262(52.4)	136(27.2)	18(3.6)		

6) 꿈 소통정도

꿈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다음 <표 21>과 같이 남성은 58.6%가 긍정응답을 하였고, 여성은 65.2%가 긍정응답을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이들과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

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60.4%, 중학교 57%, 고등학교 68.7%(일반고 72.2%, 특성화고 64.4%, 기타고 68.5%), 청년 54.4%로 나타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꿈에 대한 소통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소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꿈 소통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X ²	
성별	남성	216(12.6)	785(46.0)	615(36.0)	92(5.4)	17.054**	
	여성	278(14.3)	989(50.9)	588(30.3)	87(4.5)		
교급별	초등학교	81(11.6)	341(48.8)	243(34.8)	34(4.9)	90.110*** (82.057***)	
	중학교	120(12.4)	431(44.6)	347(35.9)	69(7.1)		
	고등학교	일반고	111(18.1)	331(54.1)	153(25.0)		17(2.8)
		특성화고	72(15.2)	233(49.2)	151(31.9)		18(3.8)
		기타고	80(18.2)	221(50.3)	123(28.0)		15(3.4)
		소 계	263(17.2)	785(51.5)	427(28.0)		50(3.3)
	청년	34(6.8)	238(47.6)	201(40.2)	27(5.4)		

7) 꿈 실현정도

꿈에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결과 〈표 22〉와 같이 성별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81.1%, 중학교 64.1%, 고등학교 72.8%(일반고 72.9%, 특성화고 68.4%, 기타고 77.4%), 청년 58.4%로 교급이 낮을수록 꿈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역시 고등학교의 경우가 교급의 순위와 상관없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 부분 역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의 큰 기로를 맞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 꿈 실현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X ²
성별	남성	266(15.4)	960(55.6)	444(25.7)	56(3.2)	4.170
	여성	259(13.3)	1,083(55.8)	525(27.0)	74(3.8)	
교급별	초등학교	124(17.8)	441(63.3)	123(17.6)	9(1.3)	126.919*** (115.624***)
	중학교	124(12.7)	502(51.4)	310(31.7)	41(4.2)	
	고등학교	일반고	94(15.4)	352(57.5)	149(24.3)	
		특성화고	74(15.4)	255(53.0)	137(28.5)	
		기타고	83(18.8)	259(58.6)	86(19.5)	
		소 계	251(16.4)	866(56.4)	372(24.2)	
	청년	37(7.4)	255(51.0)	174(34.8)	34(6.8)	

8) 꿈 영향요인

꿈을 꾸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다음 〈표 23〉과 같이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급별 결과에서는 ‘성적’의 순위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반해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응답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롤모델’이 3순위를 기록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대중매체’와 ‘특별한 계기가 없다’, ‘성적’이 한국 미래세대의 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다음 〈표 24〉 참조). 이 지표들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대중매체가 주된 영향요인이라는 것은 대중매체의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에도 주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분명 대중매체는 간접경험의 효과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일방적인 메시지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경험과 인지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역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꿈에 영향을 준 요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

리의 미래세대로 하여금 꿈꾸고 있게 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성적’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성적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 23〉 꿈 영향요인 순위표

순위	성별		교급별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1	없다	대중매체	없다	대중매체	대중매체	성적
2	대중매체	없다	대중매체	없다	성적	대중매체
3	성적	성적	롤모델	성적	없다	없다
4	진로검사/체험	진로검사/체험	성적	진로검사/체험	진로검사/체험	진로검사/체험
5	롤모델	롤모델	책	롤모델	롤모델	기타
6	책	책	진로검사/체험	기타	책	롤모델
7	기타	기타	기타	책	기타	책
8	봉사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9	종교	아르바이트	종교	종교	아르바이트, 종교	봉사활동
10	아르바이트	종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	종교

〈표 24〉 꿈 영향요인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성적	진로 검사/ 체험	책	대중 매체	아르 바이트	종교	롤 모델	봉사 활동	기타	없다	
성 별	남성	321 (18.6)	234 (13.6)	145 (8.4)	400 (23.2)	19 (1.1)	22 (1.3)	218 (12.6)	30 (1.7)	111 (6.4)	419 (24.3)	
	여성	359 (18.5)	301 (15.5)	158 (8.2)	509 (26.3)	21 (1.1)	19 (1.0)	262 (13.5)	36 (1.9)	155 (8.0)	360 (18.6)	
교 급 별	초등학교	84 (11.9)	67 (9.5)	78 (11.1)	177 (25.2)	1 (0.1)	3 (0.4)	100 (14.2)	8 (1.1)	49 (7.0)	182 (25.9)	
	중학교	182 (18.7)	127 (13.1)	65 (6.7)	267 (27.4)	2 (0.2)	9 (0.9)	120 (12.3)	15 (1.5)	66 (6.8)	220 (22.6)	
	고 등 학 교	일반	135 (22.1)	127 (20.8)	48 (7.9)	168 (27.5)	5 (0.8)	10 (1.6)	88 (14.4)	12 (2.0)	45 (7.4)	96 (15.7)
		특성	73 (15.1)	71 (14.7)	20 (4.1)	132 (27.4)	13 (2.7)	8 (1.7)	69 (14.3)	9 (1.9)	33 (6.8)	132 (27.4)
		기타	99 (22.8)	70 (16.1)	66 (15.2)	94 (21.6)	2 (0.5)	2 (0.5)	73 (16.8)	12 (2.8)	32 (7.4)	78 (17.9)
		소계	307 (20.1)	268 (17.5)	134 (8.8)	394 (25.8)	20 (1.3)	20 (1.3)	230 (15.1)	33 (2.2)	110 (7.2)	306 (20.0)
	청년	112 (22.4)	78 (15.6)	29 (5.8)	82 (16.4)	17 (3.4)	9 (1.8)	37 (7.4)	11 (2.2)	45 (9.0)	80 (16.0)	

9) 꿈 영향인물

꿈을 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중응답으로 묻은 결과 순위는 다음 <표 25>와 같았다(세부 내용은 <표 26> 참조). 모든 계층에서 ‘부모’, ‘교사’, ‘친구/선배’가 주된 영향인물로 뽑혔고, 그에 못지 않게 ‘없다’는 응답이 많아 우리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부족하다는 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5> 꿈 영향인물 순위표

순위	성별		교급별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1	없다	부모	부모	없다	부모	부모
2	부모	없다	없다	부모	없다	없다
3	친구/선배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친구/선배
4	교사	친구/선배	친구/선배	친구/선배	친구/선배	교사
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6	친척	친척	친척	친척	친척	사회복지사
7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친척, 종교인
8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

<표 26> 꿈 영향인물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교사	친구/ 선배	친척	사회 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기타	없다	
성별	남성	605 (35.0)	184 (10.7)	189 (10.9)	61 (3.5)	23 (1.3)	20 (1.2)	109 (6.3)	618 (35.8)	
	여성	690 (35.6)	205 (10.6)	186 (9.6)	57 (2.9)	30 (1.5)	9 (0.5)	154 (8.0)	689 (35.6)	
교급별	초등학교		264 (37.7)	66 (9.4)	56 (8.0)	23 (3.3)	3 (0.4)	2 (0.3)	49 (7.0)	256 (36.6)
	중학교		328 (33.7)	94 (9.7)	87 (8.9)	32 (3.3)	12 (1.2)	5 (0.5)	86 (8.8)	367 (37.7)
	고등 학교	일반고	229 (37.5)	73 (11.9)	74 (12.1)	21 (3.4)	9 (1.5)	6 (1.0)	38 (6.2)	192 (31.4)
		특성화고	136 (28.3)	59 (12.3)	54 (11.2)	12 (2.5)	14 (2.9)	5 (1.0)	41 (8.5)	195 (40.5)

구분			부모	교사	친구/ 선배	친척	사회 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기타	없다
	기타고	기타고	174 (39.6)	59 (13.4)	46 (10.5)	22 (5.0)	5 (1.1)	3 (0.7)	24 (5.5)	149 (33.9)
		소 계	539 (35.2)	191 (12.5)	174 (11.4)	55 (3.6)	28 (1.8)	14 (0.9)	103 (6.7)	536 (35.0)
	청년		179 (35.8)	42 (8.4)	62 (12.4)	8 (1.6)	12 (2.4)	8 (1.6)	27 (5.4)	162 (32.4)

10) 꿈 소통인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순위는 다음 <표 27>과 같았다(세부 내용은 <표 28> 참조). 특기할만한 사실은 꿈 영향 인물과 마찬가지로 ‘없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3순위를 기록한 것과 꿈 영향인물의 상위 순위에 있었던 ‘교사’와 ‘친구/선배’의 순위가 소통인물에서는 바뀐 것이다. 먼저, ‘없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그나마 꿈에 영향을 주는 인물인 ‘교사’와의 소

<표 27> 꿈 소통인물 순위표

순위	성별		교급별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1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부모	친구/선배
2	친구/선배	친구/선배	친구/선배	친구/선배	친구/선배	부모
3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4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5	친척	기타	친척	친척, 기타	친척	사회복지사/ 상담사, 기타
6	사회복지사/ 상담사	친척	기타	-	기타	-
7	기타	사회복지사/상 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사회복지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8	종교인	종교인	-	종교인	종교인	친척

통의 결핍이 ‘친구/선배’와의 소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꿈에 대한 소통이 또래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래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꿈 소통인물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교사	친구/ 선배	친척	사회 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기타	없다	
성별	남성	893 (51.3)	113 (6.5)	564 (32.4)	30 (1.7)	17 (1.0)	8 (0.5)	11 (0.6)	266 (15.3)	
	여성	931 (47.8)	89 (4.6)	888 (45.6)	23 (1.2)	12 (0.6)	5 (0.3)	35 (1.8)	204 (10.5)	
교급별	초등학교		452 (64.1)	16 (2.3)	186 (26.4)	14 (2.0)	0 (0)	0 (0)	9 (1.3)	76 (10.8)
	중학교		536 (54.7)	38 (3.9)	294 (30.0)	11 (1.1)	7 (0.7)	3 (0.3)	11 (1.1)	154 (15.7)
	고 등 학 교	일반고	293 (47.5)	57 (9.2)	334 (54.1)	8 (1.3)	4 (0.6)	3 (0.5)	7 (1.1)	34 (5.5)
		특성화고	204 (42.1)	50 (10.3)	215 (44.3)	12 (2.5)	12 (2.5)	2 (0.4)	8 (1.6)	65 (13.4)
		기타고	220 (49.8)	32 (7.2)	202 (45.7)	6 (1.4)	0 (0)	2 (0.5)	5 (1.1)	54 (12.2)
		소 계	717 (46.4)	139 (9.0)	751 (48.6)	26 (1.7)	16 (1.0)	7 (0.5)	20 (1.3)	153 (9.9)
	청년		140 (28.0)	10 (2.0)	240 (48.0)	2 (0.4)	6 (1.2)	3 (0.6)	6 (1.2)	93 (18.6)

11)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29〉와 같았다. 성별 결과에서와 남성은 의지, 자존감, 노력 등의 순위를 보였고, 여성은 의지, 노력, 자존감 등의 순위를 보였다. 교급별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의지, 노력, 자존감 등의 순위를 보였다(중학교는 의지와 노력이 동 순위임). 집단별 차이도를 살펴보면, 교급별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이었는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별이 꿈을 이루는 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외모’로 이 역시 교급이 올라갈수록 ‘외모’가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하였다. 세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자존감’으로 교급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별’이나 ‘외모’ 등 외적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반면 교급이 낮아질수록 ‘자존감’, ‘의지’, ‘노력’ 등의 내적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부모의 지원’, ‘경제력’, ‘재능’으로 남정보다는 여성이 위의 지표들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교급별				F (scheffe)	성별		t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청년		남성	여성	
자존감	3.55 (0.74)	3.44 (0.81)	3.42 (0.81)	3.18 (0.85)	34.909*** (초)중)고)청)	3.40 (0.85)	3.42 (0.78)	-1.336
의지	3.62 (0.68)	3.58 (0.72)	3.60 (0.70)	3.36 (0.80)	26.195*** (초)청, 중)청, 고)청)	3.55 (0.76)	3.58 (0.69)	-2.003*
재능	3.30 (0.85)	3.28 (0.81)	3.26 (0.85)	3.14 (0.81)	6.452*** (초)청, 중)청, 고)청)	3.22 (0.90)	3.30 (0.78)	-3.529***
경제력	2.94 (1.005)	2.93 (0.92)	2.94 (0.98)	2.07 (0.93)	4.245* (초)청, 중)청, 고)청)	2.90 (1.02)	3.01 (0.91)	-4.194***
습관	3.27 (0.91)	3.15 (0.88)	3.15 (0.87)	3.06 (0.83)	9.436*** (초)중)고)청)	3.18 (0.91)	3.15 (0.86)	0.824
노력	3.57 (0.75)	3.58 (0.74)	3.58 (0.73)	3.32 (0.81)	26.788*** (초)청, 중)청, 고)청)	3.53 (0.78)	3.57 (0.73)	-1.977*
학벌	2.90 (1.06)	3.00 (1.05)	2.88 (1.11)	2.80 (1.02)	6.530*** (중)고, 중)청)	2.90 (1.10)	2.90 (1.05)	-0.357
성별	1.70 (1.27)	1.66 (1.24)	1.82 (1.24)	2.30 (1.17)	49.817*** (초)청, 중)고)청)	1.80 (1.27)	1.83 (1.25)	-0.822

외모	1.89 (1.28)	2.10 (1.30)	2.19 (1.26)	2.51 (1.10)	39.936*** (초<중<고<청)	2.18 (1.30)	2.14 (1.25)	1.284
대인관계능력	3.09 (0.92)	3.16 (0.93)	3.25 (0.87)	3.02 (0.82)	17.041*** (초<중<고, 고<중<청)	3.14 (0.93)	3.18 (0.86)	-1.464
부모의 지원	3.26 (0.92)	3.21 (0.89)	3.13 (0.93)	3.06 (0.87)	10.086*** (초<고<청, 중<청)	3.10 (0.96)	3.22 (0.86)	-4.725***
주변사람	2.93 (1.02)	3.05 (0.94)	3.05 (0.95)	2.97 (0.91)	5.042** (초<중<고)	3.02 (1.00)	3.02 (0.92)	0.019
주변 환경	3.06 (1.02)	3.14 (0.93)	3.13 (0.88)	3.09 (.82)	2.140	3.09 (0.95)	3.13 (0.87)	-1.673
출신지역	1.90 (1.20)	1.89 (1.21)	1.87 (1.20)	2.26 (1.12)	23.549*** (초<중<고<청)	1.96 (1.25)	1.90 (1.16)	1.795
사회적 분위기	2.92 (1.05)	2.93 (1.03)	2.94 (0.99)	2.85 (0.91)	1.804	2.90 (1.04)	2.94 (0.96)	-1.525

12)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위에서 살펴본 꿈을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한 항목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게 한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먼저 교급별 결과에서는 초등학교는 ‘자존감’, ‘의지’, ‘성별’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고, 중학교는 ‘성별’, ‘부모의 지원’, ‘자존감’ 등, 고등학교는 ‘성별’,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의지’ 등의 순, 청년은 ‘부모의 지원’, ‘성별’, ‘의지’, ‘출신지역’ 등의 순서를 보였다. 세부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교급이 올라갈수록 모든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자존감’, ‘사회적분위기’, ‘경제력’ 등의 순이었다.

성별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자존감’, ‘사회적 분위기’, ‘의지’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여성은 ‘주변사람’, ‘자존감’, ‘의지’ 등의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성별 간 가장 큰 만족도 차이를 보인 것은 ‘자존감’, ‘경제력’, ‘재능’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교급별				F (scheffe)	성별		t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남성	여성	
자존감	3.35 (0.80)	3.14 (0.91)	2.96 (0.95)	2.66 (0.95)	100.370*** (초)중)고)청)	3.12 (0.94)	2.97 (0.95)	6.059***
의지	3.31 (0.81)	3.06 (0.93)	2.96 (0.94)	2.72 (0.93)	68.896*** (초)중)고)청)	3.07 (0.94)	2.97 (0.94)	4.171***
재능	3.03 (0.86)	2.81 (0.89)	2.72 (0.90)	2.58 (0.92)	45.624*** (초)중)고)청)	2.85 (0.92)	2.72 (0.88)	5.266***
경제력	2.93 (0.83)	2.80 (0.85)	2.68 (0.88)	2.34 (0.96)	72.017*** (초)중)고)청)	2.78 (0.91)	2.65 (0.88)	5.847***
습관	2.86 (0.91)	2.70 (0.89)	2.59 (0.86)	2.46 (0.90)	35.261*** (초)중)고)청)	2.70 (0.93)	2.61 (0.86)	3.853**
노력	3.02 (0.91)	2.71 (0.96)	2.59 (0.97)	2.54 (0.95)	56.680*** (초)중)고)청)	2.75 (0.99)	2.65 (0.96)	3.834**
학벌	2.95 (0.86)	2.70 (0.91)	2.58 (0.93)	2.50 (0.94)	51.035*** (초)중)고)청)	2.72 (0.94)	2.65 (0.92)	3.756***
성별	3.29 (1.00)	3.20 (1.00)	3.05 (0.99)	2.72 (0.89)	59.510*** (초)고)청, 중)고)청)	3.10 (1.02)	3.08 (0.99)	0.744
외모	2.95 (0.99)	2.82 (0.98)	2.75 (0.93)	2.62 (0.89)	20.248*** (초)중)고)청)	2.82 (0.98)	2.74 (0.94)	3.607***
대인관계 능력	3.18 (0.85)	3.04 (0.91)	2.98 (0.92)	2.59 (0.94)	64.197*** (초)중)고)청)	3.03 (0.94)	2.94 (0.92)	3.661***
부모의 지원	3.30 (0.91)	3.18 (0.94)	3.08 (0.95)	2.75 (0.99)	55.475*** (초)중)고)청)	3.12 (0.94)	3.08 (0.98)	1.614
주변 사람	3.18 (0.89)	3.09 (0.85)	3.01 (0.86)	2.69 (0.89)	53.065*** (초)고)청, 중)청)	3.04 (0.90)	2.99 (0.87)	2.024*
주변 환경	3.22 (0.84)	3.05 (0.90)	2.94 (0.89)	2.66 (0.91)	65.605*** (초)중)고)청)	3.02 (0.92)	2.94 (0.90)	2.951**
출신지역	3.18 (0.93)	3.01 (0.96)	2.90 (0.92)	2.70 (0.85)	46.9000*** (초)중)고)청)	2.97 (0.95)	2.94 (0.92)	1.478
사회적 분위기	3.14 (0.90)	2.89 (0.93)	2.80 (0.89)	2.53 (0.90)	72.204*** (초)중)고)청)	2.90 (0.94)	2.81 (0.91)	3.574***

13) 사회 불평등 인식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한 사회 불평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성별 불평등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은 ‘소득과 재산’, ‘승진승급기회’, ‘취업기회’ 등의 순으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소득과 재산’, ‘승진승급기회’, ‘북한이탈주민’ 등의 순으로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불평등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 영역에서는 ‘여성의 대우’, ‘북한이탈주민’, ‘승진승급기회’ 순으로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 사회 불평등 인식

(단위: M/SD)

구분	교급별				F (scheffe)	성별		t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청년		남성	여성	
교육 기회	1.90 (0.60)	2.18 (0.65)	2.33 (0.68)	2.45 (0.67)	91.130*** (초<중<고<청)	2.19 (0.72)	2.26 (0.64)	-2.923**
취업 기회	2.31 (0.72)	2.65 (0.72)	2.73 (0.71)	2.78 (0.70)	64.061*** (초<중<고<청)	2.57 (0.78)	2.70 (0.68)	-5.128***
승진승급기회	2.30 (0.68)	2.65 (0.70)	2.83 (0.69)	2.87 (0.73)	106.440*** (초<중<고<청)	2.61 (0.75)	2.75 (0.69)	-5.855***
법의 집행	2.09 (0.68)	2.52 (0.77)	2.77 (0.79)	2.88 (0.79)	150.511*** (초<중<고<청)	2.52 (0.83)	2.65 (0.79)	-4.944***
여성의 대우	2.38 (0.77)	2.56 (0.78)	2.68 (0.78)	2.86 (0.80)	40.621*** (초<중<고<청)	2.50 (0.83)	2.71 (0.76)	-8.279***
소득과 재산	2.44 (0.79)	2.70 (0.76)	2.86 (0.75)	2.97 (0.79)	63.319*** (초<중<고<청)	2.72 (0.83)	2.78 (0.73)	-2.567*
지역 간	2.07 (0.65)	2.32 (0.66)	2.50 (0.70)	2.76 (0.74)	112.666*** (초<중<고<청)	2.38 (0.85)	2.43 (0.69)	-1.775
다문화	2.30 (0.80)	2.58 (0.76)	2.69 (0.77)	2.85 (0.80)	58.182*** (초<중<고<청)	2.53 (0.82)	2.68 (0.76)	-5.630***
북한이탈주민	2.45 (0.81)	2.64 (0.75)	2.70 (0.77)	2.83 (0.78)	26.326*** (초<중<고<청)	2.56 (0.80)	2.74 (0.75)	-6.715***
전 체	2.25 (0.49)	2.53 (0.50)	2.68 (0.51)	2.80 (0.53)	152.577*** (초<중<고<청)	2.51 (0.56)	2.63 (0.50)	-6.938***

교급별 분석 결과에서는 초등학생은 ‘북한이탈주민’, ‘소득과 재산’, ‘여성의 대우’ 등의 순위를 보였고, 중학생은 ‘소득과 재산’, ‘취업기회’, ‘소득과 재산’ 등의 순위를, 고등학생은 ‘소득과 재산’, ‘취업기회’, ‘법이 집행’ 등의 순위를, 청년은 ‘소득과 재산’, ‘법의 집행’, ‘승진승급기회’ 등의 순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의 순으로 각 사회의 영역에서 불평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기회’, ‘지역간 차이’, ‘승진승급기회’ 등의 순서였다.

모든 미래세대의 집단에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은 우리 사회가 주목할 만하다.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불평등인식은 곧 진로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요청된다.

14) 일의 선택기준

미래세대에게 일의 선택기준을 묻은 결과, 다음 <표 32>와 같이 성별 분석 결과는 유사한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도 보고되지 않았다. 교급별 분석결과에서는 초등학생은 1순위 ‘나의 발전과 성취’, 2순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3순위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등의 순이었고, 중학생은 1순위 ‘나의 발전과 성취’, 2순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3순위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등의 순이었다. 고등학생은 1순위 ‘나의 발전과 성취’, 2순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3순위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등의 순위를, 청년은 1순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2순위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 3순위 ‘나의 발전과 성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나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 ‘안정성’과 ‘소득’이 더 높은 기준으로 순위가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것은 불안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어린 미래세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32〉 일의 선택기준

(단위: M/SD)

구분	교급별				F (scheffe)	성별		t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남성	여성	
나의 발전과 성취	3.51 (0.54)	3.46 (0.55)	3.43 (0.53)	3.17 (0.60)	40.509*** (초)고, 초)청, 중)청, 고)청	3.42 (0.57)	3.41 (0.54)	0.245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3.45 (0.58)	3.27 (0.64)	3.15 (0.69)	2.92 (0.69)	69.223*** (초)중)고)청	3.22 (0.70)	3.19 (0.65)	1.271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3.47 (0.59)	3.43 (0.62)	3.37 (0.65)	3.32 (0.65)	7.403*** (초)고, 초)청, 중)청	3.38 (0.66)	3.41 (0.60)	-1.603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	3.03 (0.75)	3.17 (0.67)	3.17 (0.72)	3.18 (0.66)	8.315*** (초)중)고)청	3.13 (0.75)	3.17 (0.67)	-1.521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3.29 (0.74)	3.19 (0.72)	3.18 (0.71)	3.05 (0.67)	11.466*** (초)중)고)청	3.16 (0.76)	3.21 (0.68)	-1.940

15)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 유무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은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성별 결과에서는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교급별 모든 집단에서도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이 ‘없다’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예	아니오	X ²
성별	남성	617(35.9)	1,101(64.1)	0.498
	여성	716(37.0)	1,217(63.0)	
교급별	초등학교	282(40.5)	414(59.5)	7.783
	중학교	328(33.8)	641(66.2)	
	고등학교	562(36.8)	965(63.2)	
	청년	182(36.4)	318(63.6)	

16) 진로성숙도

각 집단별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다. 성별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정보다 앞서는 하위항목은 ‘자기이해’와 ‘계획성’(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음)이었고, 여성이 남정보다 앞서는 하위항목은 ‘일에 대한 태도’와 ‘독립성’이었다. 종합적인 수치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교급별 결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교급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이해’와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계획성’이 모두 후퇴하고 있다는 슬픈 현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34〉 진로성숙도

(단위: M/SD)

구분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계획성	전체
성별	남성	2.99(0.57)	3.06(0.62)	3.13(0.63)	3.01(0.48)	3.05(0.42)
	여성	2.92(0.59)	3.20(0.54)	3.26(0.58)	2.99(0.46)	3.09(0.40)
	t	4.056***	-7.033***	-6.813***	1.401	-3.203**
교급별	초등학교	3.31(0.50)	3.39(0.41)	3.24(0.51)	3.03(0.48)	3.24(0.36)
	중학교	2.95(0.58)	3.17(0.55)	3.21(0.59)	2.99(0.49)	3.08(0.39)
	고등학교	2.90(0.56)	3.12(0.58)	3.27(0.60)	3.04(0.44)	3.08(0.40)
	청년	2.61(0.48)	2.75(0.60)	2.91(0.71)	2.88(0.45)	2.79(0.40)
	F	169.630***	130.712***	48.061***	14.504***	132.672***

17) 진로준비행동

다음 <표 35>는 미래세대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보수집활동’과 ‘취업준비활동’으로 ‘정보수집활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활발한 반면, ‘취업준비활동’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전체적인 수치는 성별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34>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성숙한 진로교육과 꿈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35〉 진로준비행동

(단위: M/SD)

구분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전체
성별	남성	2.35(0.68)	2.79(0.61)	2.38(0.76)	2.33(0.81)	2.41(0.59)
	여성	2.36(0.63)	2.83(0.60)	2.33(0.71)	2.24(0.77)	2.41(0.54)
	t	-0.610	-2.259*	1.725	3.462**	-0.220
교급별	초등학교	2.23(0.65)	2.65(0.63)	2.15(0.72)	2.22(0.80)	2.20(0.54)
	중학교	2.23(0.65)	2.73(0.61)	2.22(0.72)	2.10(0.78)	2.25(0.55)
	고등학교	2.43(0.65)	2.95(0.59)	2.48(0.74)	2.32(0.81)	2.54(0.54)
	청년	2.55(0.59)	2.77(0.54)	2.51(0.66)	2.60(0.65)	2.61(0.49)
	F	42.956***	52.999***	51.877***	48.178***	116.460***

2. 꿈꾸면 무엇이 좋을까?

본 장에서는 “꿈꾸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꿈을 꾸는 것이 좋은지, 그렇다면 어떤 꿈을 꾸는 것이 좋은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 조사에서는 좋은 꿈을 ‘아동에게 좋은 발달산물이나 성과지표를 가져오는 꿈’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꿈에 따른 주요 발달지수 및 성과지표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행복지수

먼저 꿈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6>에서와 같다. 행복지수는 미래세대를 사회의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대상화하여 건강

한 성인으로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well-becoming)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지표들과는 달리, ‘지금,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 삶의 질(well-being)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서 그 의미가 있다.

〈표 36〉 꿈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79(0.58)	127.593*** (○)△×)
	막연하다	2.99(0.53)	
	구체적인 꿈이 있다	3.24(0.53)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3.13(0.55)	6.856***
	아니오	2.91(0.56)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3.16(0.54)	14.120***
	아니다	2.77(0.55)	
꿈 변화정도	변했다	3.07(0.55)	-6.077***
	변하지 않았다	3.18(0.55)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3.18(0.54)	9.648***
	자주 하지 않는다	3.00(0.56)	
꿈 실현정도	그렇다	3.19(0.53)	13.229***
	아니다	2.93(0.56)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행복지수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99점), 꿈이 없는 집단(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3.1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91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더 행복하였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인

로 응답한 집단에서 3.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7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였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행복지수가 3.18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3.07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자주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진 이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행복지수는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3.18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3.00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더 행복하였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1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93점)에 비해 높았다.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았던 것처럼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였다. 곧, 현재 꿈을 추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다가올 미래에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실현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하겠다.

2)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꿈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에서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발달지표이자 많은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표 37〉 꿈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56(0.49)	187.308*** (○)△(×)
	막연하다	2.78(0.48)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6(0.50)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2.94(0.52)	7.315***
	아니오	2.71(0.50)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2.96(0.50)	16.484***
	아니다	2.55(0.49)	
꿈 변화정도	변했다	2.88(0.51)	-5.756***
	변하지 않았다	2.98(0.53)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2.99(0.51)	11.463***
	자주 하지 않는다	2.79(0.51)	
꿈 실현정도	그렇다	3.01(0.51)	16.695***
	아니다	2.71(0.48)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78점), 꿈이 없는 집단(2.56점) 순으로 나타났다.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더 자신을 존중하고 있었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2.94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1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2.9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5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2.98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2.88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자주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진 이들이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2.9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9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0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1점)에 비해 높았다. 현재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을 더 존중한다 하겠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외부의 환경 변화나 압력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그 하위척도로서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한다. 결국 이는 꿈이나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잃지 않고 자기자신을 돌보며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갈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하겠다.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38>에서와 같다.

〈표 38〉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전체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68(0.40)	2.70(0.45)	2.77(0.43)	2.72(0.36)
	막연하다	2.80(0.39)	2.92(0.45)	2.93(0.46)	2.88(0.36)
	구체적인 꿈이 있다	2.98(0.45)	3.19(0.48)	3.11(0.45)	3.09(0.39)
	F(Scheffe)	97.670*** (○)△×)	181.410*** (○)△×)	89.425*** (○)△×)	171.368*** (○)△×)

	구분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전체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2.90(0.44)	3.07(0.49)	3.03(0.46)	3.00(0.39)
	아니오	2.73(0.38)	2.81(0.47)	2.83(0.46)	2.79(0.37)
	t	7.424***	8.818***	7.159***	9.379***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2.92(0.43)	3.09(0.48)	3.05(0.45)	3.02(0.39)
	아니다	2.68(0.44)	2.72(0.45)	2.77(0.46)	2.72(0.38)
	t	10.627***	15.797***	11.766***	15.021***
꿈 변화정도	변했다	2.86(0.43)	3.01(0.49)	2.99(0.46)	2.95(0.39)
	변하지 않았다	2.94(0.45)	3.11(0.49)	3.05(0.47)	3.03(0.40)
	t	-5.377***	-6.077***	-3.559***	-5.955***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2.96(0.44)	3.14(0.48)	3.11(0.45)	3.07(0.39)
	자주 하지 않는다	2.78(0.42)	2.90(0.47)	2.87(0.45)	2.85(0.37)
	t	12.402***	14.709***	15.705***	17.165***
꿈 실현정도	그렇다	2.96(0.44)	3.14(0.49)	3.08(0.45)	3.06(0.39)
	아니다	2.73(0.41)	2.85(0.45)	2.86(0.46)	2.81(0.36)
	t	15.319***	16.870***	13.167***	18.278***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88점), 꿈이 없는 집단(2.7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도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에서 모두,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 꿈이 없는 집단 순이었다.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높았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3.00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9점)에 비해 더 높았다. 하위척도에서 자기조절능력도 스스로 꿈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2.90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2.73점)에 비해 높았고, 긍정성도 스스로 결정한 집단에서 3.0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1점)에 비해 높았다. 대인관계능력도 동일하게 스스로 결정한 집단(3.03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2.8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외부 환경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자신과 대인관계를 조절하며 더 잘 대처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3.02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2점)에 비해 더 높았다. 하위척도별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자기조절능력(2.92점)과 긍정성(3.09점), 대인관계능력(3.05점)에서 모두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값(2.68점, 2.72점, 2.77점)보다 모두 높았다. 곧,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회복탄력성이 3.03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2.95점)에 비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조절능력에서 꿈이 변하지 않은 이들이 2.94점으로 변한 이들(2.86점)에 비해 더 높았고, 긍정성에서도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3.11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3.01점)보다 높았다. 대인관계능력도 꿈이 변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2.99점이었으나 변하지 않은 이들은 3.05점으로 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처럼, 내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꿈을 바꾸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들이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3.0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5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는 자기조절능력에서 다른 이들과 꿈을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2.96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2.78점)에 비해 더 높았고, 이는 긍정성과 대인관계능력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대인관계능력도 더 좋고 긍정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능력도 높아, 전체적으로 회복탄력성에서도 더 좋았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0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1점)에 비해 높았다. 하위 척도에서도,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자기조절능력(2.96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2.73점)에 비해 더 높았고, 더 긍정적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꿈을 따라 사는 이들이 현재 당면한 혹은 아직 당면하지 않은 외부 변화에도 더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4) 문제행동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지수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긍정적인 발달지표 혹은 성과지표라면, 문제행동은 미래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지표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범주화되는데, 내재화 문제는 우울이나 불안 등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한다(Achenbach & Edelbrock, 1978; 강지현, 오경자, 2011; 좌현숙, 2017 재인용).

꿈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39>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39> 꿈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내재화	외현화	전체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02(0.44)	1.86(0.37)	1.94(0.37)
	막연하다	2.00(0.39)	1.89(0.32)	1.94(0.32)
	구체적인 꿈이 있다	1.85(0.36)	1.80(0.30)	1.82(0.30)
	F(Scheffe)	40.828*** (O<△, O<(×)	15.891*** (O<△)	32.733*** (O<△, O<(×)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1.90(0.38)	1.84(0.31)	1.88(0.32)
	아니오	2.02(0.41)	1.88(0.33)	1.94(0.34)
	t	-3.717***	-1.312	-2.884**

	구분	내재화	외현화	전체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1.89(0.37)	1.84(0.31)	1.86(0.31)
	아니다	2.09(0.43)	1.89(0.35)	2.00(0.36)
	t	-6.854***	-2.411***	-5.275***
꿈 변화정도	변했다	1.94(0.39)	1.85(0.32)	1.90(0.32)
	변하지 않았다	1.89(0.37)	1.82(0.31)	1.85(0.31)
	t	3.006**	2.618**	3.099**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1.92(0.38)	1.85(0.32)	1.88(0.32)
	자주 하지 않는다	1.93(0.39)	1.84(0.31)	1.88(0.32)
	t	-0.641	0.483	-0.134
꿈 실현정도	그렇다	1.89(0.37)	1.82(0.31)	1.85(0.31)
	아니다	2.00(0.40)	1.89(0.32)	1.94(0.33)
	t	-5.543***	-4.152***	-5.350***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82점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1.94점)과 꿈이 없는 집단(1.94점)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때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과 꿈이 없는 집단 간에는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별로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85점으로 가장 낮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00점), 꿈이 없는 집단(2.0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과 꿈이 없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80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꿈이 없는 집단(1.86점),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1.8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 간에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특히 꿈이 있더라도 막연한 집단보다 더 적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

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1.88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94점)에 비해 더 낮았다. 내재화와 외현화를 나누어 살펴보면, 꿈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내재화는 1.90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02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외현화는 1.84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88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덜 보였으며,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없으나 우울이나 불안은 더 낮았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문제행동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1.8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00점)에 비해 더 낮았다. 하위척도별로도 내재화와 외현화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들이 내면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지니며, 외면적으로도 비행이나 폭력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었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문제행동이 1.85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1.90점)에 비해 더 낮았다. 하위척도별로도 꿈이 변한 집단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1.94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1.85점으로 변하지 않은 집단(내재화 1.89점, 외현화 1.82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바꾸거나 바뀐 이들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1.88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88점)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하위척도인 내재화나 외현화 각각에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부는 문제행동과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

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1.85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94점)에 비해 더 낮았다. 하위척도별로도 꿈에 따라 살고 있는 이들이 내재화에서 1.89점, 외현화에서 1.82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점수 2.00점과 1.89점에 비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며, 결국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제행동이 높았던 것처럼,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5) 학교생활적응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미래세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학교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또래들과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는 얼마나 원활한지를 보여주는 하위척도들로 구성된다.

본 조사결과에서 꿈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0>에서와 같다.

〈표 40〉 꿈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60 (0.51)	2.95 (0.51)	2.95 (0.44)	2.85 (0.62)	2.84 (0.41)
	막연하다	2.82 (0.48)	3.07 (0.43)	3.07 (0.43)	3.01 (0.55)	3.00 (0.36)
	구체적인 꿈이 있다	2.99 (0.52)	3.18 (0.48)	3.18 (0.48)	3.17 (0.60)	3.14 (0.41)
	F(Scheffe)	62.135*** (○)△×)	31.698*** (○)△×)	49.604*** (○)△×)	36.700*** (○)△×)	68.793*** (○)△×)

구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2.91 (0.52)	3.13 (0.47)	3.17 (0.42)	3.10 (0.59)	3.08 (0.59)
	아니오	2.69 (0.50)	2.96 (0.50)	3.00 (0.42)	2.88 (0.42)	2.89 (0.39)
	t	6.083***	5.350***	5.801***	5.374***	7.158***
꿈 실현 가능성	그렇다	2.93 (0.51)	3.14 (0.48)	3.18 (0.42)	3.11 (0.59)	3.09 (0.40)
	아니다	2.59 (0.51)	2.98 (0.45)	2.98 (0.38)	2.90 (0.61)	2.86 (0.38)
	t	10.679***	5.788***	8.708***	5.750***	9.640***
꿈 변화	변했다	2.87 (0.51)	3.09 (0.46)	3.14 (0.41)	3.06 (0.58)	3.04 (0.39)
	변하지 않았다	2.92 (0.55)	3.16 (0.49)	3.18 (0.43)	3.13 (0.61)	3.10 (0.42)
	t	-2.449*	-4.109***	-2.597**	-3.025**	-3.750***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2.96 (0.53)	3.17 (0.47)	3.23 (0.42)	3.17 (0.58)	3.13 (0.40)
	자주 하지 않는다	2.77 (0.49)	3.03 (0.46)	3.04 (0.40)	2.94 (0.59)	2.94 (0.38)
	t	10.316***	8.049***	12.157***	10.841***	13.112***
꿈 실현정도	그렇다	2.97 (0.51)	3.17 (0.47)	3.21 (0.42)	3.15 (0.59)	3.12 (0.40)
	아니다	2.70 (0.50)	2.99 (0.46)	3.03 (0.38)	2.93 (0.58)	2.91 (0.37)
	t	13.010***	10.229***	11.687***	9.195***	13.895***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3.00점), 꿈이 없는 집단(2.84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도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적응 수준을 보이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 꿈이 없는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었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3.08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9점)에 비해 더 높았다. 이 또한 하위척도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이들이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였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3.0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6점)에 비해 더 높았다.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2.93점, 3.14점, 3.18점, 3.11점으로 이룰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학교에서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이며 학교규칙도 잘 준수하고 교우관계나 교사관계도 더 원만하였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이 3.10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3.04점)에 비해 더 높았다. 하위척도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도 모두 꿈을 자주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3.1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94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위척도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도 꿈을 타인과 이야기하는 집단에서 각각 2.96점, 3.17점, 3.23점, 3.1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에게서 학교생활에의 적응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

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12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91점)에 비해 높았다. 하위척도별로도, 꿈에 따라 살고 있다는 집단에서 학습활동은 2.97점, 학교규칙 3.17점, 교우관계 3.15점, 교사관계 3.12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점수(2.70점, 2.99점, 3.03점, 2.93점)에 비해 더 높았다.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학교에서도 더 잘 적응하고 있었다.

6) 부모와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지수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문제행동, 학교생활 적응이 미래세대의 발달과 관련한 중요한 성과지표들이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성과지표들과 관련한 또는 꿈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으로서 중요한 지표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1>에서와 같다.

<표 41> 꿈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95(0.66)	45.824*** (○)△×)
	막연하다	3.10(0.63)	
	구체적인 꿈이 있다	3.31(0.66)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3.21(0.67)	4.304***
	아니오	3.02(0.65)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3.23(0.66)	8.676***
	아니다	2.89(0.66)	
꿈 변화정도	변했다	3.17(0.67)	-2.801**
	변하지 않았다	3.24(0.67)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3.31(0.64)	12.403***
	자주 하지 않는다	3.01(0.67)	
꿈 실현정도	그렇다	3.28(0.65)	10.925***
	아니다	2.99(0.67)	

1)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이 3.10점, 꿈이 없는 집단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다.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았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3.2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3.02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었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3.2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9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3.24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3.17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자주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진 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도 더 좋았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수준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3.3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3.01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이었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28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99점)에 비해 높았다. 꿈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모양육태도

부모와의 관계가 관계의 질을 확인하는 지표라면,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태도나 관점에서 양육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Baumrind(1991)나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유형을 허용(acceptance)과 통제(control)의 정도에 따라 크게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문형은 자녀에게 애정적이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유형이며, 권위형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행동만을 통제하는 유형이다. 허용형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애정을 드러내나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지는 않는 부모유형이고, 무시형은 자녀에게 애정표현도 행동통제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들 각 유형별로 꿈에 따른 양육태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2>에서와 같다.

<표 42> 꿈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80 (0.54)	2.29 (0.59)	2.53 (0.47)	1.93 (0.74)
	막연하다	2.85 (0.49)	2.10 (0.50)	2.52 (0.39)	1.66 (0.56)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2 (0.52)	2.04 (0.55)	2.53 (0.41)	1.57 (0.59)
	F(Scheffe)	41.074*** (○)△, ○×)	17.840*** (○△(×)	0.094	29.310*** (○△(×)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2.95 (0.52)	2.08 (0.54)	2.52 (0.41)	1.62 (0.60)
	아니오	2.85 (0.52)	2.21 (0.53)	2.54 (0.43)	1.82 (0.64)
	t	2.895**	-3.725***	-0.379	-4.601***

구분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2.96 (0.52)	2.08 (0.54)	2.53 (0.42)	1.61 (0.60)
	아니다	2.74 (0.52)	2.19 (0.53)	2.54 (0.41)	1.85 (0.63)
	t	7.153***	-3.629***	-0.425	-6.609***
꿈 변화정도	변했다	2.92 (0.51)	2.10 (0.53)	2.53 (0.41)	1.66 (0.60)
	변하지 않았다	2.97 (0.54)	2.06 (0.56)	2.53 (0.43)	1.60 (0.61)
	t	-2.394*	2.319*	0.832	2.719**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3.02 (0.51)	2.05 (0.55)	2.53 (0.42)	1.58 (0.61)
	자주 하지 않는다	2.80 (0.52)	2.15 (0.53)	2.52 (0.42)	1.72 (0.59)
	t	11.432***	-5.211***	0.960	-6.485***
꿈 실현정도	그렇다	3.00 (0.52)	2.06 (0.55)	2.53 (0.42)	1.59 (0.61)
	아니다	2.80 (0.50)	2.16 (0.51)	2.52 (0.40)	1.74 (0.59)
	t	9.879***	-4.754***	0.468	-6.118***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에 있어서, 전문형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85점), 꿈이 없는 집단(2.8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권위형과 무시형은 각각 꿈이 없는 집단에서 2.29점과 1.93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이 2.10점과 1.66점으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2.04점, 1.57점)이 가장 낮았다. 이들 유형별 부모양육태도는 꿈에 따른 집단별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허용형은 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자녀가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 행동도 통제하는 전문형 양육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

은 반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든지 간에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권위형이나 무시형 양육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낮았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꿈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모가 전문형 양육태도를 보이는 수준은 2.95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5점)에 비해 더 높았다. 반면 권위형이나 무시형은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에서 각각 2.08점과 1.62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21점과 1.82점)에 비해 더 낮았다. 허용형도 권위형이나 무시형처럼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에서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전문형은 3.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7점)에 비해 더 높았던 반면, 허용형과 권위형, 무시형은 각각 2.53점과 2.08점, 1.6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4점, 2.19점, 1.85점)에 비해 더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전문형과 권위형, 무시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반면, 허용형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모가 더 전문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되 권위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적게 보인다고 응답한 것이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전문형 부모양육태도가 2.97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2.92점)에 비해 더 높았다. 이에 반해 권위형과 무시형은 꿈이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2.10점과 1.66점으로 꿈이 변하지 않은 집단(2.06점, 1.60점)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허용형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꿈이 바뀌지 않은 이들이 부모가 애정과 통제를 보이는 전문형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느끼는 반면, 애정을 보이지 않는 권위형이나 무시형 태도는 덜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문형과 허용형

양육태도는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각각 3.02점과 2.5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0점과 2.52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형 양육태도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허용형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반해 권위형과 무시형 양육태도는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들에게서 2.05점과 1.58점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2.15점과 1.7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부모의 전문형 양육태도를 3.00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0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권위형과 무시형은 꿈에 따라 살고 있다는 집단에서 2.06점과 1.5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16점과 1.74점)에 비해 더 낮았다. 허용형은 꿈의 실현정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결국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부모가 더 전문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되 권위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곧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그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녀의 꿈에 있어서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친의 양육태도를 전문형으로 지각한 학생이 권위형 혹은 허용형으로 인식한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정상모(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문형 유형은 역량있는 자녀로 키우는 부모의 양육 유형으로 자신의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의젓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설득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부모를 둔 아동은 개인의 흥미와 개성을 존중받으며,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존감을 길러준다고 보았다.

8)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면, 사회적지지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나 친구 등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도 꿈을 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나 격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꿈에 따라 사회적지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3>에서와 같다.

<표 43> 꿈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75(0.60)	82.552*** (○)△×)
	막연하다	2.93(0.57)	
	구체적인 꿈이 있다	3.15(0.58)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3.06(0.59)	7.056***
	아니오	2.81(0.60)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3.07(0.59)	9.958***
	아니다	2.77(0.61)	
꿈 변화정도	변했다	3.01(0.59)	-3.499***
	변하지 않았다	3.08(0.61)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3.17(0.55)	17.149***
	자주 하지 않는다	2.82(0.61)	
꿈 실현정도	그렇다	3.13(0.57)	14.535***
	아니다	2.72(0.60)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93점), 꿈이 없는 집단(2.75점) 순으로 나타났다.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응답하였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3.0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1점)에 비해 더 높

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3.0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7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사회적지지가 3.08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3.01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이 변한 집단일수록 꿈에 대해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누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3.1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82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사회적지지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3.1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2점)에 비해 높았다.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족과 타인으로부터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9) 사회불평등인식

사회적지지가 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라면, 사회불평등인식은 소위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들이 꿈을 꾸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꿈에 따라 사회 불평등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44>에서와 같았다.

〈표 44〉 꿈에 따른 사회 불평등인식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63(0.57)	24.891*** (○)△, ○×)
	막연하다	2.65(0.4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52(0.55)	
꿈 스스로 결정여부	예	2.57(0.54)	-3.298**
	아니오	2.67(0.53)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2.56(0.54)	-6.378***
	아니다	2.73(0.52)	
꿈 변화	변했다	2.60(0.53)	3.038**
	변하지 않았다	2.54(0.54)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2.57(0.53)	-0.214
	자주 하지 않는다	2.58(0.54)	
꿈 실현정도	그렇다	2.54(0.54)	-5.907***
	아니다	2.66(0.52)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52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꿈이 없는 집단(2.63점),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꿈이 없거나 막연한 이들이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 비해 사회가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사회불평등인식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2.5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67점)에 비해 더 낮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사회를 더 공평하다 바라보았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2.5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73점)에 비해 더 낮았다.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회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사회불평등인식이 2.60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4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바

꾸거나 바뀔 이들이 사회를 더 불평등하다 바라보았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은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2.5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8점)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지 여부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없었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2.54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66점)에 비해 낮았다. 현재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불평등을 꿈에 있어 장애요소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에서 나타난 결과들과도 대부분 일치한다(〈표 24〉 참조). 사회의 불평등은 꿈에 장애요소이지만, 구체적인 꿈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그 꿈을 좇아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낮았다.

10)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가능성에 있어 꿈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가능성은 꿈의 한 형태일 수도 있으며, 꿈을 위한 환경이나 전망에 대한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5〉에서와 같다.

첫째, 꿈 유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63점), 꿈이 없는 집단(2.5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나머지, 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막연한 집단 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이 장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

은 지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더 전망하였다.

〈표 45〉 꿈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t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53(0.85)	38.793*** (○)△, ○)×)
	막연하다	2.63(0.70)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3(0.73)	
꿈 스스로 결정 여부	예	2.75(0.73)	3.515***
	아니오	2.58(0.82)	
꿈 실현가능성	그렇다	2.77(0.72)	8.343**
	아니다	2.43(0.80)	
꿈 변화	변했다	2.70(0.74)	-3.220**
	변하지 않았다	2.78(0.74)	
꿈 소통정도	자주 한다	2.81(0.72)	8.079***
	자주 하지 않는다	2.60(0.76)	
꿈 실현정도	그렇다	2.81(0.71)	9.307***
	아니다	2.55(0.78)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둘째, 꿈을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2.75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8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스스로 결정한 집단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더 크다 바라보았다.

셋째, 꿈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2.77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43점)에 비해 더 높았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닿을 것으로 더 많이 기대하였다.

넷째, 꿈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을 2.78점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2.70점)에 비해 더 높게 보았다. 꿈을 자주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진 이

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지위에 있어 상승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다섯째, 꿈 소통정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다른 사람과 꿈을 자주 이야기 나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2.8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60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이들이 장차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

여섯째, 꿈 실현정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에 있어서는, 현재 꿈에 따라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2.8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2.55점)에 비해 높았다. 현재 꿈을 따라 사는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3.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마저 다를까?

최근 미래세대 가운데 ‘수저계급론’이 대두되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7.1.18.). 이 단어의 개념에 따르면 금수저는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을 가진 계층이고,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뜻한다. 즉,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소득과 재력을 뜻하는 어떤 등급의 ‘수저’인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뿐 아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낮은 사회적 경제수준이 진로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경상 외, 2008; 노경란, 2011). 또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미래 직업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시각을 가지기 쉽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따라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은 정말 꿈마저도 다른지, 지각된 ‘경제적인 결핍’이 우리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유무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꿈 유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46>과 같았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는 응답에서는 빈곤가정(41.3%)의 응답 비율이 비빈곤가정(58.4%)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또한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곤가정(48.4%)이 비빈곤가정(35.7%)보다 많았고, ‘꿈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빈곤가정(10.3%)이 비빈곤가정(6.0%)의 응답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유무

(단위: 명(%))

구분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꿈이 없다	X ²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140(41.3)	164(48.4)	35(10.3)	38.144***
	비빈곤	1,772(58.4)	1,082(35.7)	181(6.0)	

<표 47> 결핍 수준에 따른 꿈 유무 및 주관적 경제수준

(단위: 명(%), ‘아니오’ 응답비율)

구분	꿈 유무별			X ²	주관적 경제수준		X ²
	꿈이없다	막연하다	꿈이있다		빈곤	비빈곤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60 (37.3)	302 (31.1)	471 (27.1)	10.527*	116 (43.9)	824 (27.8)	30.465***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13 (8.1)	85 (8.8)	176 (10.1)	1.796	38 (14.4)	275 (9.3)	7.179**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56 (34.8)	318 (32.8)	411 (23.6)	30.869***	117 (44.3)	780 (26.3)	39.009***

구분	꿈 유무별			χ^2	주관적 경제수준		χ^2
	꿈이없다	막연하다	꿈이있다		빈곤	비빈곤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61 (37.9)	245 (25.3)	314 (18.1)	45.683***	101 (38.3)	606 (20.5)	44.871***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46 (28.6)	293 (30.2)	412 (23.7)	13.987**	131 (45.8)	727 (24.6)	56.52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88 (54.7)	481 (49.3)	656 (37.8)	45.584***	148 (56.1)	1,237 (41.8)	20.059***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30 (18.6)	130 (13.4)	183 (10.5)	12.074**	65 (24.6)	327 (11.0)	41.814***
우리집 행사/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낼 수 있다	20 (12.4)	82 (8.5)	112 (6.5)	9.667**	56 (21.2)	194 (6.6)	72.314***
우리집은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한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31 (19.3)	172 (17.8)	213 (12.3)	18.407***	.92 (35.0)	385 (13.0)	92.052***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6 (3.7)	26 (2.7)	48 (2.8)	0.568	15 (5.7)	73 (2.5)	9.424**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2 (7.5)	53 (5.5)	81 (4.7)	2.797	20 (7.6)	151 (5.1)	2.955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8 (5.0)	31 (3.2)	54 (3.1)	1.635	22 (8.3)	96 (3.2)	17.796***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다	44 (27.3)	288 (29.7)	420 (24.2)	9.880**	132 (50.0)	725 (24.5)	80.802***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	39 (24.2)	233 (24.1)	322 (18.5)	12.850**	114 (43.2)	560 (18.9)	86.023***

위의 <표 47>에서는 미래세대의 항목별 결핍 현황에 따른 꿈 유무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함께 나타나 있다. 문항별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 않음’, ‘없음’을 의미)라고 응답한 미래세대의 비율을 살펴보면, 결핍 수준에 따른 주관적 경제수준별 응답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핍 수준에 따른 꿈 유무를 확인한 결과, ‘꿈이 없다’,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막연하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의 순으로 결핍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인 상위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순위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꿈이 없는 미래세대는 37.9%, 꿈이 있는 미래세대는 18.1%로 나타났고, 2순위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꿈이 없는 미래세대는 54.7%, 꿈이 있는 미래세대는 37.8%로 나타났다. 3순위 ‘우리집은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한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에서 꿈이 없는 미래세대는 19.3%, 꿈이 있는 미래세대는 12.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의 결핍이 꿈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이 없는 이유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표 48>과 같이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45.1%)’,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28.6%)’,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48.6%)’,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28.3%)’,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라는 체념적인 응답이 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 반수에 이르는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도 3순위를 차지해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서 꿈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각 집단에서 꿈이 없는 이유 중 높은 순위(빈곤가정 1순위, 비빈곤가정 2순위)를 기록한 까닭 중 하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충분히 자기성찰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시간적인 여유와 여건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표 48〉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59(28.6)	37(18.0)	27(13.1)	8(3.9)	93(45.1)
	비빈곤	636(48.6)	127(9.7)	148(11.3)	76(5.8)	371(28.3)

3)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자기결정 여부

스스로 꿈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표 49〉와 같이 주관적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89.%,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91.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꿈의 자기결정 권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자기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340(89.9)	37(9.8)	1.749
	비빈곤	3,069(91.1)	278(8.3)	

4)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가능성

꿈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표 50〉과 같이 비빈곤가정(89.4%)이 빈곤가정(78.7%)에 비해 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보고되었다.

〈표 50〉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가능성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80(21.3)	216(57.4)	63(16.8)	17(4.5)	48.199***
	비빈곤	943(28.4)	2,026(61.0)	312(9.4)	41(1.2)	

5)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변화정도

꿈의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표 51>과 같이 비빈곤가정이(60.5%)이 빈곤가정(59.7%)에 비해 더 자주 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표 51〉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변화정도

(단위: 명(%))

구분		자주 변했다	가끔 변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69(18.3)	156(41.4)	118(31.3)	34(9.0)	3.442
	비빈곤	606(15.2)	1,508(45.3)	1,035(31.1)	278(8.4)	

6)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에 대한 소통 정도

꿈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다음 <표 52>와 같이 빈곤가정은 53.8%, 비빈곤가정은 63%가 긍정응답을 하여 비빈곤가정이 빈곤가정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에 대한 소통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46(12.4)	153(41.4)	139(37.6)	32(8.6)	19.422***
	비빈곤	452(13.6)	1,642(49.4)	1,079(32.5)	148(4.5)	

7)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정도

꿈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 다음 <표 53>과 같이 빈곤가정은 58.2%가 비빈곤가정은 71.5%가 긍정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통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37(9.8)	182(48.4)	128(34.0)	29(7.7)	40.508***
	비빈곤	499(15.0)	1,882(56.5)	851(25.5)	101(3.0)	

8)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요인

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물은 결과 다음 〈표 54〉와 같이 빈곤 가정은 1순위 ‘없다(24.5%)’, 2순위 ‘대중매체(23.7%)’, 3순위 ‘성적(18.1%)’로 나타났고, 비빈곤가정은 1순위 ‘대중매체(25.0%)’, 2순위 ‘없다(20.9%)’, 3순위 ‘성적(18.5%)’ 등의 순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54〉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요인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성적	진로 검사/ 체험	책	대중 매체	아르 바이트	종교	롤 모델	봉사 활동	기타	없다
주관적 경제 수준	빈 곤	68 (18.1)	50 (13.3)	21 (5.6)	89 (23.7)	11 (2.9)	7 (1.9)	36 (9.6)	10 (2.7)	32 (8.5)	92 (24.5)
	비 빈 곤	617 (18.5)	490 (14.7)	285 (8.6)	831 (25.0)	29 (0.9)	34 (1.0)	451 (13.6)	57 (1.7)	238 (7.2)	696 (20.9)

9)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인물

꿈 영향인물에 대해 물은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았다. 빈곤가정은 1순위 ‘없다(38.7%)’, 2순위 ‘부모(25.3%)’, 3순위 ‘친구/선배(13.1%)’ 등의 순을 보였다. 비빈곤가정은 1순위 ‘부모(36.5%)’, 2순위 ‘없다(35.3%)’, 3순위 ‘교사(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영향인물

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교사	친구/ 선배	친척	사회 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기타	없다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95 (25.3)	44 (11.7)	49 (13.1)	9 (2.4)	7 (1.9)	5 (1.3)	31 (8.3)	145 (38.7)
	비빈곤	1,215 (36.5)	349 (10.5)	330 (9.9)	109 (3.3)	48 (1.4)	24 (0.7)	234 (7.0)	1,176 (35.3)

10)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소통인물

꿈 소통인물에 대해 물은 결과는 다음 〈표 56〉과 같았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대의 경우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주된 인물로 1순위 ‘없다
(38.7%)’, 2순위 ‘부모(25.3%)’, 3순위 ‘친구/선배(13.1%)’가 꼽혔다. 비빈곤
가정 미래세대에서는 1순위 ‘부모(51.0%)’, 2순위 ‘친구/선배(39.2%)’, 3순위
‘없다(11.9%)’ 순으로 나타났다.

비빈곤가정에 비해 빈곤가정의 경우 ‘부모’의 순위가 낮게 보고된 까닭은
빈곤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꿈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해 줄만한 능력과 동
기가 결여되어 지도감독이나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허남순 외, 2005).

〈표 56〉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소통인물

(단위: 명(%))

구분		부모	교사	친구/ 선배	친척	사회 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기타	없다
주관적 경제 수준	빈곤	95 (25.3)	44 (11.7)	49 (13.1)	9 (2.4)	7 (1.9)	5 (1.3)	31 (8.3)	145 (38.7)
	비빈곤	1,711 (51.0)	182 (5.4)	1,314 (39.2)	50 (1.5)	26 (0.8)	9 (0.3)	38 (1.1)	399 (11.9)

11)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만족도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한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았다. 빈곤가정은 1순위 ‘노력(4.34점)’, 2순위 ‘자존감(4.07점)’, 3순위 ‘재능(4.01점)’ 등의 순위를 보였고, 비빈곤가정은 1순위 ‘의지(4.48점)’, 2순위 ‘노력(4.44점)’, 3순위 ‘자존감(4.29점)’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57〉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주관적 경제수준		t
	빈곤	비빈곤	
자존감	3.26(0.94)	3.43(0.79)	-5.068***
의지	3.48(0.81)	3.58(0.71)	-2.946**
재능	3.21(0.89)	3.26(0.83)	-1.511
경제력	3.06(0.97)	2.94(0.96)	2.898**
습관	3.07(0.90)	3.18(0.87)	-2.688**
노력	3.47(0.81)	3.55(0.75)	-2.592**
학벌	2.82(1.12)	2.91(1.07)	-1.853**
성별	1.91(1.29)	1.81(1.26)	1.919
외모	2.31(1.24)	2.14(1.28)	3.258**
대인관계능력	3.10(0.92)	3.17(0.89)	-1.682**
부모의 지원	3.06(0.96)	3.18(0.91)	-2.784**
주변사람	2.97(0.94)	3.02(0.96)	-1.193
주변 환경	3.14(0.86)	3.11(0.92)	0.609
출신지역	2.03(1.13)	1.92(1.21)	2.063*
사회적 분위기	2.94(0.95)	(1.01)	0.379

한편 이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았다. 빈곤가정에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상황들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로 1순위 ‘의지(3.44점)’, 2순위 ‘대인관계능력(3.38점)’, 3순위 ‘자존감(3.35점)’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비빈곤가정에서는 1순위 ‘성별(3.90점)’, 2순위 ‘자존감(3.85점)’, 3순위 ‘의지(3.81점)’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으로 빈곤가정 2.59점, 비빈곤가정 3.48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지원’으로 빈곤가정 3.29점, 비빈곤가정 3.94점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다

음은 ‘주변환경’으로 빈곤가정 3.24점, 비빈곤가정 3.78점으로 나타났다. ‘학별’은 빈곤가정 2.89점, 비빈곤가정 3.39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58〉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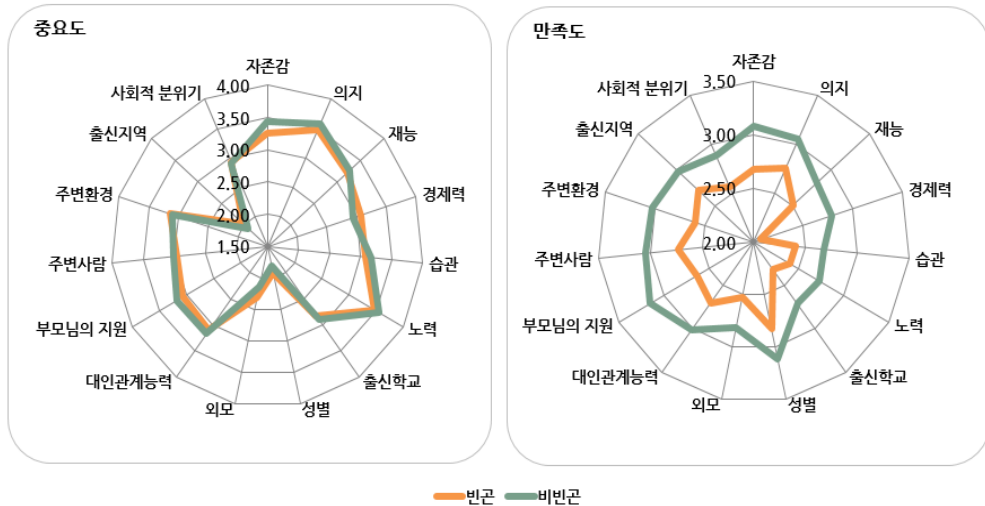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주관적 경제수준		t
	빈곤	비빈곤	
자존감	2.68(1.081)	3.08(0.926)	-8.571***
의지	2.75(1.02)	3.05(0.92)	-6.669***
재능	2.50(1.02)	2.82(0.88)	-7.751***
경제력	2.07(0.96)	2.78(0.85)	-17.241***
습관	2.40(0.92)	2.68(0.89)	-7.099***
노력	2.40(0.98)	2.73(0.97)	-7.737***
학별	2.31(0.98)	2.71(0.92)	-9.801***
성별	2.82(1.09)	3.12(0.99)	-6.144***
외모	2.53(1.07)	2.82(0.94)	-6.907***
대인관계능력	2.70(1.04)	3.02(0.91)	-6.850***
부모의 지원	2.63(1.12)	3.15(0.92)	-10.870***
주변사람	2.73(0.92)	3.05(0.87)	-8.471***
주변 환경	2.59(1.00)	3.02(0.88)	-9.904***
출신지역	2.72(0.94)	2.98(0.93)	-6.368***
사회적 분위기	2.57(0.96)	2.88(0.92)	-7.64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왼쪽의 중요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에서 모두 유사한 수치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른쪽의 만족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빈곤가정의 만족도는 비빈곤가정의 만족도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순서인 ‘경제력’, ‘부모의 지원’, ‘주변 환경’, ‘학별’ 등의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광·김민수(2014)는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제력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의 결과와 일치했다.



[그림 2] 주관적 경제수준별 꿈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중요도/만족도

12)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회 불평등 인식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회 불평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았다. 전반적으로 빈곤가정은 2.78점, 비빈곤가정은 2.55점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사회 불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빈곤가정은 1순위 ‘소득과 재산(2.98점)’, 2순위 ‘승진승급기회(2.90점)’, 3순위 ‘법의 집행(2.8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빈곤가정은 1순위 ‘소득과 재산(2.73점)’, 2순위 ‘승진승급기회(2.66점)’, 3순위 ‘북한이탈주민(2.6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인식한 항목은 빈곤가정 1순위 ‘교육기회(2.41점)’, 2순위 ‘지역불평등(2.58점)’, 3순위 ‘다문화(2.77점)’ 등의 순이었고, 비빈곤가정은 1순위 ‘교육기회(2.21점)’, 2순위 ‘지역불평등(2.39점)’, 3순위

위 ‘법의 집행(2.56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승진승급기회’ 등의 순서였다.

〈표 59〉 주관적 경제수준별 사회 불평등 인식

(단위: M/SD)

구분	주관적 경제수준		t
	빈곤	비빈곤	
교육 기회	2.41(0.70)	2.21(0.68)	5.274***
취업 기회	2.83(0.75)	2.62(0.73)	5.246***
승진승급기회	2.90(0.71)	2.66(0.72)	6.182***
법의 집행	2.87(0.78)	2.56(0.81)	7.208***
여성의 대우	2.84(0.79)	2.59(0.79)	5.889***
소득과 재산	2.98(0.76)	2.73(0.78)	6.224***
지역 간	2.58(0.73)	2.39(0.71)	4.997***
다문화	2.77(0.81)	2.59(0.79)	4.313***
북한이탈주민	2.80(0.80)	2.64(0.78)	3.670***
전 체	2.78(0.50)	2.55(0.54)	7.689***

13) 주관적 경제수준별 일 선택기준

주관적 경제수준별 일 선택기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0〉과 같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일의 선택기준은 ‘나의 발전과 성취’,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나의 발전과 성취’,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관적 경제수준별 일의 선택기준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안정’과 ‘소득’을 높은 기준을 두고 있었으며,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의미’와 ‘자아성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주관적 경제수준별 일 선택기준

(단위: M/SD)

구분	주관적 경제수준		t
	빈곤	비빈곤	
나의 발전과 성취	3.32(0.62)	3.43(0.55)	-3.598***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3.04(0.73)	3.22(0.67)	-4.960**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3.32(0.65)	3.40(0.63)	-2.562**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	3.14(0.74)	3.15(0.70)	-0.102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3.01(0.77)	3.21(0.71)	-4.768***

14) 주관적 경제수준별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 유무

주관적 경제수준별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은 결과는 다음 〈표 61〉과 같았다. 이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아니오’라는 응답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 61〉 주관적 경제수준별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χ^2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133(35.5)	242(64.5)	0.262
	비빈곤	1,221(36.8)	2,096(63.2)	

15)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성숙도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2〉와 같았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독립성’을 제외하고는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 면에서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종합적인 진로성숙도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하여 낮은 진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합리적인 진로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노성환, 2003; 김은희, 2011 재인용). 이와 같이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진로결정은 즉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진로로 이어져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거나 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관계없이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다(김은희, 2011). 따라서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낮은 진로성숙도는 실제적인 비합리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며, 이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우리사회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62〉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성숙도

(단위: M/SD)

구분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계획성	전체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2.71 (0.59)	3.03 (0.61)	3.22 (0.60)	2.90 (0.48)	2.96 (0.40)
	비빈곤	2.98 (0.57)	3.15 (0.58)	3.20 (0.61)	3.01 (0.46)	3.09 (0.41)
	t	-8.642***	-3.789***	-0.515	-4.266***	-5.402***

16)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준비행동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3〉과 같다.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취업준비활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취업준비활동은 많이 하고 있으나, ‘진로탐색’, ‘정보수집’, ‘직업체험’ 등의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준비행동

(단위: M/SD)

구분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전체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2.26 (0.68)	2.70 (0.61)	2.29 (0.73)	2.31 (0.77)	2.35 (0.56)
	비빈곤	2.36 (0.65)	2.82 (0.61)	2.36 (0.73)	2.28 (0.80)	2.41 (0.56)
	t	-2.819**	-3.620***	-1.642	-0.732	-1.986*

4.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지금까지 “꿈꾸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질문과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 꿈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꿈을 꾸는 것이 꿈이 없는 것보다, 그리고 그 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재 꿈을 이루어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꿈을 다른 이와 자주 이야기하며 가급적 꿈을 바꾸지 않고 충분히 탐색해보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이러한 꿈의 방향에 있어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더 꿈이 없거나 막연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는 꿈의 이슈에 있어서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더 나아가 빈곤가정 미래세대 중에서 꿈의 유무에 따라 어떤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에게 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곧 빈곤가정 미래세대를 위한 개입 및 실천의 핵심으로써 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행복지수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을 가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복지수의 차이를 보였다(다음 <표 64> 참조).

빈곤가정 미래세대 중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의 행복지수가 2.97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이 2.65점, 꿈이 없는 이들이 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이 3.27점, 꿈이 막연한 이들이 3.04점, 꿈이 없는 이들이 2.97점 순으로 행복하다 응답하였다.

〈표 64〉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35(0.56)	20.226*** (○)△×)
		막연하다	2.65(0.54)	
		구체적인 꿈이 있다	2.97(0.61)	
	비빈곤	꿈이 없다	2.87(0.54)	92.052*** (○)△×)
		막연하다	3.04(0.51)	
		구체적인 꿈이 있다	3.27(0.52)	

1)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더 행복하였으나, 그 중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2.97점)는 꿈이 없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2.87점)보다 행복지수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에 따라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5〉에서와 같다.

〈표 65〉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27(0.47)	20.989*** (○)△×)
		막연하다	2.56(0.46)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4(0.58)	
	비빈곤	꿈이 없다	2.61(0.47)	150.651*** (○)△×)
		막연하다	2.81(0.47)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8(0.49)	

1)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중 자아존중감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84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56점으로 다음으로 높았

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27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중에서도 자존감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3.08점)에서 가장 높고, 꿈이 막연한 집단(2.81점)에 이어 꿈이 없는 집단(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서도,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높은 자존감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이 없거나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서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3) 회복탄력성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6>에서와 같다.

〈표 66〉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전체
주관적 경제수 준	빈곤	꿈이 없다	2.43(0.46)	2.38(0.40)	2.45(0.37)	2.42(0.44)
		막연하다	2.65(0.40)	2.69(0.46)	2.71(0.47)	2.68(0.34)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9(0.49)	3.00(0.52)	2.97(0.48)	2.96(0.34)
		F(Scheffe)	19.243*** (○)△×)	29.470*** (○)△×)	21.444*** (○)△×)	35.33988* (○)△×)
	비빈곤	꿈이 없다	2.73(0.38)	2.77(0.44)	2.84(0.42)	2.78(0.34)
		막연하다	2.82(0.39)	2.96(0.44)	2.96(0.45)	2.91(0.45)
		구체적인 꿈이 있다	2.99(0.44)	3.20(0.47)	3.12(0.44)	3.10(0.38)
		F(Scheffe)	71.151*** (○)△×)	137.368*** (○)△×)	60.279*** (○)△×)	124.271*** (○)△×)

1)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자신을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의 회복탄력성이 2.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이 2.68점, 꿈이 없는 이들이 2.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빈곤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회복탄력성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서 3.10점, 꿈이 막연한 이들에서 2.91점, 꿈이 없는 이들에서 2.78점 순이었다. 하위척도인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에서도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는 전체적으로 비빈곤 집단이 빈곤 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2.96점)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3.10점)보다 낮은 회복탄력성을 보였으나, 다만 꿈이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2.91점)나 꿈이 없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2.78점)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척도인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에서도 같았다.

4) 문제행동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 꿈에 따라 문제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67>에서와 같았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중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97점으로 가장 낮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06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17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위척도 중 내재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도 모두 꿈이 없는 집단에서 각각 2.35점과 1.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막연한 집단,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에 있어 내재화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만 유의미하였던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67〉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M/SD) 4점 척도로 변환

구분			내재화	외현화	전체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35(0.56)	1.98(0.40)	2.17(0.44)
		막연하다	2.17(0.39)	1.97(0.35)	2.06(0.34)
		구체적인 꿈이 있다	2.06(0.44)	1.86(0.35)	1.97(0.36)
		F(Scheffe)	2.786* (○〈×)	1.726	3.046*
	비빈곤	꿈이 없다	1.97(0.40)	1.84(0.36)	1.90(0.35)
		막연하다	1.97(0.38)	1.88(0.31)	1.93(0.32)
		구체적인 꿈이 있다	1.82(0.35)	1.80(0.30)	1.81(0.29)
		F(Scheffe)	31.696*** (○〈△,○〈×)	12.520*** (○〈△)	25.716***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인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중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1.81점)에서 가장 낮고, 꿈이 없는 집단(1.90점)에 이어 꿈이 막연한 집단(1.93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 내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두 집단, 곧 꿈이 막연한 집단과 꿈이 없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 중 내재화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82점으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꿈이 없는 집단과 막연한 집단은 1.97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1.80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꿈이 없는 집단(1.84점),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1.8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하였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특히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조차도 꿈이 없거나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더 높은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하위척도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도 유사하였다.

5) 학교생활적응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에 따른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8>에서와 같다.

〈표 68〉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41 (0.63)	2.86 (0.62)	2.79 (0.49)	2.47 (0.76)	2.63 (0.40)
		막연하다	2.56 (0.50)	3.03 (0.43)	3.03 (0.40)	2.97 (0.54)	2.90 (0.33)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0 (0.59)	3.19 (0.47)	3.18 (0.42)	2.98 (0.61)	3.04 (0.40)
		F(Scheffe)	6.741** (○)△, (○)×)	5.532** (○)×)	8.118*** (○)×)	6.189** (○)△)×)	10.630*** (○)△)×)
	비빈곤	꿈이 없다	2.63 (0.49)	2.96 (0.50)	2.97 (0.43)	2.90 (0.59)	2.86 (0.41)
		막연하다	2.85 (0.47)	3.07 (0.43)	3.11 (0.39)	3.02 (0.55)	3.01 (0.36)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0 (0.52)	3.18 (0.48)	3.23 (0.42)	3.18 (0.59)	3.15 (0.41)
		F(Scheffe)	51.312*** (○)△)×)	26.149*** (○)△)×)	40.277*** (○)△)×)	31.793*** (○)△, (○)×)	56.126***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자신을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이 3.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이 2.90점, 꿈이 없는 이들이 2.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빈곤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학교생활적응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서 3.15점, 꿈

이 막연한 이들에게서 3.01점, 꿈이 없는 이들에게서 2.86점 순이었다. 하위척도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도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 내에서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는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 집단(3.04점)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비빈곤 집단(3.15점)보다 낮은 학교생활을 보였으나, 다만 꿈이 막연한 비빈곤 집단(3.01점)이나 꿈이 없는 비빈곤 집단(2.86점)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척도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도 같았다.

6) 부모와의 관계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에 따른 집단 간 부모와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9>에서와 같다.

〈표 69〉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75(0.86)	3.854* (○)△
		막연하다	2.73(0.69)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3(0.86)	
	비빈곤	꿈이 없다	2.98(0.63)	28.592*** (○)△)×
		막연하다	3.14(0.61)	
		구체적인 꿈이 있다	3.33(0.64)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3.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75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73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차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3.33점)에서 가장 높고, 꿈이 막연한 집단(3.14점)에 이어 꿈이 없는 집단(2.9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하였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았으나,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이 없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7) 부모양육태도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부모양육태도가 유형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0>에서와 같다.

<표 70>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50 (0.76)	2.37 (0.66)	2.40 (0.56)	2.14 (0.86)
		막연하다	2.53 (0.54)	2.24 (0.52)	2.46 (0.42)	1.82 (0.5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0 (0.62)	2.17 (0.66)	2.59 (0.43)	1.76 (0.73)
		F(Scheffe)	5.742** (○)△	0.992	2.966	2.212
	비빈곤	꿈이 없다	2.84 (0.50)	2.28 (0.58)	2.55 (0.46)	1.90 (0.72)
		막연하다	2.89 (0.47)	2.09 (0.50)	2.53 (0.39)	1.64 (0.56)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4 (0.51)	2.03 (0.54)	2.52 (0.41)	1.55 (0.58)
		F(Scheffe)	31.471*** (○)△, (○)×	15.919*** (○)△(×)	0.215	25.435***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자신을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별로 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전문형 양육태도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게서 2.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이 2.53점, 꿈이 없는 이들이 2.50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하였다. 허용형 양육태도도 전문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게서 2.59점, 꿈이 막연한 이들에게서 2.46점, 꿈이 없는 이들에게서 2.4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권위형과 무시형 양육태도는 꿈이 없는 집단에서 2.37점과 2.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집단(2.24점, 1.82점),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2.17점, 1.7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차이는 허용형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하지 않아, 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전문형 양육태도만이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막연한 집단 간 유의미하였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전문형 양육태도만이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3.04점), 꿈이 막연한 이들(2.89점), 꿈이 없는 이들(2.8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척도인 권위형과 허용형, 무시형 양육태도에서는 반대의 순, 곧 꿈이 없는 집단, 꿈이 막연한 집단, 꿈이 구체적인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에 있어 전문형과 권위형, 무시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허용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국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모두 전문형 양육태도는 꿈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허용형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비빈곤 집단에서는 전문형뿐만 아니라 권위형과 무시형도 유의미했으나,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전문형 외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대한 개입에 있어 부정적 양육태도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는 강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전문형 양육태도도 꿈이 있는 집단, 곧 꿈이 막연한 집단과 구체적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꿈이 없는 집단과

는 차이가 없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로는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경우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전문형 부모양육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2.80점)도 여타 유형의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보다 모두 부모가 애정을 표현하며 적절한 훈육을 함께 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 비록 부모의 전문형 양육태도 수준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만큼 높아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꿈을 꾸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수 있으며,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겠다.

8) 사회적 지지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71>와 같았다.

<표 71>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53(0.69)	10.938*** (○)△, ○)×)
		막연하다	2.72(0.57)	
		구체적인 꿈이 있다	2.99(0.66)	
	비빈곤	꿈이 없다	2.79(0.57)	63.068*** (○)△)×)
		막연하다	2.97(0.56)	
		구체적인 꿈이 있다	3.16(0.58)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72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53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3.16점)에서 가장 높고, 꿈이 막연한 집단(2.97점)에 이어 꿈이 없는 집단(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도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꿈과 관련한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이 없거나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9) 사회불평등인식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사회불평등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2>에서와 같다.

<표 72>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불평등인식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73(0.58)	1.867
		막연하다	2.84(0.44)	
		구체적인 꿈이 있다	2.73(0.53)	
	비빈곤	꿈이 없다	2.61(0.57)	18.971*** (○)△, ○)×)
		막연하다	2.63(0.4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50(0.55)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자신을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과 꿈이 없는 이들의 사회불평등인식이 2.73점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2.84점)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 사회불평등인식은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사회불평등인식이 꿈이 막연한 이들에게서 2.63점, 꿈

이 없는 이들에게서 2.61점,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게서 2.5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꿈이 없는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하였다.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 미래세대 간에는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사회가 보다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2.73점)조차도 어떤 유형의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보다 사회를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0)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주관적 경제수준별로 꿈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3>에서와 같다.

<표 73>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차이 분석

구분			M(SD)	F(Scheffe)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03(0.78)	6.625** (○)△)×)
		막연하다	2.40(0.74)	
		구체적인 꿈이 있다	2.55(0.79)	
	비빈곤	꿈이 없다	2.62(0.84)	27.895*** (○)△, ○)×)
		막연하다	2.66(0.6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85(0.72)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가능성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40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03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도 자존감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2.85점)에서 가장 높고, 꿈이 막연한 집단(2.66점)에 이어 꿈이 없는 집단(2.62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그 차이가 세 집단 간 모두 유의미

했으나,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만 유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자신의 계층이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을 더 낙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2.55점)조차도 어떤 유형의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보다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상승 가능성을 더 낮게 전망하였다.

11) 진로성숙도

주관적 경제수준과 꿈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4>에서와 같다.

<표 74>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자기이해	일 태도	독립성	계획성	전체	
주관적 경제 수준	빈 곤	꿈이 없다	2.20 (0.55)	2.72 (0.70)	2.93 (0.68)	2.53 (0.61)	2.59 (0.30)
		막연하다	2.54 (0.50)	2.95 (0.57)	3.16 (0.55)	2.84 (0.41)	2.87 (0.33)
		구체적인 꿈이 있다	3.05 (0.54)	3.18 (0.61)	3.33 (0.60)	3.10 (0.45)	3.17 (0.39)
		F(Scheffe)	54.136*** (○)△)×)	10.578*** (○)△, ○)×)	7.170** (○)×)	27.533*** (○)△)×)	45.602*** (○)△)×)
	비 빈 곤	꿈이 없다	2.44 (0.50)	2.67 (0.59)	2.92 (0.66)	2.69 (0.53)	2.68 (0.34)
		막연하다	2.74 (0.51)	3.02 (0.54)	3.08 (0.59)	2.88 (0.42)	2.93 (0.34)
		구체적인 꿈이 있다	3.20 (0.51)	3.29 (0.56)	3.30 (0.60)	3.14 (0.43)	3.23 (0.38)
		F(Scheffe)	382.981** * (○)△)×)	149.490*** (○)△)×)	64.048*** (○)△)×)	171.638** * (○)△)×)	336.308** *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자신을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의 진로성숙도가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이 2.87점, 꿈이 없는 이들이 2.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빈곤하지 않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진로성숙도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서 3.23점, 꿈이 막연한 이들에서 2.93점, 꿈이 없는 이들에서 2.68점 순이었다. 하위척도인 자기이해와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및 계획성에서도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 내에서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빈곤 집단 내에서 일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 독립성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없는 집단 간에만 유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3.17점)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3.23점)보다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으나, 다만 꿈이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2.93점)나 꿈이 없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2.68점)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이해와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에서도 같았으며, 다만 하위척도 중 독립성에 있어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과거 월드비전 아동 삶의 질 조사(2016)를 비롯한 연구 결과에서도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독립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아동의 내적 동기에 따른 자발적인 역량이기보다는 가족이나 외부에서 아동에 대해 충분한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12) 주관적 경제수준별 진로준비행동

주관적 경제수준별로 꿈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5>에서와 같다.

〈표 75〉 주관적 경제수준 및 꿈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분석

(단위: M/SD)

구분			진로탐색	정보수집	직업체험	취업준비	전체
주관적 경제수준	빈곤	꿈이 없다	2.09 (0.79)	2.39 (0.67)	2.06 (0.80)	2.11 (0.84)	2.14 (0.70)
		막연하다	2.21 (0.64)	2.59 (0.51)	2.20 (0.66)	2.22 (0.73)	2.28 (0.4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42 (0.69)	2.97 (0.60)	2.51 (0.77)	2.55 (0.79)	2.55 (0.55)
		F(Scheffe)	5.215** (○)△, ○)×)	23.836*** (○)△, ○)×)	9.019*** (○)△, ○)×)	8.391*** (○)△, ○)×)	13.387*** (○)△, ○)×)
	비빈곤	꿈이 없다	2.08 (0.64)	2.30 (0.62)	2.05 (0.70)	2.03 (0.76)	2.10 (0.59)
		막연하다	2.24 (0.57)	2.63 (0.51)	2.20 (0.67)	2.14 (0.72)	2.27 (0.49)
		구체적인 꿈이 있다	2.50 (0.66)	3.02 (0.58)	2.52 (0.74)	2.42 (0.82)	2.56 (0.55)
		F(Scheffe)	80.566*** (○)△)×)	252.120** * (○)△)×)	87.250*** (○)△)×)	54.235*** (○)△, ○)×)	132.954***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빈곤가정 미래세대 내에서, 진로준비행동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에서 2.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꿈이 있으나 막연한 집단에서 2.28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꿈이 없는 집단에서 2.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도 자존감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집단(2.56점)에서 가장 높고, 꿈이 막연한 집단(2.27점)에 이어 꿈이 없는 집단(2.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척도인 진로탐색과 정보수집, 직업체험, 취업준비에 있어서도 이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순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나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그 차이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꿈이 구체적인 이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두 집단 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서는 취업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척도들에서 세 집단 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준비는 진로준비행동의 4가지 하위척도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구직활동과 맞물리는 행동들이자 구체적

인 진로가 결정된 이후 가능한 영역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꿈이 없거나 막연한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서는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척도들인 진로탐색과 정보수집, 직업체험, 취업준비에서도 동일하였다.

5. 꿈이 자란다, 희망이 자란다: 빈곤가정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꿈은 미래세대,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행복이나 여러 발달산물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꿈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미래세대,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진로활동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의 참여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꿈 유무에 따른 진로활동별 도움정도

먼저 꿈 유무에 따라 각 진로활동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76>에서와 같았다.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은 꿈이 있고 구체적일수록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 중에서 인성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들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각 활동들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진로상담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수준은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서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꿈이 있지만 막연하다는 이들에서 3.00점이었고, 꿈이 없는 이들에서 2.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로체험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에서

〈표 76〉 꿈 유무에 따른 진로활동별 도움정도

(단위: M/SD)

구분		진로상담	진로체험	인성교육	사교육	문화예술	여가놀이
꿈 유무별	꿈이 없다	2.68 (0.94)	3.00 (0.91)	3.27 (0.64)	3.11 (0.90)	3.17 (0.93)	3.08 (0.66)
	막연하다	3.00 (0.92)	3.19 (0.82)	3.04 (0.85)	3.36 (0.96)	3.38 (0.93)	3.17 (0.89)
	구체적인 꿈이 있다	3.56 (0.96)	3.77 (0.96)	3.54 (1.04)	3.71 (0.97)	3.78 (0.95)	3.64 (1.04)
	F(Scheffe)	12.634*** (○)△, (○)×)	9.952*** (○)△, (○)×)	4.268* (○)△)	4.456* (○)△, (○)×)	4.527* (○)△)	4.583* (○)△)

1) 유의수준: ***: $p < .001$, **: $p < .01$, *: $p < .05$

2) ○: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꿈이 없다.

3.77점, 꿈이 막연한 이들에게서 3.18점, 꿈이 없는 이들에게서 3.00점 순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교육과 문화예술, 여가놀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성교육은 구체적인 꿈을 꾸는 이들에게서 3.54점으로 가장 높은 것을 같았으나, 다음으로 꿈이 없는 이들에게서 3.27점, 꿈이 막연한 이들에게서 3.04점 순이었다. 각 집단 간 차이에 있어 통계적인 유의도까지 고려한다면,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사교육은 꿈이 구체적인 이들과 나머지 집단들 간에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여가놀이는 꿈이 있는 집단, 곧 구체적인 꿈이 있는 이들과 꿈이 있지만 막연한 이들 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국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사교육은 꿈이 없는 이들도 꿈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반면,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여가놀이는 꿈이 있는 이들이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도움이 된다 하겠다. 다만 인성교육은 그 특성상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게 한다는 점에서 꿈이 없는 이들에게도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주지할 만 하다.

2) 진로활동 관련 참여기관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한 기관들을 종류별로 그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7>에서와 같다.

<표 77> 진로활동 관련 참여기관

		다중응답, (단위: 빈도(명))					
구분		학교	학원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타	종교시설
참여 기관	진로상담	218	8	27	16	7	5
	진로체험	135	12	38	11	9	0
	인성교육	124	2	11	6	3	8
	사교육	90	118	12	5	5	1
	문화예술	97	55	29	16	5	4
	여가놀이	67	12	44	17	16	8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기관에는 단연 학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방과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학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어 학교는 차순위인 공공기관이나 학원 등에 비해 그 참여 비중이 적게는 1.5배(여가놀이)에서 많게는 8.1배(진로상담)에 달하였다.

각 진로활동별로 참여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진로상담에서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원, 기타, 종교시설의 순이었고, 진로체험에서는 학교, 공공기관, 학원, 복지시설, 기타, 종교시설의 순이었다. 인성교육은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복지시설, 기타, 학원의 순이었고, 사교육은 학원,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복지시설,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은 학교, 학원,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타, 종교시설의 순이었고, 여가놀이는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타, 학원, 종교시설의 순이었다.

3)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각 진로활동별로 참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8>에서와 같다.

<표 78>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단위: M/SD)

구분			자기이해	일에대한태도	독립성	계획성	전체
참여 활동 경험	진로상담	예	2.71(0.60)	3.04(0.60)	3.23(0.59)	2.96(0.44)	2.98(0.40)
		아니오	2.68(0.57)	2.99(0.64)	3.19(0.60)	2.74(0.56)	2.90(0.40)
		t	0.329	0.713	0.555	3.505**	1.748
	진로체험	예	2.82(0.60)	3.15(0.61)	3.27(0.60)	3.01(0.46)	3.06(0.40)
		아니오	2.56(0.55)	2.89(0.59)	3.16(0.58)	2.77(0.48)	2.84(0.37)
		t	4.338***	4.051***	1.726	4.922***	5.308***
	인성교육	예	2.81(0.62)	3.13(0.61)	3.26(0.60)	3.03(0.44)	3.06(0.42)
		아니오	2.62(0.56)	2.96(0.60)	3.19(0.59)	2.81(0.49)	2.90(0.38)
		t	2.982**	2.704**	1.016	4.211***	3.772***
	사교육	예	2.76(0.63)	3.09(0.62)	3.27(0.58)	2.99(0.45)	3.03(0.41)
		아니오	2.61(0.52)	2.94(0.59)	3.15(0.61)	2.78(0.50)	2.87(0.37)
		t	2.376*	2.293*	1.829	4.055***	3.651***
	문화예술	예	2.83(0.62)	3.13(0.62)	3.28(0.57)	3.01(0.45)	3.06(0.42)
		아니오	2.56(0.53)	2.91(0.58)	3.15(0.61)	2.79(0.49)	2.85(0.35)
		t	4.443***	3.521***	2.052*	4.458***	5.152***
	여가놀이	예	2.83(0.61)	2.09(0.64)	3.25(0.59)	3.03(0.45)	3.05(0.42)
		아니오	2.61(0.56)	2.98(0.58)	3.19(0.60)	2.81(0.49)	2.90(0.37)
		t	3.645***	1.800	0.908	4.307***	3.584***

진로활동들 중에서 진로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사교육, 문화예술, 여가놀이 활동들에서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별, 그리고 하위 척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들만 살펴보면, 진로상담에 참여한 이들은 계획성에 있어서만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에서는 독립성을 제외한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 모두 참여한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는 인성교육과 사교육에서도 동일하였다. 여가놀이는 자기이해와 계획성에서만 참여한 집단이 더 높았으며, 특이하게 문화예술은 모든 하위척도에서 참여한 집단이 다 높게 나타났다.

4)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각 진로활동별로 참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9>에서와 같다.

<표 79> 활동별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단위: M/SD)

구분			진로탐색	정보수집	직업체험	취업준비	전체
참여 활동 경험	진로상담	예	2.33(0.68)	2.78(0.60)	2.34(0.73)	2.35(0.79)	2.41(0.55)
		아니오	2.06(0.64)	2.48(0.58)	2.12(0.69)	2.19(0.73)	2.16(0.54)
		t	3.394**	4.230***	2.554*	1.821	3.854***
	진로체험	예	2.35(0.71)	2.79(0.62)	2.36(0.78)	2.29(0.86)	2.42(0.60)
		아니오	2.14(0.63)	2.58(0.58)	2.17(0.64)	2.33(0.68)	2.26(0.50)
		t	2.966**	3.341**	2.693**	-0.526	2.647**
	인성교육	예	2.37(0.67)	2.81(0.61)	2.37(0.74)	2.27(0.81)	2.42(0.54)
		아니오	2.17(0.68)	2.62(0.60)	2.21(0.72)	2.33(0.75)	2.29(0.56)
		t	2.692**	2.843**	2.069*	-0.720	2.193*
	사교육	예	2.33(0.65)	2.78(0.59)	2.30(0.74)	2.33(0.79)	2.40(0.56)
		아니오	2.14(0.71)	2.58(0.62)	2.24(0.71)	2.28(0.77)	2.27(0.55)
		t	2.651**	3.034**	0.803	0.653	2.254*
	문화예술	예	2.34(0.67)	2.81(0.59)	2.37(0.71)	2.30(0.78)	2.42(0.54)
		아니오	2.16(0.68)	2.57(0.60)	2.18(0.73)	2.31(0.77)	2.26(0.57)
		t	2.587*	3.770***	2.601*	-0.117	2.643**
	여가놀이	예	2.37(0.65)	2.79(0.57)	2.43(0.75)	2.36(0.75)	2.44(0.55)
		아니오	2.17(0.69)	2.62(0.63)	2.17(0.69)	2.27(0.80)	2.29(0.56)
		t	2.737**	2.678**	3.381**	1.131	2.931**

모든 종류의 진로활동들은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별, 그리고 하위척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들만 살펴보면, 취업준비는 모든 활동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탐색과 정보수집, 직업체험은 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에서 참여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자들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척도 중 진로탐색과 정보수집에서만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척도 자체가 진로를 위한 활동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일견 당연한 결과로도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인성교육과 사교육, 문화예술, 여가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진로체험행동의 수준을 높이며, 특히 진로탐색과 정보수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빈곤가정 아동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정은, 장덕희(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질적조사 결과

이 장에서는 첫째, 나의 꿈, 나의 미래, 둘째,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들, 셋째, 꿈에 대한 계획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미래에 대한 탐색을 위해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한 질문과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자기 자신의 꿈

자기 자신의 미래의 꿈에 대한 탐색을 위해 “나의 미래에 대해 꾸고 있는 꿈이 있나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나요?, 나의 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의 미래에 대해 꾸고 있는 꿈이 있나요?

꿈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꿈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일반적(general)으로 나타났으며, ‘꿈이 없다’는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미래에 대해 꾸고 있는 꿈이 있나요?	꿈이 있다	일반적(26)	10	10	6	8	18
			100%	100%	60.0%	88.9%	85.7%
	꿈이 없다	변동적(4)	•	•	4	1	3
			0.0%	0.0%	40.0%	11.1%	14.3%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꿈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진학 후 학교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하려는 것과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꿈이 없는 이유로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꿈과 대학, 직업을 연결선상에 두었을 때 이들이 느끼는 혼란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을 저하시켜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꿈이 없다

사례23) 지금은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만한 창의력이 없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딸리는 것 같아서...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래서 고등학교 적응에 모든 걸 쏟아 붓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이란 꿈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6) 아..니요. 음.. 잘 하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힘들 것 같고 해서.

(2)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꿈은 ‘예체능계열, 의료계열, 교육계열, 요식계열, 공무원 및 군인, 자영업 및 기술, 법계열’ 등 범주 모두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은 야구선수, 디자이너, 방송작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료계열은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교육계열은 교사, 강사로 변동적(variant)에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예체능계열 (야구선수/디자이너/방송작가/가수/메이크업 아티스트)	변동적(8)	5	1	2	2	6
			50.0%	10.0%	28.6%	22.2%	33.3%
	의료계열 (의사/약사/응급구조사/간호사)	변동적(6)	2	1	3	•	6
			20.0%	10.0%	42.9%	0.0%	33.3%
	교육계열 (교사/강사)	변동적(5)	1	4	•	2	3
			10.0%	40.0%	0.0%	22.2%	16.7%
	요식계열 (요리사/푸드스타일리스트)	변동적(3)	1	2	•	2	1
			10.0%	20.0%	0.0%	22.2%	5.6%
	공무원 및 군인	변동적(2)	•	1	1	2	0
			0.0%	10.0%	14.3%	22.2%	0.0%
	자영업 및 기술 (식당/목공수)	변동적(2)	1	•	1	1	1
			10.0%	0.0%	14.3%	11.1%	5.6%
	법계열 (판사)	변동적(1)	•	1	•	•	1
			0.0%	10.0%	0.0%	0.0%	5.6%

아동청소년들의 꿈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예체능 계열과 의료 계열에서 뚜렷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중학생은 교육 계열과 요식 계열에서 선호도가 나타났다.

▪ 예체능계열

사례10) 예술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방을 꾸미거나 하면 꾸미는 걸 대체적으로 좋아하니까.. 의상 같은건 이렇게 코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옷을 만들거나 이런 것 보다는 방을 꾸미고 예쁘게 색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 의료계열

사례15) 저는 팀 닥터라고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축구선수들이 경기 중에 다치면 중간에 들어가서 치료해 주고 하는 사람ियो.

▪ 교육계열

사례8)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요 작년에 5학년 선생님이 잘해준 것이 기억에 남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 자영업 및 기술

사례30) 지금 제가 알바하고 있는 해물탕집 운영하는 거요.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하게 선호하는 분야는 예체능 계열 즉, 야구선수, 디자이너, 방송작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이고, 교육계열은 초등학교 교사, 체육교사, 다양한 분야의 강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의료 계열과 계열의 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두 계열의 학업기간과 성취시간이 비교적 길어서 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꿈을 이루어 가는 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장기적 계획 및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전형적 (typical)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이전, 고등학교’가 변동적 (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전형적(11)	3	6	2	1	10
			33.3%	60.0%	20.0%	11.1%	50.0%
	중학교	변동적(8)	•	4	4	4	4
			0.0%	40.0%	40.0%	44.4%	2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변동적(5)	5	•	•	3	2
			55.6%	0.0%	0.0%	33.3%	10.0%
	초등학교 이전	변동적(3)	1	•	2	•	3
			11.1%	0.0%	20.0%	0.0%	15.0%
	고등학교	변동적(2)	•	•	2	1	1
			0.0%	0.0%	20.0%	11.1%	5.0%

아동청소년이 꿈을 갖게 된 시기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고등학생 중에는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 주변인들로부터 이어진 칭찬과 격려가 자연스럽게 꿈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이전 시기나 초등학교시기에 꿈을 가지게 되는 아동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꿈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사례10)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사례12)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중학교

사례20) 오래는 안됐고 1년 안으로 그랬죠. 중 2학년 말.

▪ 초등학교 이전

사례27) 어릴 때부터 그냥 주변사람들이 다 재능 있는 것 같다고 해주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어릴 때 부터 막연하게 쪽....그냥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꿈을 갖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빈곤 아동청소년이 꿈을 갖게 된 시기가 비빈곤 아동청소년들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이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꿈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극하거나 지지하는 가족 또는 외부 환경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꿈을 갖게 만드는 주어진 정보보다 빈곤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보 탐색 및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사례14) 중학교 1학년 때.

사례26) 중학교 때요.

(4)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나요?

꿈을 꾸게 된 방법으로는 ‘직접 체험 후’가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모델링, 개인적 관심, 주변의 권유’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나요?	직접 체험 후	전형적(12)	6	3	3	4	8
			60.0%	27.3%	30.0%	44.4%	36.4%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으로	변동적(7)	2	3	2	2	5
			20.0%	27.3%	20.0%	22.2%	22.7%
	모델링	변동적(6)	2	3	1	1	5
			20.0%	27.3%	10.0%	11.1%	22.7%
	개인적 관심으로	변동적(4)	•	2	2	1	3
			0.0%	18.2%	20.0%	11.1%	13.6%
	주변의 권유로	변동적(2)	•	•	2	1	1
			0.0%	0.0%	20.0%	11.1%	4.5%

초등학생은 ‘개인적 관심’으로 꿈을 꾸게 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매체를 통해 접하거나 모델링 또는 직접적인 체험을 한 후 그것이 꿈으로 연결됨을 나타낸다.

사례3) 티비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후라이팬으로 볶는 듯이 이렇게 후라이팬을 들면서 흔드는 거 보고요.

사례5) 미술하고 그림그리거나 그런 것을 좋아해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중학생들은 초등학생과 같은 이유인 ‘직접 체험, 매체, 모델링’으로 꿈을 꾸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관심’으로 꿈을 꾸게 된 경우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11)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선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가르쳐보자 해서요

고등학생들은 꿈을 갖게 된 계기로 초·중학교와는 다른 응답으로 ‘주변의 권유’를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주변인

들의 의도와 욕구를 그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의 영향력은 빈곤 아동청소년들에는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꿈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례22) 음 중학교 때 예고를 가려다가 돈 때문에 못가가지고 그거 생각하다 공무원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공무원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역할 모델을 경험할 때 그들을 동일시하고 꿈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과 긍정적인 면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선생님에 대해 모델링하는 것으로 매일 만나는 존재가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선생님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비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담임선생님 이외에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상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부모가 보여주는 모델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례8) 학교 다니는 것. 선생님을 맨날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도 안 접해보고 아무것도 안 접해봤으면 아예 아무 것도 꿈이 없었을 거예요.

(5) 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나요?

아동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꾸게 된 이유로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

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속, 안정감 추구'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나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형적(11)	6	5	•	4	7
			60.0%	35.7%	0.0%	33.3%	31.8%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동적(8)	•	5	3	2	6
			0.0%	35.7%	30.0%	16.7%	27.3%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동적(7)	3	3	1	2	5
			30.0%	21.4%	10.0%	16.7%	22.7%
	가족을 위해	변동적(3)	1	1	1	1	2
			10.0%	7.1%	10.0%	8.3%	9.1%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속됨	변동적(3)	•	•	3	1	2
			0.0%	0.0%	30.0%	8.3%	9.1%
	안정감 추구	변동적(2)	•	•	2	2	•
			0.0%	0.0%	20.0%	16.7%	0.0%

아동청소년들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서로 구분하여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며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중학생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고등학생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응답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례1) 뭔가 너무 신나요. (중략) 맨날 좋아하는 야구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돈 받고 즐거운 것 하니까

사례8)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선생님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좀 더 큰 것 같았어요. (중략) 선생님이 잘 해준 것이 기억나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생들은 꿈을 꾸게 된 이유 중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과 달리 좀 더 자신의 꿈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탐색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 충분한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14) 어렸을 때 내가 가르치는 것 좋아하나 싶었거든요. (중략) 그런데 3D프린터는 뭔가 더 자신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꿈을 꾸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속됨,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은 초·중학생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이는 꿈을 직업과 생계로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꿈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결핍된 부분이 꿈을 꾸게 하는 에너지로 활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22)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금보장 되어있고..

사례27)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러다보니까 되던데요.

교사가 꿈인 아동청소년 중 빈곤 아동청소년과 비빈곤 아동청소년의 이야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 아동청소년은 모델링이 된 선생님처럼 자신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사례8) 초등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재밌고요 작년에 5학년 선생님이 잘해준 것이 기억에 남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반면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직접 자신이 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사례11) 체육교사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선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가르쳐 보자 해서요

또한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꿈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꿈을 직업과 연결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꿈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2) 공부라든가 진로체험이나 하면은 놀이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배우다시피 하는데 요리는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요리 하는 게 저하고 잘 맞았고 재밌었어요.

사례22)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금보장 되어있고 무엇보다 정부 밑에 있으니까 찢릴 위험이 거의 없잖아요.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 모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사례19)은 다양한 분야에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자신이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빈곤 아동청소년(사례14)은 학업 등이 어려울 것 같음을 피해 다른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였다.

사례19) 체육강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체육을 많이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체육과목도 있으니까 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디자이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서 예전부터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운동이랑 계속 헛갈려서 고민을 하던 중에 중2 올라와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례14) 선생님을 생각해본 적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또 선생님을 하기에는 공부가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3D프린터는 뭔가 더 재

미있을 것 같아요.

(6) 나의 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꿈이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흥미의 변화, 부모님 및 주변의 영향, 성적 및 현실 인식’ 등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난 결과 중에서도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자존감, 매체,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두려움, 정보 탐색 후’가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꿈이 ‘바뀌지 않음’ 학생도 변동적(variant)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흥미의 변화	변동적(8)	5	1	2	2	6
			45.5%	9.1%	20.0%	20.0%	27.3%
	부모님 및 주변의 영향	변동적(7)	2	4	1	2	5
			18.2%	36.4%	10.0%	20.0%	22.7%
	성적 및 현실 인식	변동적(6)	•	•	6	2	4
			0.0%	0.0%	60.0%	20.0%	18.2%
	낮은 자존감으로	변동적(3)	1	2	•	1	2
			9.1%	18.2%	0.0%	10.0%	9.1%
	매체 영향으로	변동적(3)	•	3	•	1	2
			0.0%	27.3%	0.0%	10.0%	9.1%
	바뀌지 않음	변동적(3)	2	•	1	1	2
			18.2%	0.0%	10.0%	10.0%	9.1%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두려움	변동적(1)	1	•	•	•	1
			9.1%	0.0%	0.0%	0.0%	4.5%
	정보 탐색 후	변동적(1)	•	1	•	1	•
			0.0%	9.1%	0.0%	10.0%	0.0%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이 꿈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흥미의 변화’로 인한 꿈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흥미’는 ‘관심’과 밀접하다. 이들은 주로 유행하는 매체에 대한 흥미가 있으며,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꿈이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 비교적 적은 사례지만 또한 이들은 자신의 꿈이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가 있었다. 꿈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꿈은 곧 직업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3) 유니폼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도둑도 잡을 수 있어서 경찰
관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미술선생님, 또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
사요.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요리사는 그대로요.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고 그래서 자주 바뀌었어요.

사례10) 선생님, 요리사..계속 재능을 찾다가 미래에 없어질 직업 이런 걸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커서.. 내가 꿈꾸고 있는데 미래에 이런 직업이 없어
지면 어떡하지 싶고, 선생님이랑 요리사는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어
서 포기하고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중학생들의 꿈이 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님 및 주변의 영
향’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꿈에 관련해서 부모님과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는 등의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였다.

사례13) 예전에 좀 어릴 때는 만화 같은 거 보면서 파티쉐 이런 꿈도 껴
보고 다들 낀다는 가수 이런 꿈도 껴보고 (중략) 부모님이 사실 제 꿈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신 편이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라 이런 마인
드여서...

특히 ‘성적 및 현실 인식’을 이유로 응답한 고등학생들은 지속되어온 성적
의 누적과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는 갈림길에서 자신이 꾸고 있는 꿈과 현재
처해진 나의 상황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28) 그 전에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교사가 꿈이었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에는 한 선생님만 가르쳐 주

시잖아요. (중략) 중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제 의지로는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 잘 해야 하고, 공부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포기할 때가 많았어요. 꿈같은 것들을...

(7)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형적(typical)으로, ‘이룰 수 없다, 반반이다’는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룰 수 있다.’ 라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룰 수 있다	전형적(23)	9	7	7	7	16
			90.0%	70.0%	70.0%	77.8%	76.2%
	이룰 수 없다	변동적(6)	1	2	3	2	4
			10.0%	20.0%	30.0%	22.2%	19.0%
	반반이다	변동적(1)	•	1	•	•	1
			0.0%	10.0%	0.0%	0.0%	4.8%

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초등학생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자신의 노력이 있으면 꿈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사례4)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좀 더 꿈 성공에 다가갈 수 있어요

사례8)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같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한 정보부족과 아직 혼하지 않는 분야라 대학교에 해당하는 과가 많이 없어서 불가능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사례16) 대학교도 과가 많이 없기도 하고 약간 좀 혼한 직업이 아니라서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는 중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관련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학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에 대한 욕구와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교육과 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꿈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학원에서의 공부를 하는 것의 여부가 중요함을 표현하였으며,

사례 6) 공부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푸는 책 표지에 보니까 중2 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례 15) 제가 학교생활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고.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숙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숙됨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변의 지지자, 경제적 뒷받침의 부재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 8)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례 30) 제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은 ‘경험 쌓기, 성적 관리하기’가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수집하기, 노력하지 않음, 꿈에 대한 강한 의지, 스펙 쌓기’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경험 쌓기	전형적(12)	4	5	3	4	8
			40.0%	35.7%	33.3%	36.4%	36.4%
	성적 관리하기	전형적(10)	2	4	4	4	6
			20.0%	28.6%	44.4%	36.4%	27.3%
	정보 수집하기	변동적(4)	1	2	1	•	4
			10.0%	14.3%	11.1%	0.0%	18.2%
	노력하지 않음	변동적(4)	1	2	1	3	1
			10.0%	14.3%	11.1%	27.3%	4.5%
	꿈에 대한 강한 의지	변동적(2)	2	•	•	•	2
			20.0%	0.0%	0.0%	0.0%	9.1%
	스펙 쌓기	변동적(1)	•	1	•	•	1
			0.0%	7.1%	0.0%	0.0%	4.5%

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꿈을 막연하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꿈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도가 강할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도 구체적이며 또한 꿈에 대하여 관리가 되고 있었다.

초·중·고등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고, 성적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선택하고 있음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경험과 실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찾는 것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경험 쌓기

사례10) 방을 꾸미고 싶어서 재료를 사서 방에 꾸미고.. 책상 같은 것도 꾸미고..(중략) 제가 집에서 계속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고 즉석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줄로 연결해서 집게로 집어 놔서 달아놓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사례12) 일단은 제가 저희 집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요리를 하고 동아리도 요리 쪽으로 신청하고 방과 후도 요리 쪽으로 신청해봤거든요.

▪ 성적 관리하기

사례8)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엄마가 말해서.. 자기 할 일 그 나이에 알맞은 할 일을 하는 건데 지금은 공부하구요.

사례27) 지금은 일단 학업에 충실하고 있어요. 일단 언제라도 그 노력하면은 실력은 기를 수 있고요, 딱히 지금이 아니라도. 지금은 좀 학업을 길러서 약간 그 쪽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예요.

꿈에 관련된 노력에서 빠지지 않고 응답되는 내용으로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편중된 교육의 모습과 사회의 요구가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적 생각과 삶의 방향성을 찾는데 있어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꿈 관련 분야의 책을 구입해 두었지만 공부하는 것으로 실천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함께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외부 환경, 특히 가족 환경이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3) 요리책도 조금 사봤는데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어졌어요. 계속 놓고 그래서...

또한 초등학생들은 꿈에 대한 방향성을 일찍 정한 경우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좀 더 일찍 지원되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꿈에 대한 강한 의지

사례1)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완전 조르고 매일 야구하고.. 또 야구부 되게 기도도 하고요. 학교에 야구부 있으면 아버지가 하게 해준대요 주변학교에는 있는데 우리학교에는 없어요.

중학생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응답을 하였으나 꿈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다른 교급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아직 꿈에 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현실을 실감하며 자신의 의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과도기의 모습으로 자신의 의지에 관한 인식을 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노력으로 보여 지고 경험이나 스스로 탐색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빈도가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정서적 무기력이나 해도 될 수 없다는 사회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지가 제공되어 함을 나타낸다.

▪ 노력하지 않음

사례26) 그건 하고 싶은데... 좀 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하게 ‘경험쌓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오디션, 학원 등의 가정의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는 가정 외 다양한 체험들을 이야기하였으며,

사례 24) 계속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원도 다녀서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배워보고 그렇게 했어요.

빈곤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경험에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5) 그림을 많이 연습하고.

사례 12) 일단은 제가 저희 집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요리를 하고.

2) 나의 미래

나의 미래에 대한 탐색을 위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살아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나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나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동청소년들의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믿음직한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한 나를 기대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신의 삶으로 집중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전형적(10)	4	5	1	2	8
			36.4%	41.7%	11.1%	20.0%	36.4%
	인정받는 사람	전형적(10)	4	3	3	5	5
			36.4%	25.0%	33.3%	50.0%	22.7%
	믿음직한 사람	변동적(5)	3	2	•	•	5
			27.3%	16.7%	0.0%	0.0%	22.7%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변동적(5)	•	•	5	2	3
			0.0%	0.0%	55.6%	20.0%	13.6%
	피해주지 않는 사람	변동적(1)	•	1	•	1	•
			0.0%	8.3%	0.0%	10.0%	0.0%
	존중받는 사람	변동적(1)	•	1	•	•	1
			0.0%	8.3%	0.0%	0.0%	4.5%

초·중·고등학생들은 타인을 돕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빈곤가정의 학생들은 타인을 돕는 것에 응답의 빈도가 미흡한 반면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빈도가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낮추고 있으며 인정이 주는 부수적 이익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사례4)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 같은 것 주면 딴 사람도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 같은 거요.

사례14) 남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성공 하면 저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사례23) 나는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요. 내 힘을 나쁜 데 쓰지 않고 좋은데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 인정받는 사람

사례8)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यो.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당당하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하고 소리를 듣는 사람ियो. 열심히 살고 내 직업에서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주변 도와주고

사례15)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 그 쪽 일에서 조금 높은 쪽에 있거나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과반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으로 볼 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경제력에 대한 안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꿈의 성취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례26) 돈 버는 사람..음..좋아하는 일하면서

사례27) 좀 일에 쫓기면서 살고 싶진 않고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음을 표현하였고, 고등학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음을 표현하였다. 아동청소년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성공을 함께 나누며 기쁨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빈곤한 환경에서도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며 꿈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사례14)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면 저도 같이 한 것 같은데.

또한 이들은 ‘인정’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인정’은 지위와 명예와 관련하여 표현하였으며,

사례15) 그 쪽 일에서 조금 높은 쪽이 있거나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인정’은 성실함을 가치로 내세우며 표현하여, 서로 다른 ‘인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8)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당당하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 이야 하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요. 열심히 살고... 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주변 도와주고.

(2) 내가 살아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들의 내가 살아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은 ‘나의 주변 사람들(가족/친구)’이 전형적(typical)으로, ‘긍정적 사고방식과 노력, 경제력, 신뢰, 자신감, 신앙, 사회 규범 지키기, 스스로의 만족감과 행복’ 등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 자신의 내면의 중요성부터 사람과의 관계, 경제력, 신앙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소중함은 초·중·고등학생 전 연령에서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와 가족, 노력, 신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와 가족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폰이라 응답한 한 초등학생은 현재 자신

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하였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가 살아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주변 사람들(가족/친구)	전형적(11)	4	2	5	2	9
			30.8%	20.0%	45.5%	20.0%	37.5%
	긍정적 사고방식과 노력	변동적(6)	2	•	4	2	4
			15.4%	0.0%	36.4%	20.0%	16.7%
	경제적 능력	변동적(4)	3	•	1	2	2
			23.1%	0.0%	9.1%	20.0%	8.3%
	신뢰(믿음/명예/약속)	변동적(4)	•	4	•	2	2
			0.0%	40.0%	0.0%	20.0%	8.3%
	자신감	변동적(4)	•	3	1	1	3
			0.0%	30.0%	9.1%	10.0%	12.5%
	신앙	변동적(2)	2	•	•	•	2
			15.4%	0.0%	0.0%	0.0%	8.3%
	배려하기	변동적(2)	1	1	•	•	2
			7.7%	10.0%	0.0%	0.0%	8.3%
	스마트폰	변동적(1)	1	•	•	1	•
			7.7%	0.0%	0.0%	10.0%	0.0%

사례9) 친구나 부모님이요. 친구나 부모님이 있으면 충고도 해 줄 수 있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줄 수 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보인 주변사람에 대한 중요성보다 고등학생들이 주변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시와 취업에 대해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 혼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며 주변사람의 도움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23) 부모님 그리고 누나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또 삶의 목표는 그냥 운동을 해서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례30) 친구요 친구가 없으면 나 혼자 살아서 외로울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중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신뢰, 믿음, 자신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중학생의 발달기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끝없는 혼란, 정체성 형성 등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자신을 정의내리고, 찾고자 내면을 보는 시기이기도 하며, 외부의 영향력에 힘없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례14) 믿음. 학교에서도 계단 올라가다 보면 믿음은 유리라고 했거든요. 한번 깨지면 못 돌려놓는다고. 그래서 평소 보이는 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싶어요.

사례11) 뭐 일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거기에 일을 시도하려는 기회도 나오고 노력도 할 수 있고, 삶은 노력하는 만큼 보답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냥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노력을 하면 그 만큼 돌아오는 게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이었으며, 서로가 믿음, 약속 위에 형성된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빈곤 아동청소년 중 한 명이 자신감에 대해 응답한 것은 자신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18) 없을 수 없는 건 없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이를 수 없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앞 사례18의 이야기의 의미는 아무리 현실성이 없어도 0%는 없으며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가능성은 있다는 것과 이를 수 없는 목표라서 더 도전하고

싶어진다는 의미를 덧붙여 표현하였다. 이 두 가지의 명언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꿈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여 지는 내면의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격려, 어머니의 조언,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조부모의 부모역할로서 주는 지지가 아닐까한다. 조손가정의 빈곤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지지와 격려, 학교, 학원에서 모델링이 되는 교사 등 가족과 사회라는 외부환경이 형성되어 상호교환 될 때 이들은 꿈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후 사례18의 학생이 00항공과학 고등학교에 최종 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정형편으로 중2때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직업군인으로 새로운 꿈을 계획하여 도전하였으며, 마침내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간절한 마음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함께 응원하겠다는 믿음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소식에 본 연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빈곤가정 학생들은 경제적 능력과 신뢰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응답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사례5) 가족과 친구와 돈요. 가족과 친구는 나와 대화도 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 돈은 있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26) 돈...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배우니까.

(3) 나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나요?

나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행복하게 살기’가 전형적(typical)으로, ‘걱정 없이 살기, 자유롭게, 경제적 능력 있

게 살기, 가족을 위해 살기, 바르고 도덕적이게 살기’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나요?	행복하게 살기	전형적(13)	5	5	3	4	9
			50.0%	45.5%	30.0%	40.0%	42.9%
	걱정 없이 살기	변동적(7)	1	1	5	2	5
			10.0%	9.1%	50.0%	20.0%	23.8%
	주관적이고 자유롭기	변동적(5)	1	3	1	1	4
			10.0%	27.3%	10.0%	10.0%	19.0%
	경제적 능력 있게 살기	변동적(3)	2	1	•	2	1
			20.0%	9.1%	0.0%	20.0%	4.8%
	가족을 위해 살기	변동적(2)	•	1	1	1	1
			0.0%	9.1%	10.0%	10.0%	4.8%
	바르고 도덕적이게 살기	변동적(1)	1	•	•	•	1
			10.0%	0.0%	0.0%	0.0%	4.8%

아동청소년들은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부모님 삶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여 진다. 인생에 대한 바람으로 정서적 안정감에 대하여 응답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일부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행복하게 살기

사례9)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맨날 음, 막 우울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좀 즐겁고 내가 우울하진 않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례30) 제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딴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고 안 찡그러지고 밝아지면 좋겠어요.

중학생들은 ‘주관적이고 자유롭게 삶’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기적 변화가 주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주관적이고 자유롭게

사례12) 저는 제 인생이 타인한테 안 휘둘리고 제가 가고 싶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중략) 제가 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선택지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초·중학생의 일부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꼽은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으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욕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적 능력 있게 살기

사례8) 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내 방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티비에 나오는 굿네이버스처럼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에는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가족의 결속력이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집단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부모자녀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을 위해 살기

사례23) 잘되길 바라요. 뭐든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하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가족을 지키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죠.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지만 내포된 의미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주변인들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복을 이야기하였으며,

사례2) 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례17) 행복하길 바라요. 돈, 명예, 존경을 받으면 좋겠어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주변인들과 함께 행복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8) 나중에 제가 힘들더라도 제 가족들이나 저 하나 힘듦으로 해서 제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살고, 그걸 보는 것도 행복하니까요 원래.

(4)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아동청소년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으며, 스스로가 유명해지는 직업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동적(variant) 빈도로 나타난 ‘안정적인 직업’에는 초등학생들의 응답이 한 사례도 없었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	전형적(14)	6	5	3	3	11
			54.5%	50.0%	33.3%	33.3%	52.4%
	안정적인 직업	변동적(7)	•	1	6	4	3
			0.0%	10.0%	66.7%	44.4%	14.3%
	전문성 있는 직업	변동적(7)	3	4	•	2	5
			27.3%	40.0%	0.0%	22.2%	23.8%
	유명해지는 직업	변동적(1)	1	•	•	•	1
			9.1%	0.0%	0.0%	0.0%	4.8%
	모르겠다	변동적(1)	1	•	•	•	1
			9.1%	0.0%	0.0%	0.0%	4.8%

초·중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례8)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잘 되서 행복하게 살면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요.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표현한 중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응답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이타적인 직업에서 개인의 역량에 집중되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11) 항상 가르칠 때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못하더라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언해주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대답한 초·중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의 의미는 경제적인 안정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초등학생들의 응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27) 돈 걱정 없이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가 된 현대에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꿈과 능력에 관계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길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의 생계와 평안을 위하여 꿈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쉽게 낙

답하지 않으며 새로운 꿈의 길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8) 일단 가족들이랑 잘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공무원이거든요.(중략) 안정적인 걸 바라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만약에 내가 가족들 생각 안하고 했으면 가난하더라도 작가 같은 꿈을 꾼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 꿈을 꾼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5) 나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 대학원, 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대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응답하여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고등학교, 전문대학’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도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대학교	전형적 (19)	6	5	8	3	16
			60.0%	50.0%	80.0%	33.3%	76.2%
	대학원	변동적 (7)	4	2	1	2	5
			40.0%	20.0%	10.0%	22.2%	23.8%
	고등학교	변동적 (3)	•	2	1	3	•
			0.0%	20.0%	10.0%	33.3%	0.0%
	전문대학	변동적 (1)	•	1	•	1	•
			0.0%	10.0%	0.0%	11.1%	0.0%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받고 싶은 교육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력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그 이상의 대학원 과정이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받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 대학교

사례1) 대학교요 야구는 거의 다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면 하는데 대학교까지는 야구를 배우고 하고 싶어요. 다른 선수의 약점도 알 수 있고 고등학교 때 몰랐던 것 대학교 때 배울 수도 있으니까

사례16) 저는 대학교 마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교육은 다른 기관에서 받고 직장 구했으면 좋겠어요. 푸드스타일리스트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보다는 대학교까지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 대학원

사례5) 대학원요. 대학교를 끝내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가질려고...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은 전원 빈곤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꿈과 가정의 형편을 연결하여 고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꿈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12)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받고 싶어요. 되면 대학까지 다니고 싶긴 한데 집안사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학을 좀 늦게 가거나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예 취직 쪽으로 가야 되니까

2. 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탐색을 위해 내 꿈의 출발, 롤모델, 부모의 기대에 대한 질문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1) 내 꿈의 출발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위해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했나요?,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장애를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갔나요?, 꿈꾸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했나요?

아동청소년의 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은 ‘스스로’가 일반적(general)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함께, 주변의 도움’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했나요?	스스로	일반적 (25)	9	10	6	7	18
			90.0%	90.9%	54.5%	70.0%	81.8%
	부모님과 함께	변동적 (4)	•	1	3	2	2
			0.0%	9.1%	27.3%	20.0%	9.1%
	주변의 도움	변동적 (3)	1	•	2	1	2
			10.0%	0.0%	18.2%	10.0%	9.1%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결정하게 된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꿈을 꾸는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 깊이 있는 꿈의 탐색이 어려우며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례9) 친구들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 해서 친구와 스스로에게서 정했어요.

사례19) 스스로 결정했죠. 고민하면서.

고등학생들은 꿈을 결정할 때 초·중학생에 비해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바로 앞에 둔 이들로써 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의 격려와 전문적인 조언, 정보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인다.

사례28) 저는 일단 처음에는 부모님 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담임 선생님께서도 괜찮을 것 같다고..(중략)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정하게 됐어요.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결정하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꿈을 실현하며 지내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꿈을 꾸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우선되어 선택하기보다 스스로를 꿈 꿀만한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2)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흥미 및 경험, 매체, 모델링, 현실적인 조건, 신앙’ 등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변 사람들(부모님/선생님/친구)	전형적 (12)	2	6	4	4	8
			22.2%	60.0%	44.4%	44.4%	42.1%
	흥미 및 경험	변동적 (6)	2	1	3	2	4
			22.2%	10.0%	33.3%	22.2%	21.1%
	매체	변동적 (3)	•	3	•	1	2
			0.0%	30.0%	0.0%	11.1%	10.5%
	모델링	변동적 (3)	3	•	•	1	2
			33.3%	0.0%	0.0%	11.1%	10.5%
	현실적인 조건	변동적 (3)	1	•	2	1	2
			11.1%	0.0%	22.2%	11.1%	10.5%
	신앙	변동적 (1)	1	•	•	•	1
			11.1%	0.0%	0.0%	0.0%	5.3%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는 달리 꿈을 꾸는데 ‘모델링’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주변에 모델링으로 적합한 인적 자원의 존재 여부만으로도 꿈을 꾸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빈곤 아동들에게 모델링이 되는 인적 자원은 직접적, 간접적 경험에 상관없이 꿈을 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수지만 ‘현실적인 조건’ 또한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 돈이요 돈. 야구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 같아서요. 형도 원래 야구선수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해가지고..

사례8) 학교 다니는 것. 선생님을 맨날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도 안 접해보고 아무것도 안 접해봤으면 아예 아무 것도 꿈이 없었을 거예요.

중학생들은 꿈을 꾸는데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주된 영향을 미쳤으며,

사례11) 학교, 학원에는 제 꿈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사례15)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있고,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고
아빠도 의료 쪽에 있으시고.

고등학생들은 ‘주변 사람들, 자신들의 흥미 및 경험, 현실적인 조건’ 등이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연계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28) 언니가 아파서 실려 간 적이 있었는데 응급구조사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중략) 이런 것도 응급구조사가 오셔서 한다는 경험자체가 멋있
었어요.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을 동일하게 꼽았다. 그러나 그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변사람들’은 부모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사례21) 저는 아버지 옆에서 본 것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히 멋있
다고 생각했는데 저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
고 그래서 아버지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주변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들로 표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4) 말이 너무 없어서 또래상담반으로 상담실 갔단 말이에요.(중략)
그러면서 상담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그게 계
기가 된 것 같아요.

사례30) 친구들, 친구들이 좀 조언을 많이 해줘요.

(3)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은 ‘부모님, 실제 경험’이 전형적(typical)이며, ‘선생님, 스스로의 의지 및 생각, 주변의 관심과 칭찬, 꿈과 관련한 매체’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전형적 (16)	7	6	3	3	13
			63.6%	31.6%	25.0%	23.1%	44.8%
	실제 경험	전형적 (10)	2	7	1	4	6
			18.2%	36.8%	8.3%	30.8%	20.7%
	선생님	변동적 (6)	2	3	1	3	3
			18.2%	15.8%	8.3%	23.1%	10.3%
	스스로의 의지 및 생각	변동적 (4)	•	•	4	2	2
			0.0%	0.0%	33.3%	15.4%	6.9%
	주변의 관심과 칭찬	변동적 (4)	•	1	3	•	4
			0.0%	5.3%	25.0%	0.0%	13.8%
	꿈 관련 매체	변동적 (2)	•	2	•	1	1
			0.0%	10.5%	0.0%	7.7%	3.4%

아동청소년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꿈을 이루어 가는데 부모님의 지지와 꿈과 관련한 실제 경험, 선생님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부모님의 지지와 조언, 격려 등과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의 조언과 격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이들에게 큰 자원과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6) 부모님께서 학원 보내주세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사례8) 5학년 선생님, 엄마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항상 칭찬 해줘요

사례17) 부모님이요 좋은 성적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이 시험이 네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셨어요.

고등학생들은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에서 ‘스스로의 의지 및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꿈에 관련하여 주변 환경의 지지 여부보다 자신의 내적인 힘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학생들이 응답한 ‘자신의 의지’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례28) 제가 찾아보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누가 얘기해 준 건 옛날일이거나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보고 거기다가 뭐 물어보기도 물어보면 그게 제일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준 것 보다 자기 스스로 직접 찾아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빈곤 아동청소년들 또한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실제 경험을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지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얻어지는 것을 더 믿고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꿈을 꾸는데 있어 ‘주변의 관심과 칭찬’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없었다. 개인의 직접 경험을 도움으로 인식한 응답과는 다르게 주변의 관심과 칭찬에 관한 도움이 무응답으로 나온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지의 차원이 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지와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중학생은 질문에 한참의 시간을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례18) 도움을 주는 것들.. 어..확실히 꿈을 꾸기는 하는데 그게 가끔씩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저를 좀 도와주는 것이 일단은 학원에 있는 군인 잡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멋있구나 하고, 영화 같은 거 전쟁영화 (중략)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영화나 잡지는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

나 관심이나 칭찬을 해주지는 못한다. 다양한 자원 들 중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공부 및 성적과 방해가 되는 것이 없다’가 전형적(typical)으로, ‘경제력 및 배경, 혼란스러움, 게임, 건강’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 및 성적	전형적 (10)	3	5	2	3	7
			27.3%	50.0%	22.2%	30.0%	35.0%
	방해 되는 것이 없다	전형적 (10)	3	3	4	4	6
			27.3%	30.0%	44.4%	40.0%	30.0%
	경제력 및 배경	변동적 (4)	2	•	2	2	2
			18.2%	0.0%	22.2%	20.0%	10.0%
	혼란스러움	변동적 (3)	1	1	1	1	2
			9.1%	10.0%	11.1%	10.0%	10.0%
	게임	변동적 (2)	2	•	•	•	2
			18.2%	0.0%	0.0%	0.0%	10.0%
	건강	변동적 (1)	•	1	•	•	1
			0.0%	10.0%	0.0%	0.0%	5.0%

초등학생, 중학생들 다수와 고등학생들 소수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공부와 성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꿈을 이루는 우선되는 기본 단위를 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있어도 스스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사례12) 어른들은 전부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오냐오냐 해주시는데 하다보면 제가 뭐 공부 성적이 좀 안된다든가 그러면... 제가 스스로 공부를 너무 못한다든가 그것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21)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게 제일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딱히 상관이 없는데...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여 ‘방해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꿈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축시키는 현실과 아동청소년들의 부족한 의지, 무관심 등이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11) 딱히 방해 된 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또한 이들은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경제력 및 배경’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나의 노력과 성적의 결과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느끼고 있음이다.

사례8) 대학교 등록금.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못 갈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장애를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해나갔나요?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를 극복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노력’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극복한 것이 없다, 대화 및 설득, 긍정적 생각과 격려, 전문가의 조언’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의 극복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양한 노력이란 ‘참으며 책을 읽는 것’ 등의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과 게임을 줄이고, 공부에 더 집중하여 성적을 올림으로써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장애를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다양한 노력	전형적(16)	6	5	5	6	10
			60.0%	55.6%	50.0%	75.0%	47.6%
	없다	변동적(7)	3	1	3	2	5
			30.0%	11.1%	30.0%	25.0%	23.8%
	대화 및 설득	변동적(3)	•	2	1	•	3
			0.0%	22.2%	10.0%	0.0%	14.3%
	긍정적 생각과 격려	변동적(2)	1	1	•	•	2
			10.0%	11.1%	0.0%	0.0%	9.5%
	꿈분야 전문가의 조언	변동적(1)	•	•	1	•	1
			0.0%	0.0%	10.0%	0.0%	4.8%

사례3) 참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다 참으면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사례12) 제가 성적이 처음에 수학을 치면서 안 좋게 나온 거예요.(중략)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성적 30점정도 올랐어요.

특히 고등학생은 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으로 극복하겠다는 방법을 생각함으로써 초·중학생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사례28) 그 전문직업인한테 응급구조사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친구 분이 응급구조사인데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잘 견디고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니까 잘 견디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향한 길에서 방해의 요소가 나타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음, 수업에 집중, 도움요청,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 및 설득을 한다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는 넓은 범위에서의 대처방법이라기보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계를 짓고 있었다.

(6) 꿈꾸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꿈꾸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평하지 않다’와 ‘공평하다’가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지만, ‘공평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평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정보의 부족,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 외모와 연령의 차별, 부모의 배경’ 등을 이야기 하였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꿈꾸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공평하지 않다.	경제적 환경	전형적 (18)	3	7	3	6	7
				30.0%	63.6%	30.0%	66.7%	31.8%
		정보의 부족		•	1	•	•	1
				0.0%	9.1%	0.0%	0.0%	4.5%
		성적으로만 보는 것		•	1	1	•	2
				0.0%	9.1%	10.0%	0.0%	9.1%
		외모와 연령차별		•	1	•	•	1
				0.0%	9.1%	0.0%	0.0%	4.5%
	부모의 배경	•		•	2	•	2	
		0.0%		0.0%	20.0%	0.0%	9.1%	
	공평하다		전형적 (11)	6	1	4	2	9
				60.0%	9.1%	40.0%	22.2%	40.9%
	잘 모르겠다		변동적 (1)	1	•	•	1	•
				10.0%	0.0%	0.0%	11.1%	0.0%

꿈을 꾸기에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은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였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나 걸림돌, 차별, 불이익이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이다.

사례4) 사람들이 환경은 다르지만 자신이 옛날의 위인들처럼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도 큰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꿈꾸기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부모의 배경, 경제적 환경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일부 일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4) 자기 집이 만약에 가난해요. 엄청 가난하다 치면 (중략) 만약 꿈을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꿈이잖아요. 그런 꿈이면 아무래도 돈을 벌려면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꿈꾸기 너무 더 힘들어져서 아무래도 엄청 가난할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사람이 더 있다 생각해요.

사례29) 그다지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돈 많은 집 학생들은 완전 비싸게 돈을 내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돈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책 살 돈도 없어서 교과서로만 공부하고.

빈곤 청소년들은 대다수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 청소년들 중 꿈을 이루기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있었다. 매체를 통하여 빈곤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이 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세상은 공평하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꿈을 이룬 멘토를 연결하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보게 한다.

사례25) 공평한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기사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다 이루 길래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7)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으로는 ‘공부 및 노력’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고, ‘마음가짐과 태도, 경제적 지원, 부모 및 멘토의 격려, 재능과 실력, 자기관리’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 및 노력	전형적(15)	5	7	3	6	9
			50.0%	46.7%	23.1%	50.0%	34.6%
	마음가짐과 태도	변동적(9)	•	6	3	4	5
			0.0%	40.0%	23.1%	33.3%	19.2%
	경제적 지원	변동적(5)	•	1	4	1	4
			0.0%	6.7%	30.8%	8.3%	15.4%
	부모 및 멘토의 격려	변동적(3)	2	1	•	•	3
			20.0%	6.7%	0.0%	0.0%	11.5%
	재능과 실력	변동적(3)	3	•	•	•	3
			30.0%	0.0%	0.0%	0.0%	11.5%
	자기관리(자격증/건강)	변동적(3)	•	•	3	1	2
			0.0%	0.0%	23.1%	8.3%	7.7%

초등학생들은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공부 및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사례5) 자기가 스스로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과 같이 ‘공부 및 노력’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응답으로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공부나 실력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발전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심

에 있어야 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례12) 일단은 성적관리를 좀 해야 해요. 수행평가도 잘 받아야 되어서
지금 지각하지 않고 학교 일찍 와서 교실 정리해 놓고 그래요.

사례15) 학업성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다는 열정이나
마음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또한 공부, 노력, 마음가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더불어 초·중학생들보다는 빈도가 약하며, ‘경제적 지원’과 ‘자기관리(자격증,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신체적, 물질적인 현실 요소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에 그대
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사례21)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약대라는 대학 자체가 등록금이 비
싸니까 돈 같은 것도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가장 문제인 것 같
아요.

사례22) 자격증이요. 노력,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자기관리.

사례23) 기본은 근력, 자신감, 체력, 근육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빈곤 아동청소년들도 ‘경제적 지원’을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 및 멘토의 격려, 재능과 실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한 사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질문에서 빈곤 아동청소년
들의 특징과 일부분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격려 부재를 경험
하였기에 필요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꾸
고,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부모 또는 멘토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경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존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중요한 사
실을 경험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롤 모델

롤 모델에 대한 탐색을 위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닮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닮고 싶은 사람(롤 모델)이 있나요?

아동청소년들의 닮고 싶은 사람의 유무에 대한 응답으로는 ‘롤 모델이 있다’가 일반적(general)으로 나타났으며, ‘롤 모델이 없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가 닮고 싶은 사람(롤 모델)이 있나요?	네	일반적 (25)	9	10	7	8	17
			90.0%	100%	63.6%	88.9%	81.0%
	아니요	변동적 (5)	1	•	4	1	4
			10.0%	0.0%	36.4%	11.1%	19.0%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롤 모델이 있으며, 이는 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가정과 사회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들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비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의 꿈 분야 전문가’ 전형적(typical)으로, ‘꿈 분야 이외의 사람, 부모님, 잘 모르겠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꿈 분야 전문가	전형적(16)	6	6	4	4	12
			54.5%	60.0%	50.0%	50.0%	57.1%
	꿈 분야 이외의 사람	변동적(9)	3	3	3	4	5
			27.3%	30.0%	37.5%	50.0%	23.8%
	부모님	변동적(3)	1	1	1	•	3
			9.1%	10.0%	12.5%	0.0%	14.3%
	잘 모름	변동적(1)	1	•	•	•	1
			9.1%	0.0%	0.0%	0.0%	4.8%

전 연령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관련 있는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꿈 분야 이외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였다. 이는 꿈 분야의 전문가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 준다.

▪ 나의 꿈 분야 전문가

사례8) 5학년 때 선생님

사례18) 연평해전 때 돌아가셨던 분들, 윤영하 소장이랑 조타장 한상국 상사, 의무병 박동식 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로 했던 사람들요.

▪ 꿈 분야 이외의 사람

사례4) 직업하고 상관없이...어...교장선생님

또한 이들은 소수지만 부모님을 롤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닮고 싶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부모님

사례21) 저는 아버지가 제 롤 모델인 것 같아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비빈곤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꿈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롤 모델로 삼는 것만큼이나 꿈 분야 이외의 사람들도 롤 모델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은 가족 환경의 빈약함을 나타내지만 아동들은 자신의 꿈 분야 전문가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처럼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꿈 분야 이외의 사람들을 롤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성공’과 ‘따뜻하고 좋은 사람’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롤 모델을 동일시하여 꿈을 이루었을 때 부수적으로 갖추고 싶은 것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닮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롤 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전문성’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노력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카리스마 및 인기’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또한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닮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성	전형적 (15)	4	6	5	5	10
			40.0%	54.5%	62.5%	55.6%	50.0%
	노력하는 모습	변동적 (5)	2	3	•	•	5
			20.0%	27.3%	0.0%	0.0%	25.0%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변동적 (5)	2	1	2	1	4
			20.0%	9.1%	25.0%	11.1%	20.0%
	카리스마 및 인기	변동적 (2)	1	1	•	2	•
			10.0%	9.1%	0.0%	22.2%	0.0%
	닮고 싶은 사람 없음	변동적 (2)	1	•	1	1	1
			10.0%	0.0%	12.5%	11.1%	5.0%

아동청소년들은 전문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력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같은 개인의 의지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력하는 모습을 이유로 응답한 사례 중 중학생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답변 중 빈곤가정의 학생들의 응답이 없다는 부분은 빈곤이 노력에 대한 가치와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전문성

사례9) 유튜브나 그런 곳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 사람이 롤 모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너무 예뻐요.

사례11)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나이에 맞는 조언들을 잘 해주세요. 항상 직접 사춘기 나이의 어린애가 된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세요.

사례21) 그냥, 제가 제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이 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롤모델 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런건데, 아버지처럼 꿈을 이뤄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 노력하는 모습

사례13) 그 분 책을 봤는데 되게 보잘 것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오히려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그 꿈을 이루시고 정상의 자리에 섰잖아요.

아동청소년들은 전문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경제적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이타적 삶에 대한 기대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 빈도는 낮으나 교급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삶에 의미를 이룰 수 있도록 자원봉사 등 이타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사례15) 이 분은 남을 위해서 공짜로 의료를 하고, 빚 때문에 병원을 못 다니는 사람을 무료 검사도 하였고 남을 위해 많이 봉사하신 분입니다. 남을 많이 도와주셔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하나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시고..

사례22) 기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3)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기대에 대한 탐색을 위해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시나요?,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들은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꿈에 대한 질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공무원, 일반회사원, 없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부모가 나에 대해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	전형적 (17)	5	5	7	5	12
			50.0%	50.0%	70.0%	55.6%	57.1%
	전문직 (의사/간호사/아나운서/야구선수)	변동적 (7)	2	3	2	2	5
			20.0%	30.0%	20.0%	22.2%	23.8%
	공무원(교사)	변동적 (4)	2	2	•	1	3
			20.0%	20.0%	0.0%	11.1%	14.3%
	일반회사원	변동적 (1)	1	•	•	1	•
			10.0%	0.0%	0.0%	11.1%	0.0%
	없다	변동적 (1)	•	•	1	•	1
			0.0%	0.0%	10.0%	0.0%	4.8%

부모의 기대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꿈에 대한 인정과 지지 그리고 존중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모의 모습에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하였다.

사례6) 내가 원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사례11)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세요.

사례18) 같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성공하는 걸 가장 바라시니까 굳이 직업에 국한하지 않고

빈곤가정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꿈은 전문직과 공무원, 회사원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원하는 것에 대한 빈도는 비빈곤가정의 부모와 비교해서 응답률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들의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관한 다양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문직

사례15) 약간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는 팀 닥터 이외도 정신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많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팀 닥터,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례25) 누나가 간호과를 갔는데 간호과 가면 직업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간호과 어떠냐고 물어봤고... 간호과랑 그냥 경찰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 공무원

사례5)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요

(2)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같다’는 전형적(typical)으로, ‘다르다’는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같다		전형적 (22)	6	8	8	5	17
				60.0%	80.0%	80.0%	55.6%	81.0%
	다르다	사무직	변동적 (7)	4	2	1	4	3
		세무회계						
		아나운서		40.0%	20.0%	10.0%	44.4%	14.3%
		교사						
		의사						
		아이돌 가수						
	모르겠다		변동적 (1)	• 0.0%	• 0.0%	1 10.0%	• 0.0%	1 4.8%

초등학생 참여자의 절반이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자신의 꿈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사례1) 같지 않아요. 제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을 그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공부 쪽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모님과 나의 꿈은 ‘같다’라고 대답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초등학생들에 비해 좀 더 부모님과 꿈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례13) 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 해야 약간 이런 식이라서 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례23) 자기 꿈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빈곤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의견이 같지 않은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통해 부모와 자신의 꿈에 대해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례8) 달라요. 의사가 되라고요.

사례14) 아니요. 어렸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겼어요.

(3)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시나요?

부모님은 어느 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에는 ‘대학교’가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고등학교’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님의 ‘대학은 가야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시나요?	대학교	전형적(24)	8	8	8	6	18
			72.7%	80.0%	80.0%	66.7%	81.8%
	대학원	변동적(4)	2	1	1	•	4
			18.2%	10.0%	10.0%	0.0%	18.2%
	고등학교	변동적(3)	1	1	1	3	•
			9.1%	10.0%	10.0%	33.3%	0.0%

부모들은 대학교까지 교육받는 것에 전형적인 응답빈도를 보였다. 이는 대학이라는 기준점이 주는 안정감에 대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든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 보여지며 부모님 세대들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공부가 성공이나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학교

사례16) 대학교까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까지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고.

▪ 대학원

사례4) 부모님은 제 생각대로 많이 공부하는 것 대학원처럼. 제가 공부를 하면 집안이 안 되도 다시 일어설 길 같은 게 보이고 공부를 더 하면 학교 안에는 학비 같은 게 있는데 공부를 잘 하면 면제 같은 것을 해준다고요.

빈곤가정의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의견을 보인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보다 직업과 기술습득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등학교

사례14) 고등학교 일 거예요. 거기 세무고 가면 아무래도 취업 있잖아요.

취업할 때 아니면 직장 갈 때 좋겠죠.

이는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력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모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부모와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설득한다.’는 전형적(typical)으로, ‘내 의견을 주장한다, 부모님 의견에 순응한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피한다, 생각 안 해봤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설득한다	전형적 (14)	4	6	4	6	8
			57.1%	60.0%	33.3%	60.0%	42.1%
	내 의견을 주장한다	변동적 (9)	3	3	3	3	6
			42.9%	30.0%	25.0%	30.0%	31.6%
	부모님 의견에 순응한다	변동적 (2)	•	1	1	•	2
			0.0%	10.0%	8.3%	0.0%	10.5%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변동적 (2)	•	•	2	1	1
			0.0%	0.0%	16.7%	10.0%	5.3%
	피한다	변동적 (1)	•	•	1	•	1
			0.0%	0.0%	8.3%	0.0%	5.3%
	생각 안 해봤다	변동적 (1)	•	•	1	•	1
			0.0%	0.0%	8.3%	0.0%	5.3%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내 의견을 주장할 것이라는 응답으로 꿈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에 강압적인 부모에 대한 순응이 아닌 자녀와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 교급별에서 고르게 나타난 답변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생각 될 수 있다.

▪ 설득한다

사례10) 설득해보고 싶어요. 제 꿈에 관해서 좋은 점들을 말하면 언젠가는 부모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13) 제일 큰 거는 대화인데, 사람은 결국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이유를 들으면서 나도 그 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니까.

▪ 내 의견을 주장한다

사례20) 그냥 나는 이게 하고 싶다고 말하겠다. 아니면 내가 딱 하고 싶은 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싫다 하고 말은 하는 편이죠.

꿈에 대한 부모의 의견 수용은 낮은 답변으로 부모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이어나가고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부모님 의견에 순응한다

사례23)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거예요. 부모님이 정 싫다하시면 그냥 운동 잘 하는 남자로서 부모님 선택하신 걸로 갈 거예요.

고등학생의 경우 이에 비해 다양한 답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사례28)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상담 해주고.. 그

계기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부모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빈곤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순응한다는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부모보다 자신의 의견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꿈에 대한 계획

꿈에 대한 계획의 탐색을 위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될까요?, 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우리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응답한 것은 ‘공부에 몰입’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과 적성, 학교생활을 포함하는 자기관리, 관련학교 진학 및 취업, 정보 및 자격증 취득, 꿈 관련하여 기초실력 쌓기, 계획이 없다’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아동청소년들은 공부에 몰입하고, 관련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아동청소년들이 노력 또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역	범주	응답 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	공부에 몰입	전형적 (12)	3	7	2	3	9
			27.3%	43.8%	20.0%	27.3%	34.6%
	자기관리(건강/적성/학교생활)	변동적 (8)	•	3	5	1	7
			0.0%	18.8%	50.0%	9.1%	26.9%
	관련학교 진학 및 취업	변동적 (6)	3	2	1	2	4
			27.3%	12.5%	10.0%	18.2%	15.4%
	정보 및 자격증 취득	변동적 (6)	•	4	2	4	2
			0.0%	25.0%	20.0%	36.4%	7.7%
	꿈 관련하여 기초실력 쌓기	변동적 (4)	4	•	•	•	4
			36.4%	0.0%	0.0%	0.0%	15.4%
	계획이 없다	변동적 (1)	1	•	•	1	•
			9.1%	0.0%	0.0%	9.1%	0.0%

초등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몰입하고, 꿈 관련분야의 기초실력을 쌓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초등학생과 같이 공부에 몰입하기를 이야기했지만 정보 및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 공부에 몰입

사례4) 계획을 막 이렇게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고등학교 때 까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례12)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든 조리사 쪽에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고 싶어요.

사례15) 어쨌든 학생 시절까지는 학생 본분이 공부니까 열심히 하고

꿈에 대한 구체성과 관계없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학업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부모나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관리 범주에서 초등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자기관리, 정보 및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표현하였으며, 꿈의 계획에서 주체가 자신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의 성취여부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기관리

사례17) 봉사활동을 방학 때 따로 이외에 20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따로 이외에 더 채우거나 상점이랑 가산점도 등수를 올려주고요.

사례24) 자기관리를 열심히 해서 예뻐져서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그게 계획이에요

사례28) 지금은 일단 기말고사 끝나면 친구라든지, 같이 가서 체력을 많이 기르고 싶어요.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체력을 많이 키우고.. 남은 시험은 이제 없겠지만 아직 생활기록부 끝나는 날은 아니지만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이 직업에 대한 걸 더 많이 하고 싶고, 견학도 많이 가고 싶어요.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학생들이 많이 반응한 답변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을 두고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된 고등학교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자격증과 그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관련학교 진학 및 취업

사례1) 일단 야구부 들어 가가지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한 다음에 일단 삼성에서 캐스팅 1차에서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례30) 취업하는 것. 취업을 안 하면 그 꿈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취업을 해서 쪽 가다가 가게 차릴 거예요.

▪ 정보 및 자격증 취득

사례12)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든 조리사 쪽에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고 싶어요.

사례18) 첫 번째 항공과학고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들어가면 공부를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잘 받아서 가는 혜택이 그거거든요. (중략) 자격증을 따서 중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략)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기 때문에 기술 쪽 관련해서 자격증 같은 걸 따고. 저는 일단 중위가 목표라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공부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관리에 대한 응답은 낮고, 꿈 관련하여 기초실력 쌓기에서는 무응답을 보였다. 이는 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나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공부에 특히 집중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2)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학업에 집중하기’가 전형적(typical)으로, ‘꿈 관련분야 기초 실력 쌓기, 자격증 취득하기, 인내하기, 자기관리’ 등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꿈에 관련한 계획과 노력은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기보다 계획이 세워졌을 때 노력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요?	학업에 집중하기	전형적 (20)	4	9	7	7	13
			40.0%	69.2%	77.8%	63.6%	61.9%
	꿈 관련분야 기초실력 쌓기	변동적 (7)	5	2	•	•	7
			50.0%	15.4%	0.0%	0.0%	33.3%
	자격증 취득하기	변동적 (2)	•	2	•	2	•
			0.0%	15.4%	0.0%	18.2%	0.0%
	인내하기	변동적 (2)	1	•	1	2	•
			10.0%	0.0%	11.1%	18.2%	0.0%
	자기관리	변동적 (1)	•	•	1	•	1
			0.0%	0.0%	11.1%	0.0%	4.8%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초가 되어야 할 노력으로 학업의 중요성과 꿈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꿈의 실현에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빈곤 아동청소년들 또한 학업에 집중하는 노력이 있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 학업에 집중하기

사례11) 어느 학교를 가든 그 학교가 원하는 학업에, 학업능력이 되어야 되니까, 학업에 열중. 체고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시도해보아요. 꿈을 위해서라면. 대학교 때까지 사범대 가서 교육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례18) 공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자격증이나 공부. 운전면허증 따야 되고요.

사례29) 일단 대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어떻게 하나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도 놀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교급에서 전반적으로 학업을 노력으로 꼽았으며 특히 중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부모나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은 질문으로 ‘꿈 관련분야 기초실력 쌓기’는 꿈에 대한 막연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응답에서는 같은 분류라 할지라도 좀 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꿈 관련분야 기초실력 쌓기

사례1) 야구를 많이 해야 해요. 달리기도 빨라야 하고 하체 힘도 튼튼해야 가지고 그런 거 쪽으로.

사례19) 제 특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지요. 제 신체적 특성이나 아니면 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 탐구하거나 거기에 맞게 더 변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차근차근 맞춰가야죠.

빈곤 아동청소년에게서만 응답된 ‘인내하기’는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도중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사례5)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례30) 그냥 회사에서 욕을 먹든 말든 잘 참아야지요.

(3)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른들(부모님, 가족, 학교, 복지관 등)이 어떠한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될까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으로 ‘지지와 믿음, 경제적 지원’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으며, ‘공부환경 조성, 다양한 직업군체험 지원, 공평한 기회’가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내가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될까요?	지지와 믿음	전형적 (14)	6	3	5	3	11
			60.0%	30.0%	41.7%	33.3%	40.7%
	경제적 지원	전형적 (10)	2	4	4	4	10
			20.0%	40.0%	33.3%	44.4%	37.0%
	공부환경 조성	변동적 (4)	•	1	3	1	3
			0.0%	10.0%	25.0%	11.1%	11.1%
	다양한 직업군체험 지원	변동적 (3)	1	2	•	1	2
			10.0%	20.0%	0.0%	11.1%	7.4%
	공평한 기회	변동적 (1)	1	•	•	•	1
			10.0%	0.0%	0.0%	0.0%	3.7%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지지와 믿음에 대한 전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은 공부를 지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 지지와 믿음

사례9) 부모님께서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15) 어 그냥 옆에서 될 수 있다고 많은 그런 응원도 해주시고, 이 분야에서 잘 아는 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많은 조언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례21) 제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항상 지지해주시고, 그게 정신적인 지지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경제적인 지지든.. 내 딸이 이만큼 잘 하고 있다 그런 믿음이나 약간 자부심? 그런 것도 가지는 게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급별에 큰 차이 없이 지지와 믿음에 대한 도움에 대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음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도움에 주로 나타남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에 관련된 학원이나 교육이 증가함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경제적 지원

사례16) 학생 때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살짝 금전적인 문제 봐주시고, (중략) 요리학원에 가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으니까 재정적인 지원 부분요.

사례27) 그냥.. 먹고 살수만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장비 같은 거 살 때 싸게 해주거나 임대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고등학생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도움으로 이는 입시와 관련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공부환경 조성

사례20)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원하는 거 없고, 나중에 진짜 취업할 때가 되면 어디 시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대더라 하는 소문을 들어온다든지 그런 가벼운 것들. 학교는 전문지식을 주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사례29)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들어오면 공부를 조용히 해야 하는데 혼자 막 말을 시켜요. (중략) 그래서 공부할 분위기 안 만들어져요.

초등학생에 비해 꿈에 대한 경험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생에게는 볼 수 없는 도움의 형태로 중학생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다.

▪ 다양한 직업군체험 지원

사례13) 작은 부탁이 있다면 직접적인 직업 체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전문 직업인 특강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건 좀 더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면 좋겠고, 복지관 같은데도 돈이 약간 덜 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렴한 돈으로 직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사례19)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좀 더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제 주위에도 꿈을 정하지 않은 애들이 반이라서. 반 넘게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도움으로 인식한 사례는 한 사례에 그쳤지만 다른 질문 영역에서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회균등과 같은 의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 능력에 따른 성과에 앞서 기본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평한 기회

사례10) 조선시대에는 차별대우가 심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꿈을 가지고 이를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들이 그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우리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안정된 취업환경 제공’이 전형적(typical)으로 나타났고, ‘바라는 것 없다, 동등한 기회 및 능력 위주의 사회, 직업적성 관련 로드맵 제공, 경제적 지원, 자유로운 학업’이 변동적(variant)으로 나타났다.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교급			빈곤	
			초	중	고	빈곤	비빈곤
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우리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환경 제공	전형적 (10)	4	4	2	2	8
			40.0%	40.0%	20.0%	22.2%	38.1%
	바라는 것 없다	변동적 (7)	2	1	4	2	5
			20.0%	10.0%	40.0%	22.2%	23.8%
	동등한 기회 및 능력 위주의 사회	변동적 (7)	3	3	1	4	3
			30.0%	30.0%	10.0%	44.4%	14.3%
	직업적성 관련 로드맵 제공	변동적 (3)	•	2	1	1	2
			0.0%	20.0%	10.0%	11.1%	9.5%
	경제적 지원	변동적 (2)	1	•	1	•	2
			10.0%	0.0%	10.0%	0.0%	9.5%
	자유로운 학업	변동적 (1)	•	•	1	•	1
			0.0%	0.0%	10.0%	0.0%	4.8%

아동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경제력의 필요성을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환경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학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환경 제공

사례1) 학교마다 야구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야구가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중 하나이니깐. 그러면 야구장이 넓으니까 그쪽에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례16) 저는 자격증 딸 수 있는 기관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구청이나 동네 주민 센터에서 다양하고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사회가 가진 학업성적에 집중되어 있어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고 선입견과 스펙으로만 평가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알 수 있다.

▪ 동등한 기회 및 능력 위주의 사회

사례11) 여러 가지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시험성적이 아닌 가지고 있는 능력 음 예를 들면 직접 보여주는 것. 면접을 볼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직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이 아닌 직접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직접 자신의 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보제공에 있어 가상경험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직업적성 관련 로드맵 제공

사례14) 꿈같은 것 선생님께 물어보는 걸 수줍어 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 서라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느 분야에 무슨 직업이 있고 그 분야 되고 싶으면 가는 방법들 그런 걸 좀 모아놓은 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소수의 고등학생은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와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희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자유로운 학업

사례23) 제발 애들 싫다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못한 걸 더 나아지게 하고, 최00, 박00 사건을 해결해 주고 공부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아동청소년과 비빈곤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은 꿈을 꾸고, 계획하여 스스로 노력을 한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환경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곤 아동에게는 결핍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결핍은 꿈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내면적 힘이 된다. 이들 중 소수는 꿈의 실현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다수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토대로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의 회복, 복지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국가의 복지제도 보완과 확대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VI. 결론

1. 양적연구 결과요약

양적연구에서는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꿈꾸고 있을까?’, ‘꿈을 꾸면 무엇이 좋을까?’,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마져 다를까?’,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다.

첫째,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꿈꾸고 있을까?’에 대한 답에는 ‘성별’과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꿈에 대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에서는 교급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이었으나, 몇 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결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특기할만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자면, 한국 미래세대의 57%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꿈이 없다’고 응답한 수치는 6%에 불과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결과, 미래세대들은 꿈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과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우리 미래세대는 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스펙을 ‘입시’와 ‘취업’을 위한 스펙을 먼저 쌓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꿈이 있어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고 응답한 미래세대의 비율도 2순위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

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인 진로장벽을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와 ‘대중매체’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곧 우리사회가 미래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꿈을 꾸도록 하는 자극제가 부족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제한된 경험과 인지의 왜곡이 꿈의 변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꿈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부모’와 ‘없다’, ‘교사’, ‘친구/선배’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소통인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없다’라는 응답이 양 문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미래세대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묻은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의지’, ‘노력’, ‘자존감’이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반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별’이나 ‘외모’ 등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교급이 낮아질수록 ‘자존감’, ‘의지’, ‘노력’ 등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부모의 지원’, ‘경제력’, ‘재능’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모든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자존감’, ‘사회적 분위기’, ‘경제력’ 등의 순이었다. 성별간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존감’, ‘경제력’, ‘재능’등의 순으로 더 큰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평등인식에 대한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구조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일의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교급이 높아

질수록 ‘나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 ‘안정성’과 ‘소득’이 더 높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2순위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 불안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어린시절부터 심겨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미래세대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진로성숙도는 더 낮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취업 성공 신화를 떠나 성숙한 꿈철학과 진로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꿈을 꾸면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꿈 유무별(있다, 막연하다, 없다)’, ‘꿈 자기결정여부(그렇다, 아니다)’, ‘꿈 실현가능성(높다, 낮다)’, ‘꿈 변화정도(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꿈 소통정도(자주한다, 자주하지 않는다)’, ‘꿈 실현정도(그렇다, 아니다)’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발달지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꿈이 우리 미래세대에 미치는 발달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사회불평등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의 모든 지표에서 꿈이 구체적일수록, 꿈을 스스로 결정할수록, 꿈 실현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꿈이 자주 변하지 않을수록, 꿈에 대한 소통을 자주할수록, 꿈 실현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좋은 발달산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꿈이 좋은 꿈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볼 수 있는데, 결국 ‘구체적인 꿈’, ‘스스로 결정하는 꿈’, ‘실현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꿈’, ‘자주 변하지 않는 꿈’, ‘자주 이야기되는 꿈’, ‘실현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꿈’이 우리 미래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미래세대 꿈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셋째,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꿈마저 다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꿈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명해보았다. 그 결과,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몇가지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구체적인 꿈을 꾸는 비율을 적은 반면, 꿈이 없는 비율은 더 많았다. 또한 결핍수준을 측정한 결과 꿈이 없는 집단에서 결핍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의 결핍이 꿈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가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어, 꿈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꿈 실현가능성’, ‘꿈 소통정도’, ‘꿈 실현정도’등의 지표에서도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꿈 영향인물’에 대한 ‘부모’의 응답비율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낮게 응답되었으며, ‘꿈 소통인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의 부모가 빈곤가정 미래세대에게 꿈을 위한 지원체제로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중요도는 모든 항목에서 빈곤가정 미래세대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력’, ‘부모의 지원’, ‘주변 환경’, ‘학벌’등의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사회 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의 선택기준에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상대적으로 ‘안정’과 ‘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반면, 비빈곤가정 미래세대는 ‘의미’와 ‘자아성취’를 더 높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하위 영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독립성’을 제외한 ‘자

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에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진로준비 행동 역시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비해 ‘취업준비활동’은 더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진로탐색’, ‘정보수집’, ‘직업체험’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넷째,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다시 ‘꿈 유무’로 세분화하여 두 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모든 발달지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가정-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의 집단에 속한 미래세대는 ‘비빈곤가정-꿈이 없다’에 속한 미래세대에 비해 좋은 발달산물을 보여 고무적이었다. 다만, ‘비빈곤가정-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에 속한 미래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꿈과 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문제행동’은 꿈의 유무와 상관없이 빈곤가정 미래세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가능성’ 역시 주관적 경제수준이 꿈의 유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섯째,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빈곤가정 미래세대만을 대상으로 빈곤하지만, 꿈을 가진 미래세대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을 꾸기 위해 어떤 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예술’, ‘진로체험’, ‘사교육’, ‘여가/놀이’, ‘진로상담’, ‘인성교육’등의 순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빈곤가정 미래세대의 경우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주로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가 진로교육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몇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먼저, 학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은

다양한 미래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큰 집단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일률적인 진로 프로그램 공급은 미래세대의 개별화된 욕구와 다양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가 거점이 되어 지역 사회의 꿈 지원체계를 확장해간다면, 좋은 꿈 지원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다수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정보력’이 없다면, 그대로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학교가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처 역할을 해준다면, ‘엄마의 정보력’이 없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는 너무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교가 아닌 다양한 루트로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요청된다.

2. 질적조사 결과요약

본 연구는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관련하여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 꿈에 대한 계획의 세 가지 영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인 CQR을 통해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나의 꿈, 나의 미래 영역은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한 질문과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내용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의 영역은 내 꿈의 출발, 롤모델, 부모의 기대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꿈에 대한 계획 영역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각 영역에서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꿈 나의 미래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들 중 고등학생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꿈이 있었으며,

이들은 ‘야구선수, 디자이너, 방송작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예체능계열,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의료계열, 교사, 강사의 교육계열, 요리사, 군인,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꿈을 직업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의료계열과 법 계열의 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두 계열의 학업기간과 성취시간이 비교적 길어서 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꿈을 갖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이전,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체험을 한 후,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역할 모델, 개인적인 관심, 주변의 권유’를 꿈을 갖게 된 이유로 설명하였다. 꿈을 꾸는 이유로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보고되었다.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 모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동일하게 응답하였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분야에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자신이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빈곤 아동청소년은 학업 등이 어려울 것 같음을 예상하고 미리 피하여 다른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의 꿈이 변하게 된 것은 ‘흥미의 변화, 부모 및 주변의 영향, 성적 및 현실 인식, 낮은 자존감, 매체,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두려움, 정보 탐색’ 등이었으며, ‘꿈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이룰 수 있다’로 응답한 참여자가 다수였으며, ‘이룰 수 없다’와 반반이다’로 응답한 참여자는 소수로 나타났다. 이들 중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의 여부가 중요함을 표현하였으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숙됨을 볼 수 있으나 한편으

로는 주변의 지지자, 경제적 뒷받침의 부재를 보여주기도 한다. 꿈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경험 쌓기, 성적 관리하기, 정보 수집하기, 강한 의지, 스펙쌓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아동청소년은 꿈이 있음에도 꿈만 막연히 보유하고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동일하게 ‘경험쌓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오디션, 학원 등의 가정의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는 가정 외 다양한 체험들을 이야기하였지만, 빈곤 아동청소년은 그림 연습, 주방에서의 요리 연습 등 가정 내 경험에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 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부모나 주변의 관심과 지지로 인해 꿈을 유지하게도, 포기하게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 미래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인정받는, 믿음직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피해주지 않는, 존중받는 사람’ 등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자신의 삶에서 ‘주변사람들(가족/친구), 긍정적 사고방식과 노력, 경제적 능력, 신뢰(믿음/명예/약속), 자신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행복하게 살기, 걱정 없이, 주관적이고 자유롭기, 경제적 능력 있게,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동일하게 이야기 하였지만 내포된 의미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빈곤 아동청소년은 주변인들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복을 이야기하였으며, 빈곤 아동청소년은 주변인들과 함께 행복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안정적인, 전문성 있는, 유명해지는 직업’이었으며, 자신

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대학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였으나, 자신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지원 등에 따라 ‘대학원, 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 각각 다른 수준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수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소수 아동들의 신념에서 건강한 꿈을 이루려는 노력과 바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내 꿈의 출발, 롤 모델, 부모의 기대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꿈을 결정하였으며, 소수는 ‘부모님과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이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변 사람들(부모님/선생님/친구), 흥미 및 경험, 매체, 모델링, 현실적인 조건, 신앙’이 있었다. 비빈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을 동일하게 꼽았다. 그러나 그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변사람들’은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주변사람들’을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들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꾸는데 있어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꿈을 이루어 가는데 ‘부모님, 실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외 ‘선생님, 스스로의 의지 및 생각, 주변의 관심과 칭찬, 꿈 관련 매체’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부 및 성적, 경제력 및 배경, 혼란스러움, 게임, 건강’ 등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한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 방해가 없다, 대화 및 설득, 긍정적 생각과 격려, 꿈 분야 전문가의 조언’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꿈꾸기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또는 공평하다’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잘 모르겠다’로 응답

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결정하는데 주체성이 있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님과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의 도움으로 꿈을 결정한 후 직접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재미를 찾고,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꿈에 대한 확신을 보이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롤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닮고 싶은 사람으로는 나의 꿈 분야 전문가, 꿈 분야 이외의 사람, 부모님 등으로 나타났다. 빈곤 아동청소년들은 비빈곤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꿈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롤모델로 삼는 것만큼이나 꿈 분야 이외의 사람들도 롤모델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은 가족 환경의 빈약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 분야 전문가를 스스로 찾아내어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처럼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꿈 분야 이외의 사람들을 롤모델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들을 동일시하여 꿈을 이루었을 때 부수적으로 갖추고 싶은 것, 즉 ‘성공’과 ‘따뜻하고 좋은 사람’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바라는 꿈이 나의 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모들은 ‘전문직,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의 꿈을 가지기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받기를 원하였지만 몇몇 사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수준을 표현하였으며, 졸업 후 취업을 통하여 가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꿈이 나와 다른 경우 대처방법으로 ‘부모를 설득, 내 의견을 주장, 부모님 의견에 순응, 외부의 도움을 받음, 피함’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외 소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순응한다는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부모보다 자신의 의견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부모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적인 직업’을 말한다. 이는 부모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자녀들은 자신과 다른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부모가 안정에 지나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모습은 자녀들이 꿈을 꾸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꿈에 대한 계획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에 몰입’하거나 ‘자기관리, 관련 학교 진학 및 취업, 정보 및 자격증 취득, 꿈 관련하여 기초실력 쌓기’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학업에 집중하기, 꿈 분야 기초실력 쌓기, 자격증 취득하기, 인내하기, 자기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주변 어른들과 우리사회에 대한 바람으로 ‘부모와 친구들의 지지, 나를 믿어주는 마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제공, 동등한 기회 및 능력 위주의 사회’ 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에 집중하고 기회제공을 확대하여 현실적 실천과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 다수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노력의 방법으로 공부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꿈에 대한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였다. 이들이 어른들과 우리사회에 던지는 차별과 무시에 대한 메시지가 인상 깊었으며, 현실을 가장 근접하게 직면하고 있는 교급인 고등학생들의 ‘사회에 바라는 것이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몫이라고 여겨진다.

3.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발달산물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꿈에 대한 고찰로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오늘이자 내일인 미래세대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이 마음껏 꿈꾸고 이를 실현해가는 데 있어, 개인과 가족, 사회 환경에서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미래세대 일반에 대한 제언

(1) 꿈에 대한 조기개입

양적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이 낮고 연령이 어릴수록 꿈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인 진로장벽을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꿈에 대해서도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직 유연하고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입이 비교적 쉽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거나 단순 개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 주변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더 좋은 안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멘토나 사례관리자가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면 안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꿈에 대한 방치와 무지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자라면서 부모의 지원, 경제력, 성별이나 외모 등 외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꿈을 잠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인의 내적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화된 환자들은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병에 대한 예후가 나빠 잦은 재발을 하

게 되고 다시 악화된 증상의 치료를 위해 치료를 반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 초기에 꿈의 부재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2) 꿈을 위한 토대로서 현재의 행복 증진

더불어 질적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는 행복하게 살기, 걱정 없이 살기, 주관적이고 자유롭게 살기 등이며, 바르고 도덕적이게 살기가 소수의 의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정서적 안정감 추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현실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행복감과 자유로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꿈에 있어 핵심 내용은 ‘행복’이며,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서적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을 나누며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 자신들의 주관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려면, 아동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와 실천가들이 지역사회와 기관의 필요가 아닌 아동청소년 필요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일치된 시선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3) 꿈 철학, 가치관, 비전을 심어주는 다층적-다차원적 프로그램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 가치관, 비전을 정한 뒤 꿈을 정하고 이에 따라 능력·적성 등을 고려해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꿈은 환경적인 제약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으므로 마음껏 꿈꾸면 된다. 꿈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러나 직업은 꿈과 달리 시간 제한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도 있다. 하지만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직업을 구분하지 못한다. 직업이나 진로를 꿈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진로는 꿈을 현실(직업)로 만드는 과정이다. 진로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다. 꿈은 곧 구직동기이므

로 꿈이 있어야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꿈과 진로, 직업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래세대 스스로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비전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세대 대부분이 꿈의 출발에 대해서 ‘스스로’ 꿈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주변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하였으며 실제 직접적인 경험이 주는 도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일부 주변의 가족과 친구의 지지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 무엇이 있고 확신을 보이며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지와 관심의 중요성 외에 자신이 얼마나 꿈과 관련된 것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가족과의 밀착에서 분화되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꿈과 인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적 상담, 내면 치유 프로그램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꿈은 일상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모델링, 개인적 관심, 주변의 권유 등 다양하게 영향 받는 데 반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노력은 공부나 학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성적 위주의 서열화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부밖에 선택할 게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준다. 따라서 꿈을 꾸기 위해서나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 아동의 재능도 버려지지 않게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시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식적 수준의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꿈을 꾸며 실현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회제공과 교육, 전문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및 수용, 훈련 시설 등을 마련하여 폭넓은 경험과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양적조사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양육태도가 꿈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사회복지기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들과의 꿈에 대한 대화법, 진로교육 등을 가정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관련하여 질적조사에서 부모가 나에게 대해 바라는 꿈은 내가 원하는 것, 전문직(의사/간호사/아나운서), 공무원(교사)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높은 수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모가 ‘직업적 안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은 종종 자녀들이 꿈꾸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모는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자녀를 대하고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교육 또한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부모교육의 장을 부모의 직장에 펼쳐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1차적인 롤모델로서 부모가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중심으로 한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조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다.

아동·청소년기는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을 해야 할 시기이다. 아동·청소년이 직업이 가진 기능과 특성만을 직업의 전부로 이해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실상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적 환상과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꿈과 희망, 직업적 전망을 키워나가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그 꿈의 진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환상 대신 진정한 실체를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

실 현장체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쉽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롤모델을 정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질적조사에서처럼 아동·청소년들은 롤모델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자신의 꿈에 대입하여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꿈에서 영웅적인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대단한 스펙이 없이도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자신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꼽았으며, 이처럼 현실의 벽을 부순 롤 모델이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찾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꿈과 희망이 될 만한 인물을 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의 단계에 이르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책,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그들의 성공과정을 알아보고 주변 어른들이나 또래와 함께 대화를 나눠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본보기가 반드시 멀리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먼저 사회로 나가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선배를 만나보는 일 역시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관련 직업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는 선배를 접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게 돕고,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더욱 좋다. 이러한 내용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 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수준에만 맡기지 말고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진행해야 한다.

(4) 아동·청소년-부모-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확대

양적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꿈이 있을수록, 꿈이 실현 가능하다고 느낄수록 모든 발달지수나 성과지표에서 긍정적이었다. 부모, 학교,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등 모두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꿈과 관련한 실천기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영역에서는 대학진학이나 직업에 한정된 진로 상담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꿈’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해야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삶과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사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의 해체, 노동 및 여가의 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생활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의 위기, 빈곤의 대물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이 변화한 것이 이미 현실임에도 다른 사회제도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꿈을 키우는데 가정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 학교와 가정간의 공백사이에 아동·청소년의 관리나 보호가 부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수록, 심지어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초기수준의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문제를 지역사회와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 중심학교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차원에서부터 공급자 중심에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관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되, 아동·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교육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개방적 자세가 요구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학교의 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모두가 아동·청소년

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학습력 향상이므로 지역차원의 교육공동체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약 및 연계, 협조 등을 통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아동·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대중매체에 대한 개입

대중매체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을 반영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송모니터’와 같은 참여 방안을 SNS 등 온라인 영역에까지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꿈이 곧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은 꿈을 현실화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업의 노출에 있어 소수의 인기직종 위주로 이상적이거나 왜곡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막기 위한 노력과 진로개발을 위한 좋은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국내 외 연구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에 자살 시도가 급증하며,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과 내용이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자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꿈과 직업에 대해 왜곡된 의식과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대중매체가 적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정작용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아동수당의 확대

지난 2018년 2월 28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수당제도가 선별적 형태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양적 조사 결과에서, 아동청소년들은 교급이 증가하면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성별 등 외적요인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반면, 그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제력에 있어 불만족의 격차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력에 대한 중요도는 커졌으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으로서라도 아동수당을 청년층까지 연령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수당과 더불어 지자체별 청년수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이 연령대인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특히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층은 보편적 수당에 대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자신의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정립해가는 시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수당의 확대에 있어 청소년층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겠다. 물론 개별아동들의 꿈에 맞춘 지원이나 빈곤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나 비용은 민간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겠다.

2)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대한 제언

(1)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대한 꿈 사례관리 지원

미래세대가 부모와 함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이다. 부모는 언제나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아이가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자기 미래의 모습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따뜻한 조력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녀와 나누는 미래에 대한 대화는 부모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경제력과 맞닿아 있다. 사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부의 대물림이 자녀 꿈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은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꿈이 있는 빈곤가정 미래세대에는 희망이 보였다. 따라서 빈곤가정 미래세대를 위한 사례관리에 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인력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방식은 아이들이 꿈을 위한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잘 달성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성공경험을 축적하여 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지원사업이 사례관리의 맥락 하에서 부모와의 지속적 연계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지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꿈을 키우는데는 한 기관만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외부 프로그램과의 지원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꿈을 키우는 진로지원사업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진로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 기회 확대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에의 노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월드비전의 비전디자이너사업 등과 같은 진로지원

사업은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찾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작동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사회와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장이 되도록 그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빈곤가정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 지원

미래세대의 꿈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빈곤가정 미래세대가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들의 꿈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의 역할을 준비시키는 한편, 가정 및 학교와의 연계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가정의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빈곤가정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가정 미래세대는 부모의 사회적자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고 확대할 수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되는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들이 꿈을 찾고 이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때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과정이어서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꿈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꿈에 머무르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과 힘을 믿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다림의 미학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필요하다. 꿈을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꿈과 희망의 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수많은 빈곤가정 미래세대들의 꿈을 찾는 여행에 의미있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경찬(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원덕, 안귀여루(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0-175.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고미나, 박재황(2012).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곽준규(2002). 미래의 꿈드리기 프로그램이 진로 성숙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32.
-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2009).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2), 61-84.
- 권소희, 안현주, 정혜원(2000).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과 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창의력개발연구, 4, 253-264.
- 권현지(2015).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주(2010).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2009). 가정유형과 학업성적 및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 진로포부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 6(1), 113-135.
- 김경희, 박근혜(2013).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 복지연구, 44(1), 113-134.
- 김경희, 박근혜, 김성원(2016). 빈곤가정 아동의 꿈과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183-210.
- 김경희, 정은희(2012). 평생교육과 아동복지의 만남: 쉼의 역량접근과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의 평생학습역량. 평생교육연구, 18(4), 297-317.
- 김민선, 서영석(2009).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22.
- 김완석, 박종원(2013). 대학생의 가족영향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진로교육연구, 26(1), 203-229.
- 김은희(2001). 빈곤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지도의 효과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홍(1994).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생활지도, 교육관리기술 283, 한국교육출판사.
- 김정원, 김옥인(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김정은, 장덕희(2014). 빈곤가정 아동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 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1), 1-19.
- 김현주, 김준영(2010).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2), 23-52.
- 김홍중(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부르디외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8, 32-72.
- 김희수, 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김희자(2008). 청소년 빈곤과 진로성숙도, 교육포부. 한국보건복지학회, 10, 87-106.
- 노경란(2011). 빈곤가정 아동의 가정적,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 특성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연구논총, 32(2), 81-105.
- 민하영,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남식(1984). 성취동기 유발 모형의 투입이 학습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2011). 부모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 박외자(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적 학습, 학업효능감, 결과기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두, 이기학(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 자존감과 집단 자존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박창남, 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현옥, 강혜영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1), 137-153.
- 백사인, 김정미(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 91-109.
- 심경섭, 설동훈(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안선영 (2017). [가깝고도 먼 당신, youth] 꿈이 꼭 있어야 하냐고 묻는 청소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목정보*, 10(1), 28-32.
- 양난미, 이은경(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오정수, 정익중(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우영지, 이기학(2010).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47-559.
- 우영진, 홍혜영(2011).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3(1), 31-53.
- 유수복(2013). 진로성숙도 유형에 따른 빈곤아동의 동질집단 특성 연구: 빈곤아동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1, 67-100.
- 유채은, 조규판(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143-166.
- 이경상, 임희진, 박창남, 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선, 남현우(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0, 233-235.
- 이기범(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 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명진, 봉미미, 권순구(2010).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소년의 진로포부 예측변인 비교. 교육심리연구, 24(2), 423-447.
- 이영광, 김민수(2014). 청소년의 꿈,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빈곤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청소년 진로성숙을 변화,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적연구를 통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정선, 양지웅(2013).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진로미래 간의 모형 검증, 진로교육연구, 26(3), 143-164.
- 이정애, 황재규(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사이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5(1), 37-52.
- 이주연, 조연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2), 53-70.
- 이주영, 이아라(2015).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49-880.
- 이현주(2014).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요인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교. 교육문제연구, 50, 1-28.
- 임영식, 한상철 (2004).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임현정, 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교육실천연구, 10(1), 1-23.
- 정상모(2001). 부모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옥(2009). 빈곤아동의 빈곤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81-201.
- 정익중, 이봉주, 임진영, 황매향, 김경애, 이은지(2008). 교육사회 아동청소년의 교육요구 및 발달과정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연구.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정주원(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101-118.
- 좌현숙(2017).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49, pp. 86-119.
- 천정웅(1998). 좋은 사회를 위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가치. 청소년행동연구, 3, 97-120.
- 최수미(2013).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213-234.
- 최재혁, 홍혜영(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15(1), 31-5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경철(2015). 사회적 자본 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57-166.
-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박은미, 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허운영(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애(2010).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8, 59-82.
- 홍지영, 유정이(2013).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107-145.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황혜숙(2012). 진로정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 및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lom, B. L., & Hansen, S. S. (2006). Just Don't Shut the Door on Me: Aspirations of Adolescents in Crisi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0(1), 88-91.
- Erikson, Erik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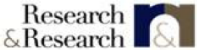
Hill, C. E., Thompson, B. J., Hess, S. A., Knox, S., Williams, E. N., & Ladany, N.(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O'Brien, K.M. Gray, M. P., Tourajdi, P.P., & Eiginbrode, S.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an's career choice: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S. Solberg & K.M. O'brien(Chairs), Promoting woma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ium and beyond. Symposium com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ronto, Canada.

Plucker, J. A.(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limate conditions and student aspir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 240-246.

부록

부록1. 아동청소년용 설문지



ID 연 번 - 연 도 - 사 업 장 - 아 동 번 호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 설문조사 (아동청소년용)

2017022101-0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미래세대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 실태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현재 생각과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을 위해 보다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므로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통계법 제 8조와 9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신상 정보와 의견은 보호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안에 기록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 주관 기관: 월드비전, 동그라미재단
- ▶ 조사 수행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R&R)
- ▶ 설문 내용 문의 :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담당 : 조윤호 연구원 / 02-2078-7037)

☐ 면접원 기재사항: 면접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면접 일시	2017년 9월 _____일 _____시			

- 1 -

PART Ⅰ . 꿈에 관한 문항

▣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빈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한 군데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여러분은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살 때 부터

Q2. 여러분은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 1) 예 2) 아니오

Q3. 꿈이 무엇인가요?

Q4.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5. 꿈이 얼마나 자주 변했나요?

자주 변했다	가끔 변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1	2	3	4

Q6. 꿈을 꾸는 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 1) 성적 2) 진로검사/진로체험 3) 책
4) 대중매체(TV, 인터넷 등) 5) 아르바이트 6) 종교
7) 롤모델(닮고 싶은 사람) 8) 봉사활동 9) 기타 ()
10) 특별한 계기 없다

Q7. 꿈을 꾸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 1) 부모님(주양육자) 2) 교사 3) 친구나 선배
4) 친척 5)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6) 종교인(목사님, 신부/수녀님, 스님 등)
7) 기타 _____ 8) 없다

Q8. 다른 사람들과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9. 누구와 주로 꿈을 이야기 나누나요?

- 1) 부모님(주양육자) 2) 교사 3) 친구나 선배
 4) 친척 5)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6) 종교인(목사님, 신부/수녀님, 스님 등)
 7) 기타 _____ 8) 없다

Q10. 꿈을 따라 살고 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11. 내가 꿈을 이루는 데 다음의 항목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나의 상황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존감)	1	2	3	4	5	1	2	3	4	5
2 꿈이나 목표에 대한 의지	1	2	3	4	5	1	2	3	4	5
3 재능	1	2	3	4	5	1	2	3	4	5
4 경제력	1	2	3	4	5	1	2	3	4	5
5 습관	1	2	3	4	5	1	2	3	4	5
6 공부·일에서 개인의 노력	1	2	3	4	5	1	2	3	4	5
7 성적이나 학벌(출신학교)	1	2	3	4	5	1	2	3	4	5
8 성별	1	2	3	4	5	1	2	3	4	5
9 외모나 신체적 조건	1	2	3	4	5	1	2	3	4	5
10 대인관계능력	1	2	3	4	5	1	2	3	4	5
11 부모님의 격려나 지원	1	2	3	4	5	1	2	3	4	5
12 주변 사람	1	2	3	4	5	1	2	3	4	5
13 주변 환경	1	2	3	4	5	1	2	3	4	5
14 출신 지역이나 고향	1	2	3	4	5	1	2	3	4	5
15 사회적 분위기	1	2	3	4	5	1	2	3	4	5

Q12.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평등하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1 교육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1	2	3	4
2 취업 기회 (직장에 들어가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	1	2	3	4
3 승진승급기회 (더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올라갈 기회)	1	2	3	4
4 법의 집행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나 경찰의 태도)	1	2	3	4
5 여성의 대우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	1	2	3	4
6 소득과 재산	1	2	3	4
7 지역(동네) 간	1	2	3	4
8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우(나 이들을 대하는 태도)	1	2	3	4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나 이들을 대하는 태도)	1	2	3	4

Q13. 만약 내가 일을 한다면 다음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나의 발전과 성취	1	2	3	4
2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3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1	2	3	4
4 소득이 높은(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5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Q20.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2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1	2	3	4
3 부모님(주양육자)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1	2	3	4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7 나에게 맞는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주양육자)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1	2	3	4
8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1	2	3	4
9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주양육자)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12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주양육자)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13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1	2	3	4
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16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19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20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Q21. 다음은 진로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를 하나만 골라 ○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생각해보고 확정했다.	1	2	3	4
2 나의 취미, 특기, 소질과 관련지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3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1	2	3	4
4 나의 성격을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찾아보았다.	1	2	3	4
5 대학 설명 박람회(대학입시설명회) 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1	2	3	4
6 (내가 희망하는) 직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7 실제로 그(내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험담, 조언, 충고를 들었다.	1	2	3	4
8 진학이나 직업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자세한 직업이나 취업, 관련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1	2	3	4
9 대학에서 발생하는 대학정보, 소식지, 정보지, 홍보물, 책 등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	2	3	4
10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과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진로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	1	2	3	4
11 가고 싶은 대학에 미리 견학을 가 보았다.	1	2	3	4
12 되고자 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본적이 있다.	1	2	3	4
13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14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분야의 책이나 전문서적, 잡지를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다.	1	2	3	4
15 흥미 있는 분야의 자료나 정보지, 팸플릿을 모으고 스크랩하고 있다.	1	2	3	4
16 내 관심분야의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이나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습득했다.	1	2	3	4
17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서 필요한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8 영어 및 외국어 공부를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1	2	3	4
19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신문 기사를 꾸준히 찾아본 적이 있다.	1	2	3	4

Q22.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2	3	4

Q23.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수준은 1, 가장 높은 수준은 10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1 전체 성적	1	2	3	4	5	6	7	8	9	10
2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1	2	3	4	5	6	7	8	9	10
3 예체능	1	2	3	4	5	6	7	8	9	10

Q24. 지난 1년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1	2	3	4
2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1	2	3	4
3 일거나 편지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1	2	3	4
4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1	2	3	4
6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2	3	4

Q25. 아래에는 여러 가지 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1년 내에 여러분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16 자주 싸운다.	1	2	3
2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17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3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18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4 잘 운다.	1	2	3	19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5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20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6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21 고향을 지른다.	1	2	3
7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22 으스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8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23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1	2	3
9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24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0 샘(질투)을 잘 낸다.	1	2	3	25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11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26 남을 잘 놀린다.	1	2	3
12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27 성격이 급하고 제 뜻대로 안 되면 대굴대굴 구른다.	1	2	3
13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1	2	3	28 남을 위협한다.	1	2	3
14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29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15 내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30 걱정이 많다.	1	2	3

Q26. 다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신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낸다.	1	2	3	4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은다.	1	2	3	4
4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6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1	2	3	4
7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8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3	4
9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3	4

Q27.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	1	2	3	4
2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3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1	2	3	4
4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	1	2	3	4
5 나는 질문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답한다.	1	2	3	4
6 나는 의견을 말할 때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한다.	1	2	3	4

Q28.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뭔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3	4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3	4
3 열심히 뭔가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3	4

Q29.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Q30. 다음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1	2	3	4
6	이슈가 되는(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7	당장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1	2	3	4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1	2	3	4
9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	2	3	4
1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	2	3	4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1	2	3	4
16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2	3	4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19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한다.	1	2	3	4
20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1	2	3	4
21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1	2	3	4
22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 한다.	1	2	3	4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1	2	3	4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1	2	3	4
25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	2	3	4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Q31. 아래의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거나 격려해주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및 주양육자(부모님 역할을 하는 분)	1	2	3	4
2 학교 선생님	1	2	3	4
3 친구	1	2	3	4

Q32.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는 어른(주양육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주양육자)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하신다.	1	2	3	4
2 나는 부모님(주양육자)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셨다.	1	2	3	4

Q33. 다음은 평상시 부모님(주양육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주양육자)은 나를 자주 안아 주시거나 쓰다듬어 주시며 자랑스럽게 생각 하신다.	1	2	3	4
2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리 부모님(주양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2	3	4
3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하라고 하신다.	1	2	3	4
4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일단 부정적인 눈으로 나를 본다.	1	2	3	4
5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실수를 해도 나무라시지 않고 잘하라며 격려해 주신다.	1	2	3	4
6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할 일이 옳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	2	3	4
7 부모님(주양육자)은 친구를 사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허락해 주신다.	1	2	3	4
8 부모님(주양육자)은 나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고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 하신다.	1	2	3	4
9 가족이 무엇을 결정할 때 나에게 발언권(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을 주시며 나 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10 부모님(주양육자)은 나에 관한 일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편이다.	1	2	3	4
11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벌을 주시거나 체벌을 하지 않 으신다.	1	2	3	4
12 부모님(주양육자)은 좀처럼 나와 의견을 나누려고 하지않으며 때때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13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라며 규칙을 확고하게 시 행하신다.	1	2	3	4
14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작은 잘못을 해도 벌을 주시거나 체벌을 하신다.	1	2	3	4
15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요구하면 처음에는 반대하시지만 나중에는 허락하 신다.	1	2	3	4
16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필요해서 부탁드린 것을 잘 잊어버리고 주시지 않는다.	1	2	3	4
17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나 하고 싶은 일을 자주 함께 하신다.	1	2	3	4
18 부모님(주양육자)은 TV를 보거나 컴퓨터 혹은 게임을 할때 일일이 간섭을 하신다.	1	2	3	4
19 부모님(주양육자)은 편리 혹은 분위기에 따라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다.	1	2	3	4
20 부모님(주양육자)은 내가 게으르고 못났다고 생각하시며, 나를 미워하신다.	1	2	3	4

Q34.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1	2
2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1	2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1	2
4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1	2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1	2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1	2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형제자매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 포함)	1	2
8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낼 수 있다	1	2
9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1	2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	2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	2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	2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다	1	2
14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	1	2
15 인스턴트 식품 (예: 라면, 햄버거, 콜라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1	2

Q35.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주양육자)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1	2	3	4
5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1	2	3	4
6 당번이나 1인 1역할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7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1	2	3	4
8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9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10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1	2	3	4
1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1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	2	3	4
13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1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1	2	3	4
1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	2	3	4
16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17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1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	2	3	4
19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20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PART III.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문항

DQ1.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 1) 꿈이 없다 ➡ **DQ1-1로 이동**
- 2)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DQ1-1로 이동**
- 3)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DQ1-1. 꿈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 2)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 3)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 4) 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 5)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
- 6) 기타 _____

DQ2. 부모님(주양육자)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 1) 같다
- 2) 다르다 ➡ **DQ2-1로 이동**

DQ2-1.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1) 내 뜻대로 한다
- 2) 부모님(주양육자) 뜻에 따른다
- 3) 서로 상의해서 맞춘다
- 4) 기타 _____

DQ3. 여러분은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나요?

- 1) 없음
- 2) 있음

DQ4. 학교 이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나요?

- 1) 예
- 2) 아니오

DQ5.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태어난 날: 년 월

DQ6.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DQ7. 여러분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종교가 없다
- 2) 불교
- 3) 개신교(기독교)
- 4) 천주교(가톨릭)
- 5) 기타 _____

DQ8.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사나요?

- 1) 부모님 두분과 같이 **→ DQ9로 이동**
- 2) 아버지만 같이
- 3) 어머니만 같이
- 4)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누구와 사는지: _____)

DQ8-1. 부모님 중 어느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계시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이혼
- 2) 별거
- 3) 사망 (두 분 모두 또는 한분이)
- 4) 가출 (두 분 모두 또는 한분이)
- 5) 기타 _____

DQ9. 부모님(주양육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래 ()안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부모 이외 ()

- | | |
|---|--|
| 1) 관리직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등) | 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회사원 등) |
| 3) 금융, 보험 관련직
(은행원 등) | 4) 연구 및 교육 관련직
(교수, 교사 등) |
| 5) 법률 관련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6) 보건, 의료 관련직
(의사, 간호사 등) |
|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사회복지사, 목사 등) | 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예술가, 디자이너, 연예인 등) |
|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버스기사, 택배기사 등)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판매원, 가게(매장, 인터넷쇼핑몰) 등) |
| 11) 기계, 화학, 전기전자, 섬유, 식품가공 관련직
(자동차나 선박 등 공장 근로자, 기술자 등) | 12) 마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미용사, 스포츠선수 등) |
|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요리사, 식당 등) | 14) 건설 관련직
(건축설계사, 건축노동자 등) |
| 1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 1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상하수도 처리시설, 공방/목공소, 인쇄소 등) |
| 17) 농림어업 관련직
(농부, 어부 등) | 18) 군인,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
| 19) 전업주부(가정주부) | 20) 무직 |
| 21) 기타() | 22) 모름 |

DQ10. 부모님(주양육자)은 얼마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래 ()안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부모 이외 ()

-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 4) 전문대학교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졸업 |
| 7) 기타 _____ | 8) 모름 | |

DQ11.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8	9	10

DQ12. 여러분은 몇 학년이십니까? (학교를 잠시 쉬는 경우는 해당 학교를 설 당시 학년을 기입해 주세요)

학교를 다니는지	1)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2) 잠시 쉬는 중이다	3)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인문계 고등학교
	4) 전문계 고등학교(실업계)	5)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고, 과학고, 자사고 등)	
	6) 기타 _____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5학년	5) 6학년	

DQ13.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는 편인가요?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나누어 대답해주세요.

※ 응답 예시 : 내가 보통 평일에 하루에 총 8시간을 잔다면? ☞ 하루에 8 시간 0 분 동안

	평일 (월~금)	주말(토·일)
잠 자는 시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DQ14. 여러분은 학교 정규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의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는 편인가요?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나누어 대답해주세요.

	평일 (월~금)	주말(토·일)
14-1 등교 + 학교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4-2 사교육(학습) (학원, 과외, 방과후 프로그램 등)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4-3 사교육(예체능) (학원, 과외, 방과후 프로그램 등)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4-4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기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DQ15. 여러분은 학교 정규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의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는 편인가요?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나누어 대답해주세요.

※ (주의사항) 가장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주세요.

응답 예시 :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게임을 한 경우

☞ 주된 활동이 TV시청이라면 : TV시청에만 시간을 표시합니다.

☞ 주된 활동이 스마트폰 게임이라면 : 스마트폰 게임에만 시간을 표시합니다.

	평일 (월~금)	주말(토·일)
15-1 TV (DVD) 시청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 학습 및 정보검색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2 SNS (e-mail, 메신저, 블로그, 카페 포함)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5-2 컴퓨터 3 게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4 동영상 보기 (만화, 영화, TV 등)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 학습 및 정보검색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15-3 스마트폰 2 SNS (e-mail,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포함)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3 게임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4 동영상 보기 (만화, 영화, TV 등)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DQ16. 여러분은 학교 정규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는 편인가요?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나누어 대답해주세요.

	평일 (월~금)	주말(토·일)
1 운동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2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하루에 ____시간 ____분 동안

DQ17. 여러분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총 몇 시간 하였는지 응답해주세요.

1) 없음

2) 있음 ☞ 지난 1년간 총 시간 분 동안

DQ18. 초등학교 이전에 영어 공부를 했나요?

1) 예

2) 아니오

DQ19.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 1) 예 **DQ19-1로 이동** 2) 아니오

DQ19-1. 있다면 몇 번이나 가보았나요?

번

DQ20. 다음 활동을 해보았나요? (활동을 해보았다면, 어디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나요?)

항목	(1) 경험		(2) 어디에서 받았나요?						(3) 꿈이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학원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없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진로상담 및 탐색			1	2	3	4	5		1	2	3	4	5
1 (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해 상담하는 것)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진로체험하기			1	2	3	4	5		1	2	3	4	5
2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하는 것, 직업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 아동권리교육			1	2	3	4	5		1	2	3	4	5
3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 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정규수업 외 사교육			1	2	3	4	5		1	2	3	4	5
4 (방과후교육이나 학원, 과외 등 수업 외 학습과 관련한 사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문화예술체험 및 관련 교육			1	2	3	4	5		1	2	3	4	5
5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 등 예체능과 관련한 체험이나 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여가나 놀이 프로그램			1	2	3	4	5		1	2	3	4	5
6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 공공기관 :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관공서, 구립/시립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나라(국가나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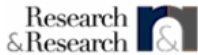
* 복지시설 :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 민간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무료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종교시설 :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이것으로 설문을 마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록2. 청년용 설문지



ID - - -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 설문조사 (대학청년용)

2017022101-0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미래세대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 실태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현재 생각과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을 위해 보다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므로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통계법 제 8조와 9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신상 정보와 의견은 보호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를 하거나 ()안에 기록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 주관 기관: 월드비전, 동그라미재단
- ▶ 조사 수행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R&R)
- ▶ 설문 내용 문의 :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담당 : 조윤호 연구원 / 02-2078-7037)

☐ 면접원 기재 사항: 면접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면접 일시	2017년 7월 ____일 ____시			

- 1 -

PART 1. 꿈에 관한 문항

☐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O표를 하거나 빈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한 군데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여러분은 언제부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살 때 부터

Q2. 여러분은 스스로 꿈을 결정했나요?

1) 예 2) 아니오

Q3. 꿈이 무엇인가요?

Q4.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5. 꿈이 얼마나 자주 변했나요?

자주 변했다	가끔 변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1	2	3	4

Q6. 꿈을 꾸는 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 1) 성적 2) 진로검사/진로체험 3) 책
4) 대중매체(TV, 인터넷 등) 5) 아르바이트 6) 종교
7) 롤모델(אה고 싶은 사람) 8) 봉사활동 9) 기타 ()
10) 특별한 계기 없다

Q7. 꿈을 꾸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 1) 부모님(주양육자) 2) 교사 3) 친구나 선배
4) 친척 5)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6) 종교인(목사님, 신부/수녀님, 스님 등)
7) 기타 8) 없다

Q8. 다른 사람들과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9. 누구와 주로 꿈을 이야기 나누나요?

- 1) 부모님(주양육자) 2) 교사 3) 친구나 선배
4) 친척 5)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6) 종교인(목사님, 신부/수녀님, 스님 등)
7) 기타 _____ 8) 없다

Q10. 꿈을 따라 살고 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2	3	4

Q11. 내가 꿈을 이루는 데 다음의 항목들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나의 상황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존감)	1	2	3	4	5	1	2	3	4	5
2 꿈이나 목표에 대한 의지	1	2	3	4	5	1	2	3	4	5
3 재능	1	2	3	4	5	1	2	3	4	5
4 경제력	1	2	3	4	5	1	2	3	4	5
5 습관	1	2	3	4	5	1	2	3	4	5
6 공부·일에서 개인의 노력	1	2	3	4	5	1	2	3	4	5
7 성적이나 학벌(출신학교)	1	2	3	4	5	1	2	3	4	5
8 성별	1	2	3	4	5	1	2	3	4	5
9 외모나 신체적 조건	1	2	3	4	5	1	2	3	4	5
10 대인관계능력	1	2	3	4	5	1	2	3	4	5
11 부모님의 격려나 지원	1	2	3	4	5	1	2	3	4	5
12 주변 사람	1	2	3	4	5	1	2	3	4	5
13 주변 환경	1	2	3	4	5	1	2	3	4	5
14 출신 지역이나 고향	1	2	3	4	5	1	2	3	4	5
15 사회적 분위기	1	2	3	4	5	1	2	3	4	5

Q12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평등하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1 교육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1	2	3	4
2 취업 기회 (직장에 들어가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	1	2	3	4
3 승진승급기회 (더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올라갈 기회)	1	2	3	4
4 법의 집행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나 경찰의 태도)	1	2	3	4
5 여성의 대우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	1	2	3	4
6 소득과 재산	1	2	3	4
7 지역(동네) 간	1	2	3	4
8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우(나 이들을 대하는 태도)	1	2	3	4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나 이들을 대하는 태도)	1	2	3	4

Q13 만약 내가 일을 한다면 다음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나의 발전과 성취	1	2	3	4
2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3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	1	2	3	4
4 소득이 높은(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5 명예롭고 존중받는 일을 하는 것	1	2	3	4

Q14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

- | | |
|---|--|
| 1) 관리직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등) | 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회사원 등) |
| 3) 금융, 보험 관련직
(은행원 등) | 4) 연구 및 교육 관련직
(교수, 교사 등) |
| 5) 법률 관련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6) 보건, 의료 관련직
(의사, 간호사 등) |
|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사회복지사, 목사 등) | 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예술가, 디자이너, 연예인 등) |
|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버스기사, 택배기사 등)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판매원, 가게(매장, 인터넷쇼핑몰) 등) |
| 11) 기계, 화학, 전기전자, 섬유, 식품가공 관련직
(자동차나 선박 등 공장 근로자, 기술자 등)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미용사, 스포츠선수 등) |
|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요리사, 식당 등) | 14) 건설 관련직
(건축설계사, 건축노동자 등) |
| 1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 1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상하수도 처리시설, 공방/목공소, 인쇄소 등) |
| 17) 농림어업 관련직
(농부, 어부 등) | 18) 군인,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
| 19) 전업주부(가정주부) | 20) 무직 |
| 21) 기타() | |

Q14-1 위에서 선택한 직업이 사회지도층(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이라 생각하나요?

- 1) 예 2) 아니오

Q15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Q16 여러분과 부모님(주양육자)은 각각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2~3년제)	일반대학교 (4년제)	대학원 이상 (석사 및 박사)
본인	1	2	3	4	5
부모님 (주양육자)	1	2	3	4	5

Q17.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이 있나요?

- 1) 예 ☒ Q17-1, 2로 이동 2) 아니오

Q17-1 (있다면) 닥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Q17-2 (있다면) 왜 그 사람을 닮고 싶은가요?

Q18.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는 어른(주양육자)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

- | | | | |
|-----|---|-----|--|
| 1) | 관리직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등) | 2) |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회사원 등) |
| 3) | 금융, 보험 관련직
(은행원 등) | 4) | 연구 및 교육 관련직
(교수, 교사 등) |
| 5) | 법률 관련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6) | 보건, 의료 관련직
(의사, 간호사 등) |
| 7)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사회복지사, 목사 등) | 8)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예술가, 디자이너, 연예인 등) |
| 9)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버스기사, 택배기사 등) | 10)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판매원, 가게(매장, 인터넷쇼핑몰) 등) |
| 11) | 기계, 화학, 전기전자, 섬유, 식품가공 관련직
(자동차나 선박 등 공장 근로자, 기술자 등) | 12) | 마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미용사, 스포츠선수 등) |
| 13) | 음식서비스 관련직
(요리사, 식당 등) | 14) | 건설 관련직
(건축설계사, 건축노동자 등) |
| 15)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 16)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속직
(상하수도 처리시설, 공방/목공소, 인쇄소 등) |
| 17) | 농림어업 관련직
(농부, 어부 등) | 18) | 군인,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
| 19) | 전업주부(가정주부) | 20) | 무직 |
| 21) | 기타() | 22) | 모름 |

PART II. 생각이나 상태에 관한 문항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O표를 하거나 빈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한 군데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1	2	3	4
2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1	2	3	4
3 나보다 못한 친구를 잘 돕는다.	1	2	3	4

Q20.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2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1	2	3	4
3 부모님(주양육자)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1	2	3	4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7 나에게 맞는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주양육자)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1	2	3	4
8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 해 본다.	1	2	3	4
9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주양육자)이나 선생님이 정 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12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주양육자)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야 한다.	1	2	3	4
13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1	2	3	4
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16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19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20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Q21 다음은 진로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를 하나만 골라 ○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생각해보고 확정했다.	1	2	3	4
2 나의 취미, 특기, 소질과 관련지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3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1	2	3	4
4 나의 성격을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찾아보았다.	1	2	3	4
5 그(내가 희망하는) 직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6 실제로 그(내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험담, 조언 충고를 들었다.	1	2	3	4
7 진학이나 직업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자세한 직업이나 취업, 관련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1	2	3	4
8 되고자 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본적이 있다.	1	2	3	4
9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10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분야의 책이나 전문서적, 잡지를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다.	1	2	3	4
11 흥미 있는 분야의 자료나 정보지, 팸플릿을 모으고 스크랩하고 있다.	1	2	3	4
12 내 관심분야의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이나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습득했다.	1	2	3	4
13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서 필요한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4 영어 및 외국어 공부를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1	2	3	4
15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신문 기사를 꾸준히 찾아본 적이 있다.	1	2	3	4

Q22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2	3	4

Q23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수준은 1, 가장 높은 수준은 10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1 전체 성적	1	2	3	4	5	6	7	8	9	10
2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1	2	3	4	5	6	7	8	9	10
3 예제능	1	2	3	4	5	6	7	8	9	10

Q24 지난 1년 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1	2	3	4
2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1	2	3	4
3 일기나 편지에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자주한다.	1	2	3	4
4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1	2	3	4
6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2	3	4

Q25 아래에는 여러 가지 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1년 내에 여러분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15 자주 싸운다.	1	2	3
2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16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3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17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4 잘 운다.	1	2	3	18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5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19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6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20 고향을 지른다.	1	2	3
7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21 으스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8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22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1	2	3
9 생(질투)을 잘 낸다.	1	2	3	23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0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24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11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25 남을 잘 놀린다.	1	2	3
12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1	2	3	26 남을 위협한다.	1	2	3
13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27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14 내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28 걱정이 많다.	1	2	3

Q26 다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신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낸다.	1	2	3	4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은다.	1	2	3	4
4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6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1	2	3	4
7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8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3	4
9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3	4

Q27.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	1	2	3	4
2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3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1	2	3	4
4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	1	2	3	4
5 나는 질문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답한다.	1	2	3	4
6 나는 의견을 말할 때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한다.	1	2	3	4

Q28.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뭔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3	4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3	4
3 열심히 뭔가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3	4

Q29.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Q30. 다음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1	2	3	4
6 이슈가 되는의견이 달라 다름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7 당장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1	2	3	4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1	2	3	4
9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	2	3	4
1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	2	3	4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1	2	3	4
16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2	3	4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19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한다.	1	2	3	4
20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1	2	3	4
21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1	2	3	4
22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 한다.	1	2	3	4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1	2	3	4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1	2	3	4
25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	2	3	4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Q31 아래의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거나 격려해주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및 주양육자(부모님 역할을 하는 분)	1	2	3	4
2 학교 선생님	1	2	3	4
3 친구	1	2	3	4

PART III.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문항

DQ1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 1) 꿈이 없다 ☐ **DQ1-1로 이동**
- 2)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 ☐ **DQ1-1로 이동**
- 3)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

DQ1-1 꿈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 2)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 3)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 4) 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 5) 그냥 못 이룰 것 같아서
- 6) 기타 _____

DQ2 부모님(주양육자)이 내게 기대하는 꿈과 나의 꿈이 같은가요?

- 1) 같다
- 2) 다르다 ☐ **DQ2-1로 이동**

DQ2-1 부모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1) 내 뜻대로 한다
- 2) 부모님(주양육자) 뜻에 따른다
- 3) 서로 상의해서 맞춘다
- 4) 기타 _____

DQ3 여러분은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나요?

- 1) 없음
- 2) 있음

DQ4 학교 이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나요?

- 1) 예
- 2) 아니오

DQ5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년			월
--	--	--	--	---	--	--	---

DQ10. 부모님(주양육자)은 얼마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래 ()안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부모 이외 ()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7) 기타 _____ 8) 모름

DQ11.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8	9	10

DQ12. 여러분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고교중퇴 이하
2) 고졸
3)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
4) 전문대졸
5) 4년제 이상 대졸
6) 대학원졸

DQ13. 여러분은 현재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 1) 학업
2) 근로자로서 근무
3) 아르바이트
4) 일시휴직 및 발령대기, 입학대기
5) 구직활동
6) 육아 및 가사
7)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 통학(재수, 편입 준비 등)
8) 취업목적으로 전문직업훈련 기관에 통학
9) 쉬고 있음
10) 취업준비(직업훈련기관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준비)
11) 진학준비(입시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준비)
12) 군입대 대기
13) 기타

DQ14. 귀하는 취업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1) 있다
- 2) 없다  DQ16로 이동

DQ15. 기존에 일했던 일자리(직장)를 그만 두었던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
- 2)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 3)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4)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해서
- 5)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 때문에
- 6) 보수, 승진 등의 불만 때문에
- 7)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 8)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 9) 창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 10) 폐업이나 해고, 사업(일) 종료로 인해서
- 1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 12) 건강상의 이유로
- 13)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 14) 기타 _____

DQ16. 귀하가 최근 일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내 전공이나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2) 월급 등 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3) 적절한 근무시간을 제시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 4) 가족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 5) 채용단계에서 계속 통과하지 못해서
- 6) 당분간 쉬고 싶어서
- 7) 건강상의 이유로
- 8) 집안 일(가사, 돌봄 등) 때문에
- 9) 기타 _____

DQ17. 직업상담, 취업교육 참가, 취업처 안내받기,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지방기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DQ18. 다음 활동을 해보았나요? (활동을 해 보았다면, 어디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나요?)

항목	(1) 경험		(2) 어디에서 받았나요?					(3) 꿈이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학원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진로상담 및 탐색			1	2	3	4	5					
1 (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해 상담하는 것)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진로체험하기			1	2	3	4	5					
2 (직업인의 특강을 듣거나 인터뷰하는 것, 직업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 아동권리교육			1	2	3	4	5					
3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 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정규수업 외 사교육			1	2	3	4	5					
4 (방과후교육이나 학원, 과외 등 수업 외 학습과 관련한 사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문화예술체험 및 관련 교육			1	2	3	4	5					
5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 등 예체능과 관련한 체험이나 교육)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여가나 놀이 프로그램			1	2	3	4	5					
6	1	2	6 기타 _____					1	2	3	4	5

* 공공기관 :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관공서, 구립/시립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나라(국가나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 복지시설 :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 민간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무료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종교시설 :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단체

DQ19. 최근 3개월 간 여러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만 원

근로소득=임금+사업소득

-임금은 세금 전 소득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지출)

DQ20. 최근 3개월 간 여러분이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 □ □ □ □ 만 원

DQ21.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갚아야 할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돈)
- 외상, 미리탄 계돈
- 기타부채(학자금대출 등)

1) 부채 없음

2) 부채 있음 만원

DQ22. 여러분은 다음의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해당하는 항목에는 '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있다	없다
1 연애	1	2
2 결혼	1	2
3 출산	1	2
4 내집마련	1	2
5 취업	1	2

이것으로 설문을 마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록3. 설문문항별 출처

본 실태조사보고서 상 주요 지표로 분석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각 지표별 문항과 출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출처
1. 꿈에 관한 문항	◦ 꿈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	I_문1~10 III_문1~2	개발 (희망제작소, 2016 참조)
	◦ 꿈영향요인 중요도/만족도	I_문11	개발
	◦ 사회불평등인식	I_문12	성균관대학교, 2005 ⁵⁾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14 참조)
	◦ 일 선택기준	I_문13	개발
	◦ 희망직업 및 주관적계층 이동가능성	I_문14 희망직업(본인) I_문15 계층이동가능성 I_문18 희망직업(부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⁶⁾
	◦ 희망교육수준	I_문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문25)
	◦ 롤 모델	I_문17	개발
2. 발달 문항	◦ 공동체성	II_문19	정익중,이봉주,임진영,황매향,김경애, 이은지, 2008 ⁷⁾
	◦ 진로성숙도	II_문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진로준비행동	II_문21	박완성, 2002; 이옥경, 2012 재인용
	◦ (주관적) 건강	II_문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문45)
	◦ (주관적) 학업성취	II_문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문17)
	◦ 행복지수	II_문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문7)
	◦ 아동행동평가	II_문25	Achenbach, 1992; 오경자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재인용(문1)
	◦ 문제해결능력	II_문26	정익중,이봉주,임진영,황매향,김경애, 이은지, 2008
	◦ 자기관리(생활습관)	II_문26	
	◦ 자신감	II_문26	
	◦ 성취동기	II_문27	
	◦ 자기표현	II_문27	
	◦ 성공경험	II_문28	Ros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2000 재인용
	◦ 자아존중감	II_문29	
	◦ 회복탄력성	II_문30	
	◦ 사회적 지지	II_문31	신우열·김민규·김주환, 2009; 허윤영, 2012 재인용
			개발

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출처
2. 발달 문항	◦ 부모님과과의 관계	II_문32	정익중,이봉주,임진영,황매향,김경애,이은지, 2008
	◦ 부모양육태도	II_문33	Baumrid&Maccoby, Martin이 제시한 내용과 fels 연구소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PBRS); 김재은, 1974; 김기정, 1984; 정상모, 2001 재인용
	◦ 결핍수준	II_문34	UNICEF,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재인용(문51)
	◦ 학교생활적응	II_문35	민병수, 1991; 정화실 1991 재인용
3. 일반적인 사항	◦ 연령	III_문5	
	◦ 교급	III_문12	
	◦ 성별	III_문6	
	◦ 지역		
	◦ 가족유형	III_문8	
	◦ 주관적 경제수준	III_문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문13)
	◦ 기타	III_문3,4,7,9,10,18,19	
	◦ 생활시간	III_문13~17	어린이재단, 2016
	◦ 사회서비스	III_문20	개발

- 5) 석현호,문용갑,구혜란,김상욱,김재은,은기수,이명진,이윤석,임영규,정기선,최문경(2005). 한국 종합사회조사 200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6)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정익중,이봉주,임진영,황매향,김경애,이은지(2008).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요구 및 발달과정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연구. 삼성고른기획장학재단.

발행인 | 양호승, 최성호
발행처 | 한국월드비전, 동그라미재단